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현대불교

현대불교신문을 후원해주세요
현불회 | 가입문의 | 02)2004-820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4월 4일) 2019년 5월 8일 수요일



부처님 오심에 환희로운 사바세계 뭇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느끼도록 가르침을 전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부처님. 부처님은 올해도 어김없이 사바세계에 나투셨다.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만 중생이 저마다의 서원을 담아 밝힌 소중한 등(燈)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퍼진다. 오늘은 좋은날, 부처님오신날이다. 사진은 5월 4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펼쳐진 2019 연등회 연등행렬서 조계사 행렬단이 초승달 모양의 등을 부처님 탄신을 찬탄하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4차산업시대 어린이포교 전략 수립하자

[Cover Story] 어린이포교를 새롭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이 어느날 탁발을 위해 길을 나섰을 때다. 아이들이 개울서 잡은 고기를 난폭하게 내팽개치는 걸 보았다. 부처님은 "애들아, 너희들도 남에게 그렇게 당하면 좋겠니"라며 타일렀고, 아이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개울로 돌려보냈다.

〈자설경〉에 나오는 이 일화는 모든 아이들 개개인에 생명을 존중하는 불성이 내재되어 있음과 이를 일깨우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는 올해 봉축행사를 '어린이'를 주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5월 4일 진행된 연등회 연등행렬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은 '꿈과 희망의 별 등', '열정의 보리수 등'과 같이 저마다 준비한 등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4차산업시대의 도래로 어린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종교계에 일정부분 기대온 인성교육이 공교육 체제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불교계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에서 공개한 어린이청소년법회 현황을 보면 전국 3000여개 사찰 중 어린이법회 운영사찰은 162곳에 불과하다. 2002년 조사 당시 329곳의 사찰이 어린이 법회를 운영한데 비하면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여기에 어린이들이 자라면 몸담을 수 있는 청소년 법회는 71곳에 불과해 그나마 적은 어린이법회 출신 아이들이 갈 곳도 없는 상황이다.

지도자 배출도 감소해 불교어린이지도사는 2007년 73명이 첫 배출됐지만 2017년에는 19명으로 대폭 줄었다. 불교청소년지도사 또한 2009년 37명 배출에서 2017년 19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공교육 현장에서 불교 포교 접합지점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2018년 교육부 전국유치원 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은 9021개에 달하지만 불교계 유치원은 130여 곳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전국 54곳의 보육교사교육원 중 유일한 불교계 기관인 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이 개원 26년 만인 지난 2017년 폐원하면서 실질적으로 불자 아동보육 전문가 양성기관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아동보육학과 외에는 전무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다시 불교가 어린이 포교와 맞물린 사회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롭게 사찰에서의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가다듬고, 지도자 양성에 앞장서야 할 시기란 것이다.

사찰 어린이집과 교육센터 등 어린이 포교를 위한 터전을 만드는 것과 동시

종교가 담당했었던 인성교육
공교육 체계로 빠르게 편입돼
불교계 포교 변화 필요하지만
포교 환경은 나날이 악화 추세
어린이 중심 사찰문화 조성을

에 근본적으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사찰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하는 신행풍토를 구성하고, 어린이 중심으로 사찰문화를 바꿔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저출산 국면 속에 어린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포교 전략을 짜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곳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다. 서울 조계사, 울산 황룡사, 부산 관음사와 같이 적극적인 어린이 포교를 전개하는 사찰의 경우 어린이 불자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어머니 불자들도 늘어나 신도층이 젊어지는 효과도 보고 있다.

우리는 흔히 어린이는 희망이라고 말한다. 갈수록 줄어가는 불교 교세 속에 다시금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어린이 포교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다.

〈관련 특집 A7 · 8 · 9〉

불기2563(2019)년 부처님 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세 민 총무원장 원 행
중앙종회의장 범 해 교육원장 현 응
호 계 원 장 무 상 포교원장 지 홍
대한불교조계종

2019년 봉축특집호
A·B·C 섹션 76면 발행

봉축특집
유기동물과 불교 B1 · 2 · 3 · 6 · 7



승가결사체가 뜬다 B12 · 13 · 16 · 17

데스크초대석 A5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장 정념 스님



도반의 향기 C1~2
서울대불교동문회



봉축 시방세계 B21
독일한마음풍물패 내한 현장

봉축법어 · 봉축사 A13~15

봉축화보 A18 · 19

특별기획
생명나눔은 자비입니다 A23

동국대 'Energize Dongguk' 선포 B9

'육지장사 평화대탑' 고불법회 B19


홍윤식


이현세


김병주


전원주

올해 불자대상 홍윤식 교수 등 4人

올해 조계종 불자대상에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4인이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원행)는 4월 30일 불기2563년도 불자대상 수상자 선정 회의를 개최, 홍윤식(동국대 명예교수) · 이현세(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 김병주(前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전원주(방송인) 불자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홍윤식 불자는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불교문화가 시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1970년 '불교미술공모전' 창설을 주도해 현재의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으로 확대되는 데 공헌했다. 이현세 불자는 국내 만화계를 대표하는 대중문화 선구자로서 지난해 독립운동가 초월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웹툰 '초월'을 연재,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김병주 불자는 1984년 임관 이후 남다른 신행활동과 포교활동을 펼쳤다. 국군불교 총신도회장으로서 군불교 위상을 높이고, 민 · 군 불교 유대강화에 공로를 세웠다.

전원주 불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불자 방송인으로서 2012년부터 지구촌공생회 홍보대사를 역임하는 등 각종 포교활동과 불사에 매진했다. 전국 불교행사에 참석해 공연 및 강연을 하고, 최근 백만원력결집 선포식에서 참석 대중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하는 등 불자들의 신심 고취에 기여했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된다. 시상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맡는다.

윤호섭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추진위원들이 위촉식에서 보살행을 다짐하며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풀뿌리 원력 모아 한국불교 중흥"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불사 추진위원 80명 위촉

"한 사람의 원력이 100명을 움직이고, 1만의 원력이 100만의 강물이 되어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 때까지 우리의 정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조계종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도울 80명의 추진위원이 위촉됐다. 백년대계본부 백만원력결집위원회(위원장 금곡)는 5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한 80명의 추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추진위원으로는 중앙신도회, 직할교구신도회, 포교사단, 포교 · 신도단체 임원들이 포함됐다.

이날 위원장 금곡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이루시고, 맨발로 녹야원까지 이동해 5비구에게 법을 전했다. 오롯이 혼자의 힘이었다"며 "부처님 같은 원력만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1천명, 1만 명을 모을 수 있다. 먼 곳이 아닌 가까운 사람부터 함께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진위원들은 "하루 100원 이상 보시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며 나의 가족과 이웃, 우리 절의 신도님과 단체 회원들이 불사에 수희 동참하도록 널리 알리고 조직하겠다"고 발원했다. 윤호섭 기자

불자들의 꾸짖음 "MBC 참회하라"

조계사대책위 5월 2일 MBC본사서 규탄법회

노덕현 · 윤호섭 기자

왜곡보도로 조계사와 한국불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받는 MBC를 향한 불자들의 목소리는 준엄했다. 조계사 불자들은 삭발과 청소 퍼포먼스로 MBC의 보도행태를 꾸짖고 참회를 촉구했다.

'불교폄훼 MBC허위보도 근절을 위한 조계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월 2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본사 앞에서 '불교탄압 MBC 규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대책위 위원장 원명 스님(조계사 부주지)과 부위원장 남전 스님 등 스님들을 위시한 조계사 신도대중 1000여 명은 'MBC는 참회하라' '사장 최승호는 물러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MBC를 향해 구호를 외쳤다.

규탄법회에서 불자들은 △MBC 개혁위한 국민청원 동참 △MBC 사과와 불교탄압 중단 △최승호 사장 즉각 사퇴 참회 △MBC 보도국장 해임 및 담당기자 징계 등 4개항을 결의하고, 신도대중이 적극적으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문제제기 해나간다는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과 최종현 기획차장이 삭발을 단행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며, 스님들은 왜곡, 편파 보도 행태를 청산하자는 빗자루 퍼포먼스를 펼쳤다.

대책위 위원장 원명 스님은 "최승호 사장은 PD시절 '공영방송이 복원되면 조계종 적폐 관련 특집방송을 제작해 방송하겠다' 고 발언한 인물"이라며 "공영방송이란 거대한 권력으로 불교와 조계사에 횡포를 자행했다. MBC와 MBC사장 최승호야말로 적폐의 대상이고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주 대책위 부위원장(신도회 사무총장)은 "MBC는 과연 공정한 방송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불교 헐뜯기 방송이 등장했다"며 "MBC의 정정보도와 사과방송까지 우리의 항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규탄법회는 1000여 대중의 다라니정근과 '석가모니불' 정근 행진으로 마무리됐다.

불자 1000여 명 법회 참여
"불교탄압 중단하라" 구호
사장 사퇴 · 기자 징계 요구
삭발, 빗자루 퍼포먼스도
국민청원 등 지속 항의예정

대책위 측은 공식사과와 정정보도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규탄법회와 항의전화 등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법적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사 스님들을 비롯한 신도대중으로 구성된 '불교폄훼 MBC허위보도 근절을 위한 조계사 대책위원회'는 5월 2일 서울 상암동 MBC본사 앞에서 규탄법회를 열고 MBC 참회와 사장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4월 30일 중앙지방검찰청에 MBC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원회는 "4월 8일 MBC의 취재협조 요청 공문에 본 사찰은 회신 공문을 직접 전달하며 소명을 다했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시기이므로 단순 의혹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4월 22일 MBC뉴스데스크에서 '조계사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이라는 선정적인 자막과 함께 '지진설비 누락' '대형금고 설치', B건설 대표의 인터뷰 왜곡 등 악의적 편집으로 조계사가 비리의 온상인 양 짜맞추기 방송을 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조계종은 4월 29일 '10.27법난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MBC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MBC는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기념관 건립사업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세력과 결부시킴은 물론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인양 의도적인 왜곡과 편파보도로 국민들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2015년 8월 정부 사업승인 이전 2011년부터 서울시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온 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기념관 건립사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한 점 △토지매입 어려움으로 건립 부지를 조계사 일원에서 봉은사로 변경해 진행 중인 점 △건립 부지는 김종 前차관 임명 이전 결정된 점 등을 이유로 MBC의 보도 내용이 잘못됐음을 주장하면서 MBC가 사과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례 천은사 입장료 32년만에 폐지

천은사 · 전남도 등 8개 기관 4월 29일 업무협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례 천은사 문화재입장료가 32년만에 폐지됐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와 천은사(주지 종효)는 4월 29일 천은사 경내에서 환경부(장관 조명래)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 구례군(군수 김순호) 등 8개 기관과 함께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입장료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천은사 문화재입장료 문제는 사찰 입장료 갈등의 대표 사례로 여겨져 왔다. 애초 1960년대 후반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을 지정하며 천은사 소유 토지를 포함시켰고, 1987년 전두환 정권은 관광특수를 위해 지리산 관광도로(861번 지방도)를 개통했다. 이후 정부는 이곳에 매표소를 설치해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함께 징수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천은사 측은 지방도의 상당수가 사찰 경내와 소유 토지를 통과하고, 산내암자와 선원 등을 잇는 문화재구역이어서 계속 입장료를 받아왔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천은사 문화재입장료에 대해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장기간의 논란 끝에 천은사와 지역 본사인 화엄사, 전라남도, 구례군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만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왔다. 결국 천은사와 관계기관들은 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입장료를 폐지키로 하고 산문을 국민들에게 개방키로 협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천은사 주지 종효 스님은 "천은사는 지난 30여 년간 사찰과 협의 없이 만들어진 도로로 수행환경이 훼손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현 정부의 진지한 의견 개진으로 지리산권역의 전통문화와 관광 활성화, 자연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과 지역 주민의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입장료문제를 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관광 활성화 협의
입장료 폐지 · 부지 매입 등
세부 사항들 이행에 노력
"부처님오신날 맞아 협약
천은사 자연 국민께 보시"

이어 "화엄사와 천은사는 입장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천은사 천년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국민들에게 보시하려 한다"면서 "천은사 입장료 폐지를 통해 지리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자비심을 접하고 지혜에 머무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구례 천은사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하며 관계 기관들은 천은사 운영 기반 조성사업 지원 등 '지리산 권역 관광 활성화'에 노력키로 했다. 협약에는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탐방로 및 무장애 탐방로 사업 지원 △천은사 운영 기반 조성사업 지원 △지방도 861호선(천은사 구간) 도로부지 매입 △문화재 보수 및 관광자원화 지원 △천은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 등이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천은사 운영 기반 마련 등 실천적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역과 국민들 위해 천은사와 함께 협의에 동참했다"면서 "이번 협약이 지역과 사찰이 상생협력하며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화담 승 정 석혜암 원로고문 석법령
원로위원 석일우, 석청산, 석우암, 석도명, 석정호, 석법산, 석법광, 석자광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어산장	석도암
법계고시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청강	의전원장	석법도	비구니회장	석경호
총무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도흥	감찰부장	석성보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자광	사서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덕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부회장	석효성	비구니부장	석지현	비구니국장	석충효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정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종단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성안 법광
감 사 성덕 성민 선화

종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김진우(明眞) 법무사 이익렬(雲虛) 세무사 이수열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임)
총 무 대각심(김경숙)
임 원 혜명심(박현숙)
임 원 보덕심(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이재인)
부원장 혜 담(이정민)
국 장 불심화(정형숙)
무 용 무애심(박순애)
연 출 원각심(도지연)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혜	충북부장	상학	청주부장	혜원
울산원장	법광	부산부장	혜성	전남부장	혜명
경북원장	성인	경기부장	자운		
법사원장	목암	구미부장	혜진		
홍보부장	원명	대구부장	혜련		
경남국장	성광	포교국장	청운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소현	통영국장	덕인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포교국장	혜림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봉화국장	혜정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

밤거리 수놓은 '천진불 미소' 연등회

2019연등회, 40만 시민과 세계문화축제로 발돋움

5월 4~5일 종로 일대 펼쳐져
10만 연등 장엄함 시내 가득
어린이 · 청소년 예년보다 증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작품도



불기2563년 연등회가 5월 4일 서울 종로일대에서 펼쳐졌다. 맑은 날씨 속에 40만 인파가 몰려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봉축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특별취재팀

불기2563년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중요무형문화제 제122호 연등회가 서울 종로 일대를 환하게 밝혔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많은 어린이 · 청소년들이 참가해 장엄등 불빛 아래 순수한 미소가 가득 퍼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5월 4~5일 전국 각지에서 불기2563(2019)년 연등회를 거행했다. 중앙행사가 펼쳐진 서울지역은 4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 대운동장서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어울림마당과 연등법회로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올해 연등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지난 1년간 부처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봉축율동을 연습한 1000여 명의 연희단원들은 연등법회에 앞서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어린이 · 청소년부터 대학생, 성인까지 각 사찰 연희단은 형형색색의 의상과 도구를 앞세워 불자들의 환희를 이끌어냈다. 특히 어린이 율동단은 찬불동요 '부처님이 좋아요'에 맞춰 아기자기한 율동을 선보였다.

화합 · 평화 실천 주체로

연등법회서는 모든 생명의 이고득락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불제자들이 화합과 평화를 실천하는 주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는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이라는 봉축표어를 정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할 때 평화는 자연스럽게 올 것"이라며 "내 마음가짐을 소중히 하며 스스로를 사랑할 때 진정한 자비의 마음이 일어난다. 무엇보다 소중한 마음을 잘 가꾸고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부처님 탄신을 찬탄하는 〈붓다차리타〉를 봉독했으며,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혜의 등불을 밝혀 약자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내용의 발원문을 낭독했다.

연등법회서는 4.27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불교계의 평화기원메시지도 발표됐다. 불교계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대표 낭독한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이 밝히는 자비와 지혜의 등불로 세상에 평화와 화합의 밝고 따뜻한 기운이 넘치길 기원한다.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童心 가득한 연등행렬

10만 연등 물결과 40만 인파가 서울 종로를 장엄한 연등회의 백미인 연등행렬에서는 동심(童心)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등이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에게는 희망과 즐거움을, 어른에게는 동심을 다시 선물했다.

이번 연등회에는 조계종 종립학교 은석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120여 명의 학생들이 연등행렬에 동참했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행렬단은 선두에 서서 태극초롱등 · 동자동녀등 · 별등 · 팔모등을 대중에 선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가족의 이미지를 담은 '뚜루루 상어가족등'과 '라이언등'의 친근한 캐릭터등도 천진불의 미소와 어우러졌다.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진관사는 태극기등을 선보였으며, 진각종 소속 어린이들은 당시 의복을 입어 유관순 등 열사들의 모습을 재연했다.

이외에도 베트남(원오도량), 태국, 스리랑카(마하보디사), 미얀마 등 불교국가에서도 스님과 불자들이 대거 참여해 세계불교가 한자리에 모이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한편, 5월 5일 우정국로 일대서 펼쳐진 '전통문화마당'은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몰리며 거대한 놀이한마당으로 펼쳐졌다. 불교계에서는 '오감만족, 다양한 체험의 장'을 테마로 청춘 · 어린이, 국제, NGO, 먹거리, 전통, 나눔의 6개 마당에 120여개 부스를 설치해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날 전통문화마당서는 총 216명이 참가하는 외국인 연등만들기 대회와 외국인청년 자원봉사단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플래시몹도 펼쳐져 환희를 더했다.

미국에서 온 브랜든 조브 씨는 "인사동을 방문하며 우연히 방문했는데, 다도 체험을 비롯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 너무 좋았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미륵사지 석탑 제막을 하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 20년만에 제 모습 찾다

4월 30일 준공식… 지역불교 법회도

일제강점기 당시 잘못된 보수로 인해 제 모습을 잃어버렸던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20년만에 본래 모습을 찾았다.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익산시, 금산사는 4월 30일 미륵사지 현장에서 미륵사지 석탑 복원공사 준공식 및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와 정재숙 문화재청장, 송하진 전북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조배숙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은 반파된 상태로 6층 일부까지만 남아 있었고 일제강점기인 1915년, 무너진 부분에 콘크리트를 덧씌운 상태였다. 1998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가 노후됐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9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체보수가 결정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1년부터 석탑의 본격적인 해체조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학술조사연구와 구조보강, 보존처리 등을 시행해 2017년 말 6층까지 석탑의 조립을 완료했다. 완공된 석탑은 높이 14.5m, 너비 12.5m, 사용된 부재는 총 1,627개로 무게가 약 1,830톤에 이른다.

미륵사지 석탑은 최장기간 동안 체계적인 연구와 수리가 진행됐으며, 국제적 기준에 따라 보수정비 과정을 이행함으로써 석조문화재 수리의 선도적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은 축사를 통해 "미륵사지는 불교경전에 입각해 목탑1기와 석탑2기를 일직선상에 배치한 세계최초의 가람"이라며 "백제 무왕이 미륵사지를 건축하듯이 복원하는 것이 제2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미륵사지의 온전한 복원을 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복장 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됐다

문화재청 4월 30일 공고… '불복장의식보존회' 보유단체로

불상과 불화에 봉안하는 불교 의식인 '불복장 작법'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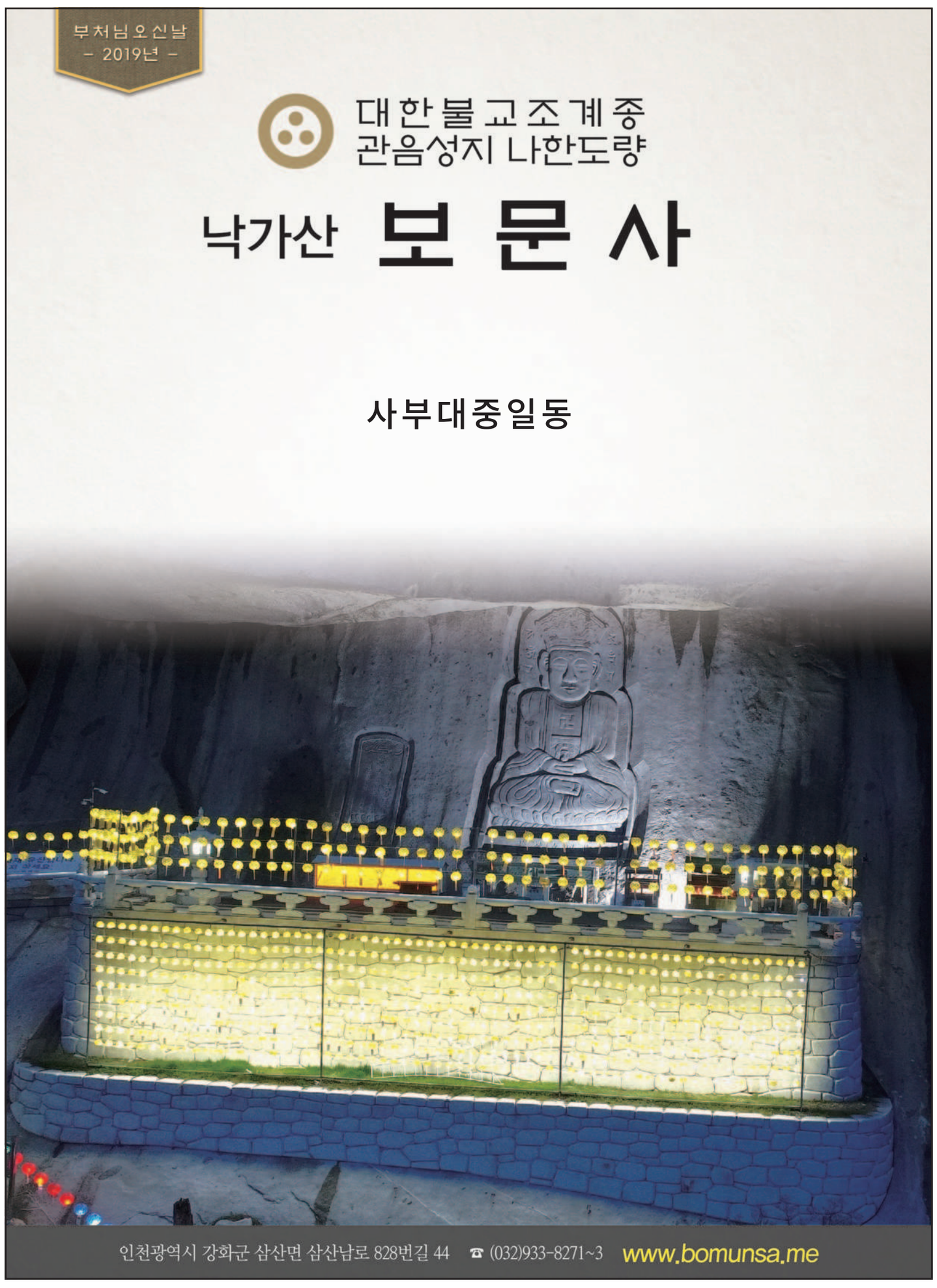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불복장 작법(佛腹藏作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대한불교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이하 불복장의식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 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 · 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하는 의식이다. 세속적 가치의 불상과 불화가 '불복장 작법'이라는 불교 의식을 통해 종교적 가치가 부여되고 곧 예배 · 예경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불복장 작법 보유단체로는 '대한불교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경암, 이하 불복장의식보존회)'이 인정됐다.

불복장의식보존회는 평생 불복장 작법 전승에 매진해 온 무관 · 경암 · 수진 · 승호 · 도성 스님이 중심이 돼 지난 2014년 설립됐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과 보유단체 인정 등을 통해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패러다임 전환 위한 불교 혁신 큰 과제”



정념 스님은… 1980년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오대산 상원사 주지와 나눔의 집 이사, 제11대와 13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호법분과위원장, 강원불교연합회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2015년에는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환수 등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을 벌여온 정념 스님은 2012년에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 포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동국대 이사와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장직을 맡고 있다.

데스크 초대석 정념 스님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장, 월정사 주지)

대담=김주일 편집국장 kimji4217@hyunbul.com

급변하는 사회와 탈 종교화시대를 맞아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불교의 미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본부장에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4월 2일 임명됐다.

백년대계본부는 정념 스님의 본부장 임명 이후 △화합과혁신위원회 △백만원력결집위원회 △문화창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출범하고 4월 17일 백만원력결집 선포식을 통해 한국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봉축 특집을 맞아 本紙는 4월 26일 월정사에서 정념 스님에게 백년대계본부의 역할과 향후 운영 기조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백년대계본부장은 종단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중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맡으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오대산중에 오래 살다보니 여러 가지 소양이 부족하지만 미력한 역량이나마 종단 발전과 불교 변화를 위한 길에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본부장직을 수락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혁신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종도들의 의견을 모아 일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종단과 한국불교는 이제 분명히 변화해야 되고, 또한 그 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안 문제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자문과 브레인, 네트워킹, 비전제시자로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의 변화를 위해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무엇인지 당면한 현실이 어떤지 조금 더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눈과 귀를 열어 놓고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많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년대계본부장은 물론 화합과혁신위원장으로서도 더 큰 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구장 소임을 맡은 이력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불교가 가진 문화적 자산이나 좋은 환경을 많은 현대인들에게 돌려주고, 또한 우리 교구가 속해 있는 강원도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지역 명소로서의 역할을 다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하나하나 수행과 포교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백년대계본부의 일 역시 그런 경험을 살려 추진한다면 오히려 혁신하는 과정 속에서 화합을 이뤄나가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우리 불교의 현실을 진단한다면 혁신을 위해서는 화합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백년대계본부가 종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근본적인 역할은 무엇인지요?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그림 그리듯 뚝딱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차분히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큰 역할은 불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은 향후 10년이면 기존에 형성된 문화와 제도, 사회적 가치들도 변화의 시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해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직시해 종도들과 미래의 방향 설정을 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백년대계본부장의 가장 큰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10년 또는 20년 이후 펼쳐질 미래 사회 트렌드를 예측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도 수행해야될 과제라고 봅니다.

> **총무원 집행부 자문역할 도맡으며 한국불교 미래 비전 제시해나가야 종단발전 기본틀 구축 방안 모색**

▲제36대 조계종 집행부 기조가 화합과 혁신인 만큼 중차대한 과제에 일조하겠다고 표방하셨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많은 종도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종단의 미래상을 그려내는데 진력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계종의 미래 혁신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향은 혁신을 통해서 화합을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과제 또한 많은 종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승가와 재가를 막론한 불자 지성인들의 결합 속에서 불교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속에서 화합도 구축되면서 그것이 종도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 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혁신 과정에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종도들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만일 다수의 종도들에게 방향 설정과 혁신 내용이 공감 받지 못하면 종단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를 비롯해 종단 원로 스님들, 교구본사 주지, 승가 및 재가 대중들과 함께 소통하고 조율하는 과정속에서 혁신과 화합을 이끌어 낸다면 분명히 그 힘으로 우리 종단도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종단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형성된 종교 문화들은 시대적으로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불교도 교화와 교학의 방법, 수행 체계, 교육 내용, 제도 개혁 등을 다시 한번 정리 점검해야할 시점입니다. 우리앞에 도래한 4차 산업시대 및 기술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불교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견인하고 교화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명료하게 전환시켜야 합니다.

기존의 성전 중심과 기복불교 문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육체적 노동이 거의 사라지고 복잡다단한 구조로 바뀌면서 여러 정신적 병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존재를 사유하며 그동안 종교가 대중에게 위안을 주었던 역할들은 상당부분 위축됐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불교의 장점들을 넓힐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월정사 산문밖에 지난해에 개원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도 이런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회적으로는 명상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탈종교화의 흐름도 감지됐죠. 종단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과는 다른 위빠사나 수행이나 사마타 수행이 불자들에게 많이 전파된 것으로 압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도 그러한 시대적 변화의 결과물입니다. 종교를 초월해 누구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죠. 전통적 수행공간으로서 사찰과는 독립된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죠.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종교를 초월한 대중 수행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성한 것이 바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종단과 한국불교는 종교에 구애받지 않는 플랫폼들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백년대계본부가 지닌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리해 주시지요.

-인재 영입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전문가들을 영입해 조언을 듣고 연구 결과물들을 통해 대중적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또한 소중대 단위의 대중공사를 자주 마련해 다양한 의견 청취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임기는 2년인데 올해는 전반부인 만큼 종단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데 치중할 계획입니다. 불교가 처한 위기의식을 함께 공감하도록 진단하고, 미래사회의 예측을 통해 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우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중적 공감의 장을 만들고,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현 집행부가 더 활력있게 종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싱크탱크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불기2563(2019)년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나와 가족, 우리 사회 각계각층, 장애와 비장애, 남과 북, 세계는 모두 한 송이 꽃, 세계일화(世界一花)입니다. 우리 모두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닫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염원에서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도량등 표어는 〈우리 모두 하나 되어〉로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새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조계사 어린이 청소년 연합수계법회에 참여한 어린이의 모습.

‘어린이’ 중심 사찰문화 개편 시작을

어린이포교를 새롭게
어린이포교 현황과 과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어린이는 흔히 미래라고 불린다. 불교의 미래도 어린이 불자를 양성하는데 달려있다. 불교 어린이 포교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우리나라 어린이 포교는 일제강점기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한 포교사들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사찰의 포교소에서 운영했던 일요불교학교로부터 시작됐다. 어린이포교의 새 바람이 일기 시작한 부산에서는 1982년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가 만들어졌고, 당시 10여개 사찰 1480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자비학교’는 불교 포교의 대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40여 년이 흐른 지금,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현황은 심각하다.

사찰서 사라져가는 어린이 포교

어린이법회 현황을 살펴보면 감소세가 뚜렷하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어린이법회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법회 운영 사찰은 162개로 법회 참여인원도 3,299명이다. 어린이법회만 보면 2002년 329곳에 달한 것에 비해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것이다. 김원섭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사무관은 “비정기적으로 어린이법회를 진행한 곳을 포함했기에 활발한 곳은 더 줄어든다”고 밝혔다.

어린이법회를 나온 아이들이 속하게 되는 청소년법회의 경우는 더욱 적다. 청소년법회 운영사찰은 71개에 불과했으며, 참여인원도 1323명 수준이었다. 어린이법회 출신 아이들이 청소년법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을 이끌 불자 어린이 지도자 배출도 감소하고 있다.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는 2007년 1회 73명이 배출됐지만 2012년 41명, 2017년 19명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을 지도하는 불교청소년지도사 또한 2009년 1회 37명에서 2017년 9회 19명으로 반토막난 상황이다.

감소세에 어린이법회 운영사찰은 불교세가 강한 일부 지역에만 몰려 있다. 어린이법회 운영 사찰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총 42곳에 달했다. 이어 경북 14곳, 경남 12곳, 부산 11곳, 울산 4곳으로 영남이 41곳이었다. 충남(9곳)과 충북(7곳), 대전(3곳)에 이어 제주(6곳), 대구(5곳), 전북(5곳), 전남광주(4곳)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청소년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능후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이 많은 수도권과 불교교세가 강한 영남권에 집중되고 있다. 충청 전라 강원 지역 사찰에서 어린이 전법의 장을 새롭게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육 포교 진출 나서야

사찰 내 어린이 포교 외 어린이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계의 보육 참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8년 교육부 전국유치원 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은 9021개에 달한다. 이중 불교계 유치원은 120여 곳에 불과하다. 동련 연보 발간 대상지를 상대로 추정한 것으로 마지막 공식 조사였던 2008년 조계종 포교원 현황조사 당시 132곳으로 집계됐다. 1994년 조사 당시 165곳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5년 유아교육법 개정 이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소규모 시설 운영이 금지된 결과로 유치원 개설에 일정부분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출산과 연계된 개설 기관 감소와 함께 이들 기관에서 어린이들을 이끌 불자보육교사 양성도 문제다. 전국 54곳의 보육교사교육원 중 유일한 불교계 기관인 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은 개원 26년 만인 2017년 말 폐원했다. 실질적으로 불자 아동보육 전문가 양성기관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아동보육학과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보육교사교육원장 자용 스님은 “불교계 어린이집에서 채용공고를 내면 기독교인 선생님들이 원서를 내는 상황”이라며 “스님들이 결국 힘을 써줘야 한다. 아이들이 줄고는 있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맡기고자 하는 부모들은 늘고 있다. 보육교사 분야에 대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사찰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해야 미래가 밝다. 어린이 포교에 헌신하는 스님들을 적극 발굴해 종단이 지원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화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사무총장은 “결국 공교육 현장에서 전법포교는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사찰 내 포교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불자 보육교사, 교법사, 포교사 등이 활동하기 위한 사찰 내 장소가 필요하다”며 “기존 사찰 불교대학도 불교대학 틀을 벗어나 관련 교육센터 역할을 함께 담당하여 불교유치원 커리큘럼 연계,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참여 등의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사찰이 어린이 포교에 나설 때

이와 함께 사찰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설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어린이 포교에 나서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마음선원의 경우 매월 어린이 저널 ‘마음꽃’을 발행해 배포하며, 어린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일러스트 등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사단법인 동련의 경우 월간 〈연꽃〉 등을 어린이법회 운영사찰과 불교계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보내고 있다.

최미선 동련 사무국장은 “아이들이 동참하는 레크리에이션 자료를 비롯해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찰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진영 전국교법사단장은 “시대의 사조는 ‘나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진리라는 실용주의에 맞춰져 있다. 어린이 전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으로 다가갈 수 밖에 없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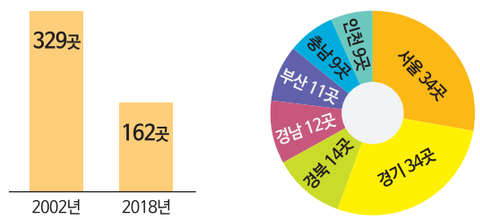
사찰의 적극적인 어린이청소년 전법행은 일부 가시적인 효과도 내고 있다.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의 경우 주지 지현 스님 부임 후 2018년 2월부터 아이사랑캠페인을 벌이며 어린이와 청소년 법회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아이 한 명이 두 명을 사찰로 이끌고, 불자들이 가정의 자녀를 사찰로 이끌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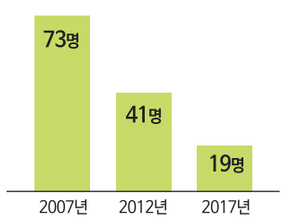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올 경우 ‘선재상’과 ‘보리상’ 등을 수여하고, 사찰 홈페이지에 캠페인 배너 설치와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 결과 캠페인 시행 전 326명의 원생들디 시행 4개월만에 402명으로 증가했다. 어린이법회 실제 참여 인원도 약 30% 가량 늘었다.

조한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국장은 “어린이 포교의 성패가 결국 청소년 포교, 더 나아가 성인 포교까지 이어진다. 최근 청소년 불자 또한 줄어드는 상황에, 청소년단체의 탈학교화 정책 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힘든 불교계 현실에서 일단 접근할 수 있는 신행문화 개선, 사찰 내 캠페인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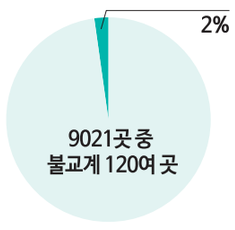
| 어린이 법회 현황 |



| 불교어린이지도사 배출 현황 |



| 불교유치원 개설 비중 |





어린이포교를 새롭게 주목! 포교 선진 사례

어린이 포교에 있어 사찰의 접근방법은 무엇일까. 대규모 재정 투자가 힘든 상황에서 결국 법회 형식을 단순한 교리 전달에서 그치지 않고 어린이 문화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확대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불자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및 문화 교육 지도자 등의 활동 터전을 제공하고 함께 육성해 가는 방안이다. 노덕현 기자

교양교육·문화체험 '新포교 원동력' 창출



조계사 불교학교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요가강좌를 듣고 있다.

교리·놀이 등 '7색' 교육 눈길

서울 조계사 서울 조계사는 어린이법회를 문화, 체육, 교리, 놀이, 시장, 생일, 만들기 등 총 7가지 형식으로 매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먼저 불교만화 감상, 오감명상 등이 진행되는 문화법회를 시작으로 외부강사 초청 필라테스 강좌, 요가 강좌 등이 인기다.

기존 교리법회도 교리 골든벨과 스님과 함께 하는 경전읽기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했으며, 놀이법회에서 교리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릴레이 퀴즈 맞추기, 빙고 게임 등이 진행된다.

만들기 법회에서는 염주 등 불교법구뿐만 아니라 석고방향제, 비누클레이 등 생활에 밀접하고 불교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만들기가 진행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장법회다. 아이사랑캠페인 등으로 친구들을 사찰로 초청한 아이들에게 선재상과 보리상이 지급되고, 1년에 2번 시장에 가서 아이들이 이 상을 모아 사고 싶은 물건을 함께 구매하는 것이다. 스님들이 동행하여 화폐의 가치와 쓰임새에 대한 교육도 이어진다. 이밖에 나란다대회와 천진불 축제를 비롯해 조계사 수영장 등 아이들이 사찰에서 즐길 거리를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다.

최종현 조계사 기획차장은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해 사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 어린이들이 소속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사는 어린이 밴드, 사물놀이팀, 오케스트라 등 동아리 활동을 통한 특성화교육을 강화하고 청년회 학생들이 어린이들 돌보며 멘토링하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조계사는 사찰 인근 건물을 매입, 조계사 어린이집으로 새롭게 개장하여 어린이 전법 포교와 사회 기여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조계사 수유실 마련 등 영유아,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미래불교를 선도할 어린이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법사 어린이법회 자모들이 아이들 간식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아이 법회서 어머니 모임 구성

부산 홍법사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창건되기 이전에도 어린이 법회를 개원해 운영할 정도로 어린이 포교에 심혈을 기울여 온 사찰이다. 2002년 변변치 않은 비닐천막을 치고 법회를 시작했지만 100여 어린이가 모였다. 이후 2003년 동림 어린이 법회를 구성하며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포교를 이어 왔다. 영어, 발레, 플루트, 댄스, 기타 연주, 합창, 우크렐레, 사물놀이 등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 인기가 높다.

동림 어린이법회는 아이들을 위한 자리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신행의 장이기도 하다. 홍법사에 온 아이들과 어머니들로 구성된 자모회는 법회뿐만이 아니라 재가안거에도 동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부터 어린이법회 소속 어머니들이 수행모임인 홍법 세향공덕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매일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수행을 함께 하는 도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처음 세향공덕회를 창립된 당시에는 동참자가 10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50여 명을 아우른다. 대부분이 어린이법회 아이들의 어머니다. 동림 어린이를 위한 총괄 기관으로 홍법사청소년교육연구소가 있으며 법회팀, 문화관팀, 그리고 자모회 모임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런 어머니들의 조직이 있기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법활동도 자연스럽게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다.

아이들 생일 파티, 매월 점심 대중공양 봉사, 가정의 달 맞이 효 잔치, 봉축 불사금 조성 판매 봉사, 문화관 공연 스태프, 방송 음량 보조까지 곳곳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법사는 영유아 수기법회, 동자승 단기출가제도, 마을상좌제도 등을 함께 운영해 어린이 포교 효과를 배가하고 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사찰은 취미에서 신행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 문화 타운이 되어야 한다"며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불자들이 자연스럽게 사찰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울산 황룡사 어린이법회 회원 아이들이 난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성취포상제로 사찰 접근 확대

울산 황룡사 울산 황룡사(주지 황산)는 2008년 개원한 개척포교당으로 설립 당시부터 '아이가 곧 미래'라는 모토를 지니고 매주 일요일 어린이법회를 시작했다.

황룡사 주지 황산 스님은 "처음에는 2~3명 나올 때도 열 명이 출석할 때도 있었고 한 명도 출석이 없을 때도 있었다"며 "하지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하다 보니 아이들이 조금씩 늘었다"고 말했다.

황룡사의 경우 2010년 도입한 국제성취포상제 프로그램이 주효했다. 운영기관으로 청소년들이 사찰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했으며, 2014년에는 초등학생들까지 포상제를 확대해 어린이 포교와 접목시켰다.

황산 스님은 "사찰에서 신체활동. 자기계발, 봉사활동을 일주일에 1시간씩 하게 된다. 매년 최소 12주는 활동을 하고, 이렇게 쌓이면 10년 넘게 사찰에 나오게 된다"며 "불교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찰문화를 접하고 불자가 되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울산 황룡사는 뜨개질, 축구, 걷기, 만들기, 명상, 주변정화, 난타, 가야금, 한문공부, 영어공부, 요가, 댄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유아 15명, 초등학생 60명가량이 사찰에서 활동 중이다. 2016년부터는 3~7세 유아반을 만들어 유아법회도 따로 진행하고 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해 여름캠프를 비롯해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을 연계한 리더십 양성 및 인성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 황룡사는 네이버 밴드에 어린이 법회 회원 자모들이 주축이 된 '리틀붓다맘'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 불교학교 수업 정보나 가족순례법회, 가족합창단 활동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아이들이 사찰에 오면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오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사찰에 와 부모도 불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젊은 사찰로 활동력을 키우려면 어린이 법회가 꼭 필요합니다."

불교 각 종단 어린이 포교 어떻게 나서고 있나?

현재 어린이 포교 관련 단체는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에 소속된 사단법인 동련(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대한불교교사대학 부산캠퍼스,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동련동화구연회)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 좋은 벗 풍경소리,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등이 어린이 포교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청소년위원회를 통해 어린이 포교에 나서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사찰 법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뉴얼 및 사례집〉, 〈어린이 법요집〉을 발간을 비롯해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일선 사찰과 불교계 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또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음등불 명상캠프', 자기도전포상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어린이·청소년포교프로그램공모전 등도 함께 운영 중이다. 사단법인 동련의 경우 법회 교재 월간 〈연꽃〉과 지도안 월간 〈동련〉을 어린이 법회 운영사찰에 배포하고 있다.

천태종은 54개 사찰서 어린이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강유치원도 16곳에 달한다. 천태종의 경우 찬불 동요제, 백일장 사생대회 등 어린이 포교행사를 진행하고, 어린이 법회 교재 〈법화꽃〉도 펴내고 있다.

진각종은 탑주와 진천유치원 등이 있으며, 매월 어린이 법회 자료인 〈자성동이〉를 발간하고 있다. 또 연합여름캠프, 문화탐방, 자성동이 풋살대회 등을 통해 포교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UCC공모전 등을 통한 콘텐츠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어린이 불자들은 불교의 미래"라며 "어린이 포교의 문제점을 분석해 각 종단이 어린이 포교분야에 어떻게 접근할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어린이포교를 새롭게 전문가 제언

어린이 포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저출산이라는 시대 변화속에 불교 내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기를 맞아 불교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불교계 어린이 포교전략에 대해 들어보았다. 노덕현 기자

Family



Center



Needs



가족 구조 변화… 어린이포교 인프라 재구축을

“가족·신도 단위로 포교 접근”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 기획위원장 능후 스님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특히 아동,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현황은 10년 전보다 수와 질적인 부분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포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세대 간의 차이를 없애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 기획위원장 능후 스님은 1인 1가구 사회 도래로 인한 어린이 지형 변화에 주목했다. 스님은 먼저 “어린이들이 사찰에서 모여 스님의 법문을 듣고, 법회의 형태를 띠면서 포교 대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이다. 이후 2000년대의 빠른 사회 변화와 교육환경의 변화 등을 겪고, 종교의 다변화까지 시시각각의 변화 속에 어린이 포교는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이어 현안 과제로 불교계의 관심을 꼽았다. 스님은 “무관심 속에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 포교 현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지도사와 교육자료 부족, 사찰의 무관심 상황과 함께 사회변화와 교육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 포교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사찰, 신도, 종단, 단체의 관심 부재가 무엇보다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현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함께 발전방안도 제시했다. 가족이 더불어 함께 하는 신행활동을 통한 관심 유도가 바로 그 것이다.

스님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대상 속에 차별화된 신행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예전에는 어린이만 한정해 포교를 진행했다면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모든 신도들이 함께 어린이 포교에 접근해야 한다. 또 사회와 교육 변화에 대응하여 계층 연계로 명상, 자기도전포상제, 국제청소년포상제, 청소년활동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가족 신행 문화 보급 시급
신도 미래포교 관심 고취

스님은 특히 공교육과 함께 어울려서 지역의 특색과 사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포교 형태가 계획, 실행되길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각각 서로의 역할에 충실할 때 포교의 효과는 극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에 종단은 종단으로서의 지원 역할을 하고 각 단체들은 현장 속에 들어가 포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방법을 연구하여 활성화를 꾀해야겠지요. 이러한 노하우를 적극 알리고 공유하여 지역에 맞고, 사찰 실정에 맞는 포교를 해야 합니다.”

“조계종 어린이교육센터 건립”

이대성 스토리평생교육원장

이대성 스토리평생교육원장은 포교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다. 수십년간 지켜본 어린이 포교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다. 어린이 감소와 함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교육원장은 특히 종단의 어린이포교 종책이 형식적인 관심이나 그동안 진행되어 온 관행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을 키워내는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불교문화를 접하는 컨텐츠 발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원장은 “청소년들이 불교교리를 접하는데 있어 다양한 도구 사용과 개발로 그들이 스스로 깨우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자발적 자기 주도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육과 관련한 단계를 나누고, 이들이 함께 체험하며 만들어가는 레크리에이션, 공연 등 문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육원장은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 지도자 대상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통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사찰법회의 현대화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육원장은 “사찰의 어린이 청소년지도자들을 종립대학, 그리고 산하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수지도자 및 우수프로그램 선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사찰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과정 습득을 위한 현장교육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교계의 종합적인 아동청소년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종단 어린이 청소년교육센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육원장은 “여러 단체들이 통합적으로 활동하고,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컨트롤 센터가 필요하다. 조계종 포

사찰 어린이 교육문화 구축
프로그램 경진대회 필요

교원의 지원업무 외에 연구와 전법 진흥을 위한 또 다른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불교계 어린이 지도자들의 활동 영역 확보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에 발맞출 수 있는 종단의 아동 청소년교육센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교육원장은 “어린이에게 필요한 흥미와 창의성, 사고력 증진을 할 수 있는 사찰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보급하고, 진로 계획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계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당부했다.

“출생율 분석한 밀접포교 필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 감소 국면에서 신혼부부, 육아가정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전국의 주요 본사와 각 사찰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어린이 포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 과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3가지 문제를 들었다.

김 교수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찰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어린이들이 많은 도심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 사찰이 위치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대부분의 주요 사찰들이 산중이나 농어촌, 혹은 도심 외곽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접근이 어렵다”며 “특히 보호자가 데려가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자발적 접근이 원천 봉쇄되는 사찰들이 많다는 것은 어린이 포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제시했다.

이러한 극복을 위해서 김 교수는 사찰의 재정 투자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사찰에서 어린이 포교에 대한 재정 투자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전문 인력 확보, 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어린이 포교가 체계적인 종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시급한 부분을 들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로 저출산 문제를 제기했다.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이하로 급감하면서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김 교수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어린이 포교는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 포교는 어린이 중심의 포교가 아니라 신혼부부, 육아가정,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포교활동이 선행되어야

신생아·육아 포교 등
어린이포교 폭 넓혀야

한다”며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배냇저고리 선물, 이름지어주기, 부모교육, 아버지학교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만 비로소 어린이들이 절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김 교수는 “각 교구본사에서는 어린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불교문화원과 같은 시설을 주요 도심지역에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도심 사찰이 경우에 어린이 거점포교 사찰로 지정하여 종단에서 전문포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마쳤다.

불기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BONG EUN SA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org |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동체 · 자비 · 희망의 불을 밝히자

處處가 극락정토요 物物이 화장세계다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마야부인 태중(胎中)에서 출태(出胎)하시어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한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또 한 손은 땅을 가르치면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나만이 홀로 높음이로다. 장하고 장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시여! 합장예배를 올립시다. 그러나 자세히 점검컨대 다리아래 삼척이로다.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에 출현하심을 찬탄(讚嘆)하는 축제를 여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롭습니까. 부처님의 차별 없는 자비(慈悲)로 일체중생을 교화(敎化)하니 지옥문도 사라지고 유정(有情)들도 무정들도 법열(法悅)로 가득하니, 시시(時時)로 좋은 날이고, 일일(日日)이 행복한 날입니다. 모든 불자(佛子)들은 부처님께서 대자대비로 사바(娑婆)에 나투심에 환희찬탄하며 기도합시다.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해 동체(同體)의 등(燈)을 켜고, 내 가족만이 아닌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慈悲)의 등(燈)을 켜고, 국민 모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希望)의 등(燈)을 켭시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 어두운 사바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나를 위해 광명이 되고, 이 사회의 등불이 됩시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물질은 풍족하지만 더불어 가치전도(價値顚倒)를 낳았습니다. 물질우선의 가치관으로 갈등과 경쟁은 심화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과 좌절을 주지만 누구도 이 아픔을 보듬고 위무(慰撫)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은 배타적 종교와 극단적 이념으로 테러와 분쟁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원한과 보복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는 어떤 무력이나 현란(絢爛)한 정치나 어느 한 이념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개개인 스스로가 바깥으로 치닫는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 자성(自性)을 밝혀야 합니다. 본래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원래 옳고 그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인 마음은 찾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현상(現象)을 좇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육신(肉身)은 100년 이내에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들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되면, 나와 남이 없어지고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 온 인류가 한 가족이요, 온 우주가 한 몸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하면 처처(處處)가 극락정토요, 물물(物物)이 화장세계이니 자연히 대자유와 대안락과 대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자와 국민, 그리고 온 인류가 참나를 밝히는 수행으로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백만원력 모여 백만연등 밝히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후 일곱 걸음 걸으시니 발끝마다 연꽃이 피어납니다. 낮에 핀 땅위의 칠연화(七蓮花)는 밤이 되니 하늘의 일곱연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일곱은 일천이 되고 일천은 다시 일만이 되더니, 어느덧 백만연등이 되었습니다. 한 등불이 다른 등불로 이어져 백만등불이 되어도 그 밝음은 차별이 없기에, 백만등불은 백만억 국토와 천만억 중생을 밝힙니다.

백만등불은 남북을 나누는 그늘을 밝혀 천년고도 서울에서 천하제일 금강산과 고려수도 개성을 오가는 길을 비추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심으로 좌우와 상하로 편을 가르는 진영주의자들의 자기속임이라는 무명(無明)까지 밝혀줍니다.

또 그 등불은 주변국의 과도한 욕심과 잘못된 성냄, 그리고 진실을 등지는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의 탁류를 향해 일시에 아홉 마리의 용으로 변하여, 맑은 물을 뿜어 사해(四海)를 공생(共生)토록 합니다.

화쟁(和諍)이라는 장명등(長明燈)을 마당에 켜놓고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 온 우리 민족은 오천년동안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천칠백년동안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노를 저어 고해(苦海)를 건넜습니다.

삶이 힘들고 험난할 때마다 일심으로 기도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으니, 이제 만년의 정토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은 화합(和合)이라는 백만등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화합은 우리를 불필요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편안함을 만드는 출발점이요, 종착점입니다. '삼계가 모두 괴로움이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三界皆苦 我當安之)' 는 탄생게(誕生偈)를 함께 부르며,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편안함에 이를 때까지 쉼없이 정진하면서 백만원력(百萬願力)이라는 등불로 우리 국토를 환하게 밝힙시다.

우리도 한마음으로 사바예토(娑婆穢土)를 극락정토로 바꾸기 위해 언제나 이 자리에서 원력을 멈추지 않고 정진할 것을 삼보전에 서원하며 발원드립니다.

정토사회 구현은 불교도 목표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부처님은 항상 우주법계에 편만해 계십니다. 우리 중생계에서는 부처님오신날만 이 사바에 머무르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석존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석존께서 이 사바예토에 오신 이유는 중생계의 미혹과 무명을 타파하여 지혜광명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불교의 생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단하게 세상에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로 정의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종교적 열정을 베풀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도 국가와 국민이 전제된 뒤에 평안하게 그 종교적 목적과 방편을 구사하여 정토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불교를 위시한 모든 종교는 한민족의 하나 됨에 이념과 종교를 초월해서 협력하고 동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서 사회가 평안하고 국민들이 신명나도록 염불기도 정진하여 지혜광명의 연등을 밝혀 온 누리에 두루 하도록 발원합시다.

삼악도 끊는 불퇴전 서원을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해의 파도 속에 보리의 길이 있고 억겁 윤회의 고통이 열반의 실상임을 알리는 것이었으니,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면 날마다 좋은날이요, 곳곳에 연꽃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밝히는 찬란한 연등은 시대의 고통을 소멸시키는 지혜의 빛이요, 우리가 세우는 불퇴전의 서원은 억조창생의 삼악도를 끊어 버리는 대자대비의 행원입니다.

우리는 한 순간도 게으르지 않게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을 따라 가야 합니다. 말로만 불자이고 행실은 비불자인 이중적 삶을 청산하고, 살아 있는 매순간 철저히 부처의 말과 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두두물물이 진리의 실상임을 가르치셨건만, 정작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 볼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 아파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지 자기 삶을 살펴볼 때입니다.

일체중생이 남김없이 열반에 이르도록 부처님 무량가피가 무궁무진 드리우기를 기원합니다.

안으로 자비, 밖으로 지혜 발현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마음자리는 자비로 밝히고 행복은 지혜로 열어갑시다. 가정도는 효순으로 지키며 세상은 평화로 채워갑시다. 오늘은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거룩하고 좋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으며, 나날이 좋은 날이 되도록 정진합시다.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불자들이 불기 2563년에 세우는 이 서원은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마음가득 사랑을 담아 자비행을 실천하고, 세상만물을 사랑하는 염원으로 인류평화를 이루자는 의지의 표출입니다. 내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사회, 국가, 인류가 더불어 잘 살기를 바라는 지극한 마음입니다.

행복은 안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밖으로 지혜를 발현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곳에 평화가 깃듭니다. 평화가 새로운 시작을 엽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동력 삼아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정착으로 누구나 행복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자유 얻어 평화를 누리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부처님 오심을 봉축합니다. 제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이며, 일체가 개고라 고통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은 항상 하는 것이 없고 그러한 곳에는 자아가 없어 변화하니 괴로움만 따를 뿐입니다. 따라서 '이거다' 라고 정할 것이 없으며, 따라서 인간사가 원래부터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부처님 말씀에 철없던 시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채우려 했으나 채우지 못했고, 비우려 했으나 비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제 깨닫고 나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라도 자유로우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자유를 얻게 되면 평화롭습니다. 부처님의 탄신을 어찌 봉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탄신을 받들어 축하합시다.

차별 없는 평등세계 是非 말고 화합하자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하늘이 놀라고 땅이 요동치는 굉음이 천지를 진동할 제, 아기 부처님은 이 사바예토에 하강하시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 이라고 대갈일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고귀함과 우주만유에 진여불성의 여여 하심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금구사자후였습니다. 동서남북으로 7보를 행했다함은 45년간 주유천하하면서 전법포교를 미리 상징한 것이며, 석존께서는 탄강하시면서 보여주신 이적을 일평생 그대로 실천하고 반열반에 드셨지만, 법신은 상주 불멸하여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부처님 45년간의 행화는 귀천을 가리지 않았고 남북을 구분하지 않는 평등 무차별주의였습니다. 우리 불문은 차별이 없는 평등세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하늘의 태양처럼 비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만물을 평등하게 길러내는 대자대비의 무량한 법신불이십니다.

하늘에 태양이 항상 떠 있듯이 부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미혹한 중생들의 눈에는 근기 따라 보일 뿐입니다. 4.8 부처님오신날은 일체중생이 봉축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어둠은 쫓아내고 밝음은 맞이하는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에 일체중생이 다 지혜광명을 얻어서 부처님처럼 깨닫는 복덕을 지읍시다.

누리에 울린 부처님 사자후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자신이 만든 그림자를 좇아 맴도는 안타까운 세월이라. 지금 내 앞의 사람과 일과 물건에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공덕을 닦아야 하리.

강물에 뜬 달을 건지려 헤매지 말고 먼저 허망한 생각을 비우고 청정한 마음으로 선업을 닦으니 지혜가 드러나는구나. 부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으니 자비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꽃동산이요 모든 생명이 부처님 나투심이라.

생명의 등불이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꽃등 그늘 아래 조용히 합장하고 누리에 울리는 부처님의 사자후를 듣네.

진실하고 주체적인 삶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참으로 거룩하고 기쁜 날입니다. 아기부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자 이 땅, 사바세계에 나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고귀한 부처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이 땅에 오신 뜻을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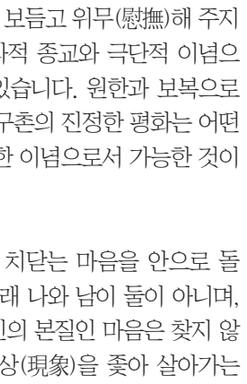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며 동서남북으로 일곱 발자국을 걸으신 후 오른 손은 하늘을 향해 지켜들고, 왼 손은 아래로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삼계개고(三界皆苦) 아당안지(我當安之)"라고 외치셨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일성(一聲)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게를 통해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며, 나아가 일체가 모두 존귀한 존재임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타의 정신이 요구되는 이유이며 일체가 자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은 자신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영위해나가야 합니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의 가르침입니다.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입니다. 깨달음이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육근(六根) 속에 있습니다. 몸과 입과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삼업이 청정한 가운데 진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근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진리로 들어가는 문(門)이요, 자신의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도(道)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자성의 燈 켜자

회정 정사
진각종 총인



심인(心印)은 나에게 있는 부처님입니다. 깨달아서 실천(實踐)해야 하는 진리(眞理)입니다. 심인진리(心印眞理)로 자성(自性)을 밝히고 허물을 깨쳐서 고치면 원하는 바를 성취(成就)할 수 있습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안으로 나에게 있는 자성법신(自性法身)과 밖으로 삼계(三界)에 두루 차 있는 법계법신(法界法身)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마음에 자성(自性)의 등불을 밝히고, 부처님오신날을 봉축(奉祝)합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폅시다.

심인(心印)을 분명히 알아서 생활(生活) 중에 깨닫고 참회(懺悔)하며 실천(實踐)하는 진각(眞覺)을 이룹시다.

지면 관계상 봉축법어와 봉축사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참모습 실상 깨닫자

국제선불교조계종 대승정
목탁 스님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보살이 깨달음의 지혜의 빛을 감추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세속 사이에 태어나시어 중생과 인연을 맺어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이 땅에 오셨으니 사바세계 중생들에게는 더 없이 기쁜 축복의 날입니다.

불제자들은 거룩하신 부처님의 참 모습의 실상을 깨닫지도 못하고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마음조차 없이 머리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생구제 입으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 더 이상 말로 살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불제자를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로 바라보시며 계실 것입니다.

정의로운 평화 구현을

불교조계종 종정 대행
혜인 스님



눈이 맑으면 세상이 맑아진다. 남산의 소나무 푸르고 한강은 유유히 흐른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세계평화와 자유, 인종의 차별, 종교의 차별, 직위고하의 차별, 임금과 신하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세계를 말한다.

세속의 종교는 차별이 있으나 부처님 경계에서는 대자유와 평화만 있을 뿐이다. 태양이 누구에게나 빛을 주지만 태양은 주었다는 생각 없이 빛을 발한다.

자유세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로운 평화와 기회, 정의로운 사람의 희망 역시 평화였다.

"상생 삶 살며 행복 얻자"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부처님께서는 중생구제라는 큰 뜻에 대자대비하신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우리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의 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별이 없다고 하셨으며, 생사고락이라는 원리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하며, 그로부터의 깨달음에 있어서도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하십니다. 부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으니 자비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꽃동산이요, 모든 생명이 부처님 나투심입니다.

뭇 생명이 삶의 주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불기2563년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거룩하고 경사스런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누리가 빛이요, 뭇 생명이 모두 삶의 주인임을 밝혀 주셨습니다.

구름이 겹으로 가려도 태양은 반드시 출현하듯이 짙은 어둠 속에서도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는 찬란하게 빛을 냅니다. 백가쟁명 속에서도 원융화쟁의 도리가 있듯이 우리모두가 부처임을 깨닫게 되면 찬탄과 환희의 세계는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존재들은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본래면목 찾는 날

대한불교 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오신 뜻 깨치는 날
부처님은 진리의 몸(法身)입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셔도 태어남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멸하셔도 가셨음이 아닙니다. 중생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 오고감에 걸릴 뿐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푸르고 물은 언제나 흐르건만 중생들은 번뇌에 가려 옳다 글타 하며 삽니다.

본래에 갖춘 면목(佛性)을 찾는다면 억만 부처님과 함께 모두가 큰 웃음을 지을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은 부처님 오신 뜻을 깨치어 본래 부처인 자기 자신을 찾는 날입니다.

모두 모두가 부디 부처님이 되십시오.

팔복전 공덕 짓자

대한불교 삼보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세존응화 304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
불보살님 가피력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이 안정되고 국가 경제가 융창하여 온 국민이 희망을 되찾게 하소서.

불교계 고승대덕과 출가재가 사부대중 불자들은 불국토 중흥을 위하여 각처에서 연등불 밝혀 일심봉청으로 축원 올려 천지광명 원력발원 세웁니다.

옛 성인은 말씀 하셨습니다. 미래 생에 부귀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미리 복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데는 8가지 팔복전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 광명 퍼지길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스님



거룩한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몸은 광대무변(廣大無邊)하여 시방세계에 꽉 차서 없는 곳이 없으니 저 가없는 허공도 대해(大海) 중의 좁쌀 하나와 같이 적습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부궁하여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우주가 없어진 후에도 항상 계셔서 과거가 곧 미래요, 미래가 곧 현재입니다. 부처님의 능력은 신묘불측(神妙不測)하여 상대의 욕망에 따라 천변만화 무수(千變萬化 無數) 의 형태로 몸을 나투어 일체를 이익하게 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기묘난사(奇妙難思)하여 이광명 속에서는 설사 백천일월(百千日月)이 일시에 비추어도 대낮의 촛불만도 못합니다.

이 땅 위에 극락정토 실현을

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불기2563년 전 4월 초8일 부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개시오입(開示悟入) 평화로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입니다. 다같이 마음의 등불 밝혀 봉축하고 부처님의 높은 가르침 봉행하여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본래 청정했던 참마음 되찾고 모든 생명이 내 목숨처럼 존귀함을 깨달아 여불공경하고 동대체비(同大體悲)함체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고, 가는 곳마다 풍요롭고 안락한 극락정토(極樂淨土)가 이 땅위에 실현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이 거룩한 모습을 역력히 바라보며 길이길이 찬양합시다.

인연공덕 소중히 여기길

생활불교조계종
석도선 스님



오늘은 4월 초파일이라 부처님 오신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이날 밝은 연등을 높이 들어 봉축하고 마음을 다해 공양을 올립니다.

부자님들은 여래장 종자 연등 밝히는 것을 스승으로 삼아 몸은 실체가 없다는 것과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것과 불성 한 물건은 오고감이 없는 불생불멸입니다. 한번 태어난 육신은 사대(지,수,화,풍)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연이란 이렇게 표현하렵니다.

우리 불자들은 모두 인연 공덕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마음평화 찾도록 노력하자

법불교조계종 종정
만원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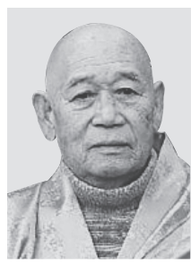
기해년 부처님 봉축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구류중생과 더불어 안심입명의 변화신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오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 탐진치에 물든 나를 바로보고 본래의 청정을 찾으려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물질은 유한하여 만족이 없으므로 오직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불하여 날마다가 부처 님 오신 날이 되도록 하여, 이 땅이 불국토가 되도록 합시다.

마음깨우쳐 성불하세

(사)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정
현각 스님



오늘은 온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 탄신일입니다. 마땅히 봉축해야 할 일이지만, 그전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불교가 무엇인가요? 말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마음을 깨우쳐서 성불하라고 지금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불하여 날마다가 부처님 오신 날이 되도록 하여, 이 땅이 불국토가 되도록 합시다.

팔엽연화 피우자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불기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중생들이시여, 눈(眼)이 청정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느니라. 귀(耳)가 청정하면 가릉빈가의 노래 소리 듣느니라, 코(鼻)가 청정하면 삼라만상 연화향을 맡음이로다. 혀(舌)가 청정하면 내는 소리 모두 불음이로다. 몸(身)이 청정하면 일체중생이 보기를 원하노라.

마음(意)이 청정하면 자타 모두 부처님이로다. 우리 모두 부처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얻어 팔엽연화 활짝 피웁시다.



無明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화합을…

부처님을 향한 마음

생명나눔실천본부장 이사장
일면 스님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무명(無明)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희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 · 욕심 · 성냄(三毒)으로 끊임없이 생사윤회(生死輪廻)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기원하는 대 원력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오신날 우리들은 진실한 마음의 등을 밝혀 진리에 의지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원력과 참회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희망으로, 여럿을 하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빛과 힘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지구공동체에 희망을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서로를 존중하며 이로써 세상이 편안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우며 사람들 사이의 차별과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탄생게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마음에 새기는 것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진정한 불자들의 봉축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교환경연대는 무너져가는 지구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일회용품 없는 부처님오신날을 제안하며 자원사용과 쓰레기를 줄이고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여 맑고 청정한 국토를 후세에 물려줍시다.

백만 원력으로 평화 기원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불기 2563년은 백만서원의 원력결집을 선포한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재가불자는 삼보외호를 위한 원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이를 통해 종도로서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여 사부대중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수행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어지러움을 전국 방방곡곡의 따뜻한 등불로 밝혀, 그 공덕으로 온 세상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불자들 모두는 거룩하신 세상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사회에 희망과 나눔의 등불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비폭력과 평화 실천

강창일
국회 정각회 회장



현대불교신문을 사랑하시는 사부대중 여러분! 부처님께서 자비광명으로 모든 중생의 앞길을 밝혀 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자비(慈悲)에 바탕을 둔 보살행은 중생의 무명(無明)을 깨치는 데에서 나아가 사회의 평화를 실천하는 기반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초기 경전은 폭력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모든 존재가 같기에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라고 전합니다. 자비(慈悲)는 무한히 사랑하는 마음(慈)과 무한히 슬퍼하는 마음(悲)의 하나 됨을 뜻합니다. 비폭력과 평화를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출발인 자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광명등

윤성이 동국대 총장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오늘, 불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성품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만의 원력을 세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한 조계종립 동국대학교는 건학 113주년을 맞이하여 'Energize Dongguk 프로젝트'를 선포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소통과 화합' '존중과 포용' '기여와 참여'를 통해 공헌으로 존경받는 조계종립대학, 세계 속의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밝힌 마음의 등불이 지혜와 자비의 광명등이 되어 부처님께서 오시는 길을 더욱 밝게 비춰 드릴 것입니다.

마음속 부처님 되새기자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새싹은 연두색의 싱그러움을 뽐내고 꽃들은 장엄하게 꿈의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은 이미 부처님의 자비로 가득한 극락세계를 구족했습니다.

단지 인간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극락이 되느냐, 지옥으로 변하느냐는 우리들 마음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일체유심조'란 부처님 말씀처럼 불국토는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께서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겠습니다. 불성을 키우는 데는 부처님을 믿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전법으로 밝은 세상을

방창덕
포교사단 사단장



금년 봉축메시지는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탄생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의 또다른 표현이며, 지혜와 자비, 수행과 포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생이 있기에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기에 중생이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이 시대의 언어로 전하는 마음과 세상,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국의 포교사와 함께 공유하며 전법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포교사단은 포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수행하면서, 이마를 맞대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일을 신바람나게 할 것입니다.

진솔한 가르침 절실한 오늘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한 행위가 안락을 가져옵니까? 맛중에 참으로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입니까?"하고 알라바카가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다. 덕행(德行)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오고,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 할 수 있다."라고 답하십니다. 진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보다 절실한 오늘입니다.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법을 펴신 2600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선언 같은 하루를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극락이 아닌 사바세계에 몸을 나투시어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참 깨달음의 진리를 다시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둘이서 한 길을 가지말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전도선언의 말씀처럼 이웃과 함께 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大慈大悲)로 평화와 행복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대학생 전법이 불교 중흥

박유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올해는 캠퍼스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빛이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게 비추어졌습니다. 전국의 청년 대학생 불자들이 전법과 포교에 온 힘을 다하며 불교를 중흥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무한경쟁사회 속에서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불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저희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온 누리에 평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차별 없는 모두가 한마음

김성림
국제포교사회 회장



저희 국제포교사회는 '상선약수(上善若水)'의 마음과 자세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조력할 것입니다. 물은 겸손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언제나 아래로 흐르며 낮은 곳을 공평하게 적셔줍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국제포교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이라 저는 자신합니다. 자국을 떠나 한국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는 이주 노동자들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의 자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음의 본성 밝히길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부산은 불도(佛都)라고 불리는 불교 중심 도시입니다. 부산 불자들의 신심이 굳건해 한국불교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시작된 기도가 대한민국을 덮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총연합신도회장이 된 것은 큰 영광이라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근원이 되는 도시로 나아간다면 그 어떤 노력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깨달아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마음의 본성, 즉 지혜와 사랑이 밝은 등처럼 빛나고 세상을 밝히길 기원합니다.



불기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금오산 향 일 암

사부대중일동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 (061)644-4742 www.hyangiram.org

불기 2563년 연등회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부처님이 오신 날(불기 2563년)을 기리는 연등회(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가 5월 4일부터 5일까지 동국대와 종로 일원에서 열렸다. 4일 열린 어울림한마당과 연등행렬, 회향한마당은 화창한 봄 날씨 속에 국내외 사부대중이 참여해 축제를 열었다.

1만여 명이 참여한 어울림마당에서는 1000여 명의 연희단원들이 지난 1년간 준비한 봉축 율동을 선보였다. 이어서 열린 연등법회에서는 사부대중이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이라는 봉축표어를 되새기며 화합과 평화의 주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저녁 7시부터 이어진 연등행렬에서는 거리에 나선 5만여 명의 내 · 외국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장엄등과 행렬등으로 부처님을 찬탄했다.

연등행렬의 열기는 회향한마당으로 이어졌다.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회향한마당에는 내국인을 비롯해 한국을 찾은 여러 나라의 관광객이 함께 참여해 공연과 율동의 축제를 즐겼다.

5일 오후 12시 조계사 앞길에서는 6개 마당 120여 개 부스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통문화마당'이 펼쳐졌다.



연등행렬을 마친 사부대중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오후 9시 30분부터 이어진 회향한마당에서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함께 춤추며 연등회를 회향했다.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불기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대 각 사

대각사는 1919년 기미 3.1독립운동 민족대표였던 백용성 대조사의 창건도량입니다. 용성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의 한글화 현대화 대중화에 앞장선 포교의 중심 축 대각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각사 조실 불심도문 대종사
대각사 주지 동봉정휴 사부대중 합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0길 87 대각사 Tel 02-744-4502





동대문부터 조계사 앞까지 펼쳐진 연등행렬에는 화려한 장엄등과 행렬등이 등장했다. 10만여 명의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축제의 길을 걸으며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새겼다. 한마음선원의 봉축장엄등 행렬.

불기 2563년 연등회

불기 2563년, 오늘은 좋은 날이다. 온종일 찬불가를 부르고 온종일 오색연등속에서 부처님께 귀의한 사부대중과 함께 한다. 한가지 말과 한가지 생각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고 찬탄하는 오늘, 부처님이 남기고 가신 말씀이 있어 우리는 또 희망을 이어간다.

부처님의 이름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발원하는 오늘, 말과 글이 서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 많은 대중이 모였지만 오늘의 말과 글은 한 가지 생각도 한 가지이다.

손마다 손수 만든 연등을 들고 오늘만큼은 부처님만 생각한다. 1500여 년 전부터 '佛을 섬기는 행사'로 불렸던 연등회는 국가적인 법회였다. 어둠을 밝히는 연등을 들어 무명을 밝게 비춰주는 부처님을 기려 선업공덕을 쌓는 날이다. 이제 이 땅을 넘어 더 많은 곳에 연등을 밝히는 세계의 축제가 됐다. 1500년을 이어온 오늘은 세계 곳곳에 더 많은 연등이 걸리는, 더 좋은 날이다.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현지사

초대 교조 광명 만덕 큰스님 제2대 교조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 의장 성광 교정원장 일도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감찰원장 범행 불교대학 학장 일도

춘천본사 주지 대원 제주 제2본산 범행 부산분원 보문 대전분원 행원 고성분원 성범 대구분원 정대 일본분원 성도

사부대중 일동

영산불교 현지사
www.hyonjisa.com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빌딩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대구분원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29길 20 ☎ 053-654-5557
● 일본분원 일본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61
● 영산불교대학 대전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KBS1TV 방영 '다큐세상–마음의 꽃 연등' 스틸컷.



BTN 방영 '한마음으로 영원히 남을 대행스님 말씀'



BBS, BTN 공동 제작 다큐 '깊고 푸른 바다, 사명대사'

'한마음선원 · 대행 선사' TV봉축특집 키워드

부처님오신날 TV프로그램 살펴보니

'독일 한마음 풍물패' 소개한
KBS1TV '다큐 세상' 10일 방영
대행 선사 육성 법문 담아낸
프로그램 2회 걸쳐 BTN 방송
BBS · BTN 첫 공동제작 다큐도

박재완 · 신성민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명품 다큐멘터리부터 선지식의 법문까지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이 안방 시청자를 찾아간다.

이번 부처님오신날 특집 프로그램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는 한마음선원을 다룬 다큐와 한마음선원을 창건한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생전 육성 법문이다.

KBS1TV는 5월 10일 오후 11시 40분에 다큐세상 특집 '마음의 꽃 연등'을 방송한다.

이번 특집 다큐세상 '마음의 꽃 연등'은 연등축제에 참가하는 '독일 한마음 풍물패'를 소개한다. 독일 한마음 풍물패는 독일 뒤셀도르프 인근의 카스트지역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혜진)에서 독일 국적 7명, 한국교포 2명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사물놀이 풍물패이다.

'마음의 꽃 연등'은 독일 작은 도시의 젊은이들이 연등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사물놀이를 준비하는 과정과 5월 4일 진행되는 연등축제의 연등행렬에서 그들이 선보이는 사물놀이를 통해 불교행사를 넘어 국민의 축제로,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나는 연등회의 의미와 감동을 전한다. 또한 '마음의 꽃 연등'은 한마음 풍물패를 통해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연등회의 역사와 전통, 문화사적 의미도 함께 조명한다. 연등을 손수 만들고 축제를 준비하는 대중의 정성과 오색찬란한 연등축제의 뒷모습도 보여준다. 또한 참가자와 관람자 25만여 명이 참여하고 3일간 열리는 연등회를 헬리캠을 비롯해 여러 대의 카메라를 투입해 행렬의 아름답고 장엄한 축제의 현장을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독일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독일의 6대 도시이자 공업도시로 유명하지만 독일인들에게는 한국사찰이 있는 곳으로 더 알려져 있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신도 대부분이 한국 교포인 다른 해외지원과 달리 교포보다 현지인들이 더 많은 해외지원이다.

BTN불교TV는 부처님오신날 고품격 다큐멘터리와 선지식 육성 법문 등 특집프로그램을 대거 편성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선지식 육성 법문 프로그램이다. BTN은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의 생전 법문 특집을 방영한다. 국내 최초로 한글 뜻풀이 경전 보급, 법문의 영상 매체화 등으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 대행 선사가 2012년 입적하기 전까지 남긴 법문을 모은 것이다. 생전 대행 선사의 육성법문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집 '한마음으로 영원히 남을 대행스님 말씀'은 5월 5일 오후 8시와 5월 12일 오후 8시 1, 2부로 나눠 방영된다.

고품격 명품 다큐 프로그램들도 주목할 만하다. BTN은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국내 최초로 가사와 발우에 대한 내용을 다룬 다큐 '깨달음의 상징 의발(衣鉢)'을 선보인다. 가사와 발우를 통칭하는 의발은 종교의복과 음식 그릇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다큐에서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의발'에 담긴 상징성과 역사성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다큐 '의발'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12일 오전 7시 30분에 방영된다.

지난 4월 30일 불복장 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념해 다큐 '은밀한 의식, 불복장'도 특별 편성됐다. 불교언론문화상 대상 선정 2부작 다큐로 단절돼서는 안 되는 '불복장'의 승계와 보전의 의미가 담겼다. 1부는 5월 11일 오전 8시 30분, 2부는 5월 12일 오전 8시 30분에 시청자를 찾아간다.

11명 스님들의 3년간 무문관 수행과 그 이후 이야기를 생생히 담아낸 다큐 '무문관'도 눈길을 끈다. 길 없는 길을 걷는 수행 납자들의 진중한 이야기는 불자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갈 것이다. 2부작으로 1부는 5월 10일 오전 7시 30분, 2부는 5월 11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방영되는 다큐 '깊고 푸른 바다, 사명대사'도 주목해야 한다. BTN불교TV, BBS불교방송이 공동 제작한 첫 다큐로 조계종과 밀양시가 후원했다. 다큐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상황 재연과 고증을 추적하는 다큐가 혼합된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사명대사 재연 역은 배우 윤동환 씨가 맡았다. 윤동환 씨는 촬영기간 내내 새벽예불에 참여하고 108배를 올리며 깊은 내면 연기를 선보였다는 후문이다.

또한 제작진은 사명대사의 교토 체류 상황을 다큐로 전하며 일본에 끌려간 조선 백성을 전부 귀국시키는 사명대사의 보살도를 조명했다. 제작진은 "고통 받는 조선의 백성을 구제한 사명대사는 자신이 스스로 지은 호인 사명(四溟)처럼 깊고 푸른 바다의 자비와 보살행을 실천한 조선시대의 고승"이라고 밝혔다.

다큐 '사명대사'는 5월 12일(일) 밤 12시 25분에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KBS 1TV에서 방송될 예정이며, BBS에서는 5월 13일 오후 7시 30분과 5월 14일 오후 3시 40분, 5월 17일 오후 10시 40분, BTN에서는 5월 13일 오후 7시30분에 각각 방송된다.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상 보물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인각사 출토 유물 보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유행한 두건을 쓴 지장보살좌상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을 비롯해 18세기 조선 천체관측기구 '혼개통헌의', 조선 후기 궁중화원 이인문의 역작 '강산무진도' 등 7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사진〉은 고려 말~조선 초에 유행한 두건을 쓴 지장보살좌상이다. 온화한 표정과 불룩한 입술, 양쪽에서 드리워져서 여의두(如意頭) 형태로 마무리 진 띠 장식, 둥근 보주(寶珠)를 든 모습, 그리고 치마를 묶은 띠 매듭 등은 고려 말기 조각 양식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참당암 지장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비례와 띠로 묶어 주름잡은 섬세한 두건의 표현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보주를 든 두건 지장의 정확한 도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여말 선초의 지장 신앙과 지장도상 연구에 귀중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이 시기 금동과 목조로 제작된 지장보살상은 몇 점이 전하고 있으나, 석조로 제작된 지장보살 중 보존상태가 거의 완벽한 사례는 참당암 지장보살좌상이 거의 유일해 그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대좌의 경우 보살상과 함께 조성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상 · 중 · 하대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고 가늘고 긴 형태, 여의두문(如意頭文)이 새겨진 안상(眼象) 등에서 고려시대의 특징이 뚜렷하므로 함께 보물로 지정해 보존 · 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상' 등 총 7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문화재청은 일연 스님이 주석하며 〈삼국유사〉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을 5월 2일 보물 제2022호로 지정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인각사 출토 유물은 금속공에 11점, 청자 7점 등 총 18점으로 2008년 5차 발굴 조사 때 인각사의 1호 건물지 동쪽 유구에서 발견됐다. 신성민 기자





동국참사람봉사단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교내 팔정도 광장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봉사단원들이 캠페인을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 전하는 보시행"

본지 · 생명나눔 공동기획

생명나눔은 자비입니다

② 장기기증 희망등록 현장을 가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하세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설명만이라도 들어보세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오색연등으로 장엄한 동국대 팔정도 광장. 주황색 조끼에 생명나눔 어깨띠를 두른 학생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독려한다. 무심히 지나가는 학생도 있었지만, 이내 삼삼오오 팔정도 광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희망등록을 서약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와 동국참사람봉사단(단장 김동한)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교내 팔정도 광장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사람봉사단은 동국대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자 1997년 6월 창설됐으며, 지난 22년에 걸쳐 인재 양성과 사회공헌을 위한 봉사활동을 담당해 온 동국대 대표 봉사단체다. 지난 2013년부터는 생명나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 자살예방 사업 등 생명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국대는 불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는 조계종립학교인만큼 생명나눔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관심은 높은 편이다. 3월에 진행한 올해 첫 캠페인에서는 약 400여 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중간고사 이후 진행된 이번 캠페인도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서약을 했다. 희망등록을 열심히 홍보한 공로로 참사람봉사단은 지난 2014년 생명나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다.

박주애 참사람봉사단 회장(23, 행정학과)은 "2013년부터 진행한 캠페인으로 동국대 학우 2/3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적지 않은 학우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편견이 있다. 하지만 캠페인을 통해 설명을 듣고 나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사람봉사단원들이 학우들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국참사람봉사단, 학내 캠페인 진행

2013년 생명나눔 협약 후 지속 활동

"동국대 학우 2/3가 희망등록 동참해"

참가자들 "설명 듣고 편견 깨져 등록"

이내 점심시간이 되자 홍보 부스에 앉아 참사람봉사단원들의 설명을 듣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생명나눔과 참사람봉사단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도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돌려 돌려 돌림판"이라는 구호와 함께 다트를 맞추면 휴대용배터리 · 우산 · 에코백 · 여행용 파우치 중 하나를 선물로 줬다. 서약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뜻하지 않은 선물에 대한 기쁨과 선행으로 인한 만족감에 뿌듯해했다.

최종윤(21, 경찰행정학과) 씨는 "평소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캠페인을 통해 방법을 알게 됐고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곽래형(24, 체육교육과) 씨는 "봉사단원 친구의 권유로 등록을 하게 됐다. 장기기증 서약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줄 알아서 거부감이 있었다. 캠페인을 통해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거부감 없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친구가 함께 등록한 송유림, 이채은(20, 광고홍보학과) 씨는 캠페인 설명을 듣고 편견이 사라져 등록하게 됐다. 이채은 씨는 "왠지 무서운 생각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지 않았다. 봉사단원들의 설명을 듣고 신청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동참했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봉사단원들은 장기기증이라는 보시행을 권선하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참사람봉사단원 강혜연(2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씨는 "학우들이 장기기증이라고 하면 무섭다는 편견을 갖는다. 이를 잘 설명해주고 학우들이 편견을 깨고 서약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나도 가족 친지도 친구도 누구나 장기기증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동국 학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나섰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박주애 봉사단 회장은 "말기부전환자들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희망과 같다. 희망의 연등을 밝히는 보시행"이라며 "동국참사람봉사단은 앞으로도 희망의 보시행인 생명나눔운동에 적극 홍보 · 동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쉽게 보는 장기기증 Q&A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A 본인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사 상태가 됐을 때 말기부전환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입니다.

뇌사 시 장기기증 절차는

A 뇌사 상태 시 장기기증을 원하면 의료진에게 기증 의사를 밝히거나 한국장기기증원(1577-1458)으로 연락이 이뤄집니다. 이후 가족의 기증 동의를 얻고 뇌사 판정이 나면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 적출과 이식 수술이 진행됩니다.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가

A 필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기증희망등록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기증시점에서 유가족이 기증을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습니다.

기증 후 장례 절차는

A 뇌사 시 장기기증의 경우, 수술시간은 6~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수술 종료 후 가족 면회가 이뤄지고 장례식장으로 인도해드립니다.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5월

부처님오신날 맞이 장기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날짜: 5월 12일(일)
- 장소: 조계사 및 불암사

제12회 걷기대회 및 장기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날짜: 5월 19일(일)
- 장소: 동국대 만해광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하는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날짜: 상시운영(금요일 제외)
- 장소: 도봉운전면허시험장 1층 로비

광주전남본부와 함께하는 조혈모세포 착한릴레이
- 날짜: 5월 7일(화)~8일(수)
- 장소: 광주여대
- 날짜: 5월 9일(목)~10일(금)
- 장소: 광주남부대

제주본부와 함께하는 조혈모세포 착한릴레이
- 날짜: 5월 27일(월)~28일(화)
- 장소: 제주한라대
- 날짜: 5월 29일(수)~31일(금)
- 장소: 제주관광대

생명나눔실천본부 온라인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1-764580
국민은행	006-01-0770-038
우리은행	010-073780-13-101
기업은행	024-037428-01-016
우 체 국	010579-01-001564
농 협	053-17-001346
환자돕기(농협)	053-01-243778
신도등록(농협)	301-0044-4629-71

후원문의 : (02)734-8050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고귀한 생명나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제12회 희망걷기대회
5월 19일
동국대 만해광장

제25회 생명나눔천도재
6월 6일
불암사

제9회 한다솜음악회
6월 14일
동국대일산병원



후원문의 : 02-734-8050
온라인후원 : 농협 053-17-001346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황일면

“영유아 유기, 함께 예방해요”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행복드림센터 개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여성 인권을 위해 발의된 ‘낙태 허용법’은 근원적인 문제 ‘생명존중권’에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 산모와 아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국가 시스템이 더욱 체계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여성 인권을 위해 출발한 낙태허용과 아기 생명 살리기 이념 속에 불자들과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모와 아기를 위한 생명보호 공간’이 문을 열어 우리사회에 생명 존중에 대한 자세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이사장 정각)는 4월 29일 부산 홍법사 내 행복드림센터를 개소했다. 행복드림센터는 말 그대로 ‘산모와 아기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다. 버려지고 버리는 삶에서 벗어나 생명을 모두 함께 보호하고 책임지는 공간을 상징한다.

행복드림센터는 가장 먼저 영유아 유기를 예방하는 시스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행 등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고통을 받고 임신기간 괴로움을 당한다. 가장 축복 받아야 할 시기에 산모들은 화장실서 아기를 낳고 비닐에 싸서 유기하고, 추운 겨울 하수구에 버려져 아기들은 목숨을 잃기도 한다. 아기를 무사히 낳는다고 해도 경제적 상황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복드림센터는 아기를 임신한 순간부터 상담소를 운영, 도움을 준다. 무사히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아기와 산모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아기를 낳은 후 산모의 최종선택을 존중, 아기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 버려지는 아기를 위한 베이비가든(베이비박스)을 운영한다.

부산 홍법사 뒤 3층 규모로
의료장비 · 상담시설 구비해
산모 · 아기 지원 체계 갖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는 “베이비박스는 아기들이 유기되는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키울 수 있는 시작점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행복드림센터는 유기된 아기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안전히 인계해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특히 아기를 인계할 때 정보를 확인, 산모가 아기를 찾을 때를 대비한다. 이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한 대사회적 활동을 위해 행복드림연구소를 운영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생명살림 운동을 펼친다.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는 4월 29일 홍법사 내 행복드림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사장 정각 스님(사진 오른쪽)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행복드림센터는 홍법사 뒤에 위치하며 3층으로 이뤄져 있다. 1층은 박스 형태가 아닌 방 전체를 활용했으며 아늑한 공간으로 마련됐다. 산모가 아기를 넣어두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알림 시스템이 작동, 상근 직원과 봉사자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기본 의료장비 및 상담실이 있으며 비밀을 확실히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3층에는 상담소 및 아기보호시설이 있다.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 및 미혼모를 위한 공간이며 유기된 아기를 위한 보호 공간이다.

이사장 정각 스님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불행하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산모가 돼야 하며, 아기들은 태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사회적 아픔을 해결해 보고자 함께 나서게 됐다”며 “함께 동참하고 생명을 위한 보이지 않는 울타리 역할로 모두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행복드림운영센터는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와 홍법사가 주관하며 동의대학교, 보훈병원, 부산참여연대, 추 심리치료 정신의학센터,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양정청소년 수련관 등이 협력한다.

“병고의 아픔 위로한 연등”

부산 비구니모임 화엄회
21년째 부산대병원 봉사

비구니 스님들의 자비봉사 모임 화엄회가 봉축을 맞아 부산대학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했다.

화엄회(회장 상화)는 4월 28일 부산대학병원을 방문해 제21회 자비나눔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화엄회는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매년 부산대학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화엄회 스님들이 부산대병원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날 부산대학병원 로비에 스님들이 마련한 음료와 떡 그리고 진주 염주 등 1700여개 선물이 가득 찼다. 환자를 비롯해 병원 종사자 모두에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선물을 전하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선물이다. 스님들은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손을 잡았다. 환자들은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찾아와줘 큰 위로가 된다”는 말을 전했다.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한 회장 상화 스님은 “환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쾌유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 방문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치료해 나가면 회복도 빨리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화엄회는 매년 환자들을 위한 봉축 선물을 나누고 있다. 병원 봉사를 위해 시작된 화엄회 모임은 올해 26년차이며, 봉축을 기념하는 선물 나누기는 21년째 진행되고 있다. 매년 선물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만 1000만원, 지난 20년 동안 2억이 넘는 금액이 소요됐다.화엄회는 병원 내 봉사모임으로 시작해 국내 및 국외 자비나눔 실천모임으로 확대됐다. 현재 화엄회는 40여 명의 스님이 활동하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신병교육대 포교 후원, 네팔장학금 지원을 통한 인재불사, 미얀마 학교건립불사 등 활발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부산대병원 내 불교법당을 운영,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불교법당은 9평으로 크기는 작지만 봉사자들과 환자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있다.

한편, 화엄회는 강원도 산불 피해 성금도 기탁했다. 화엄회는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재)아름다운동행에 강원 속초 · 고성 산불 피해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께서 회비를 틈틈이 모아 후원금을 마련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흔쾌히 산불 피해 복구에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윤호섭 기자

혜암 대종사 유훈 기리다

혜암문도회, 혜암 대종사 탄신 99주년 법회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 탄신 99주년 기념법회가 4월 26일 해인사 원당암 선불당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혜암 스님 탄신 99세를 기리기 위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과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혜암문도회장 성범 스님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오직 공부하다 죽으라는 그때의 스승님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돌이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혜암 대종사는 1946년 해인사 인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조계종 제10대 종정, 원로회의 의장, 해인총림 방장 등을 역임했다. 평소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에게 수행정진을 강조했다. 이날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정리한 혜암 대종사의 상당법어집 〉공부하다 죽어라〉 봉정식도 봉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어르신 섬기는 쌍봉사 봉사단

진안 용담면 어르신 200명 초청해 잔치 열어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는 4월 26일 진안군 용담면 다목적구장 실내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 초청 섬김봉사를 진행했다.<사진>



용담면에 거주하는 어르신 200명이 참석한 섬김봉사에서는 한소리 예술단의 공연과 연주, 노래자랑 등이 이어져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딸기, 방울토마토, 참외 등의 과일과 떡, 음료수 등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배식봉사활동에도 동참했다. 보경 스님은 일일이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묻고 건강상태를 살펴 어르신들의 칭찬을 받기도 했다.

보경 스님은 “매월 찾아가는 마을밥상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왔다”며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관세음보살 자비 가득하길”

대구 해운정사, 관세음보살 점안 · 산사음악회

대구 달서구 송현동 해운정사(주지 청명)는 4월 28일 관세음보살 점안식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주지 청명 스님과 천불사 정우 스님, 혜림사 도관 스님, 비로암 월오 스님, 원광사 화성 스님, 광명사 성덕 스님, 원각사 원광 스님, 혜룡사 현법 스님, 강효상 국회의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명 스님은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왕생의 길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을 봉안하는 의식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해운정사가 지역주민의 안락한 귀의처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3부에는 초청가수 축하공연, 해운정사 신도들의 노래자랑과 화합 한마당 잔치가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처님오신날
- 2019년 -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강남한양재활의학과의원
원장 허재균 합장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30 반원상가 2층 전화 02)533-9058


조계종 법계위원장 종진 스님 원적

영결식 5월 4일 해인총림장 엄수



조계종 법계위원장 종진 스님(해인총림 전계사 · 사진)이 4월 30일 원적에 들었다. 법납 65세, 세납 80세. 영결식은 5월 4일 보경당에서 해인총림장으로 봉행됐으며, 다비식은 해인사 연화대에서 엄수됐다.

종진 스님은 15세에 출가해 해인총림 율맥을 잇고 수행자의 길을 걸어왔다. 1985년 율원에서 후학들을 지도했으며 8년에 걸쳐 〈선문염송〉과 〈선문염송집〉 오류를 바로잡아 2014년 〈원전회편 선문염송집〉을 편찬했다.

종진 스님은 도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5년 동화사에서 사미계, 1961년 해인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3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1970년 지관 스님에게 강맥(講脈)을, 1985년 종수 스님에게 계맥(戒脈)을 이어받았다.

1970년부터 198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인총림 강주를 역임하고, 1985~1998년 해인총림 율원장, 1999~2004년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를 거쳐 해인총림 율주, 반야사 주지, 계단위원회 및 법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대종사 법계를 받았으며, 해인총림 전계사와 조계종 법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부처님 오신 참뜻 노래로"

전북봉축위, 전북불교연합합창제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28일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큰법당에서 '제18회 전북불교연합합창제'를 개최했다.

군산 그린비 합창단, 무주 향산사 부루나 합창단, 전북불교대학 부처님세상 합창단, 김제 보리수 합창단, 금산사 바라밀 합창단, 내장사 서래 합창단, 참좋은우리절 합창단 등 8개 합창단 300여 명이 참가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공동집행위원장 성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일선포교현장에서 아름답고 청아한 음성공양으로 사바세계를 장엄하는 불교합창단의 전법 보살행을 진심으로 찬탄한다"며 "내 몸같이 일체중생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보살행의 실천행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집행위원장 진성 스님도 인사말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합쳐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합창 전법"이라며 "아름다운 마음과 목소리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합창단이야 말로 불보살의 모습"이라고 합창단을 격려했다.

찬불가 1곡과 자유곡 1곡을 선보인 합창단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땅에 부처님께서 오신 참 뜻을 기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용자 마음 부처님처럼 도울 터"

Interview

교정대상 장려상 김행규 불심회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가 받은 상은 불자 교정공무원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자 교정공무원들은 지금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용자들이 마음을 돌아보고 안정을 찾고, 또 자신의 과오를 참회해 새롭게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자 교정공무원들을 대신해 받은 만큼 앞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습니다."

5월 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법무부가 개최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구치소 불심회장을 맡고 있는 김행규(법명 보성) 회장이 장려상을 수상한 것이다.

김행규 회장은 교정공무원으로 1994년 임용돼 교정행정에 앞장섰다. 특히 1994년 불심회서 법명을 받고 신행활동을 겸한 교정교화에 앞장섰다. 서울구치소 내 불교담당을 맡아 수용자 개인신앙 상담, 불서보급, 단주보급, 법회 개최를 통해 수용자 심성순화와 재발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행도 이어왔다.

30년 불심회 활동 · 봉사헌신
특진 영광, 근무지 변화 앞둬
"자리 옮겨도 불자회 꾸준히"

김행규 회장은 2005년부터 관내 복지시설 녹향원을 매월 두 차례 방문해 장애인 목욕봉사를 하고 시설청소도 도맡았다. 2011년부터는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을 정기후원하고 2012년부터 독거노인 목욕봉사도 진행했다. 또 녹향원 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손을 도우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등록금도 지원했다.

특히 생명존중 정신이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사형 확정 수용자 6명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개인 교화를 도왔다. 사형확정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수용자 가족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독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기여했다.

김 회장이 중심이 된 서울구치소 불심회는 1987년 설립 이후 꾸준히 활동해왔다. 교정교화 현장에서는 상근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불자회를 유지하기 쉽지 않지만 중심을 잡고 노력했다. 불심회에서 김 회장은 불자 교정공무원들의 역할 확대를 위해 월례법회, 수계법회, 성지순례 등으로 신심을 다지고, 불교계 언론과 불서 보급, 영치금 및 생필품 시주 등도 펼쳤다.

"교정교화는 수용자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김 회장은 곧 남부구치소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교정대상 수상으로 김 회장은 1계급 특진의 영광도 안았는데, 교정공무원의 경우 진급 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진급과 함께 30년 넘게 활동해 온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발령받아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

김 회장은 "큰 상을 받고 남부구치소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그곳에도 불자회가 있다. 남부구치소에서도 불자회 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이라며 수용자들에게 부처님 깨달음을 전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어려운 이웃은 물론 장애우 시설 등을 자주 방문해 일손을 도울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무예마스터십 성공 개최 기원"

충주불교사암聯, 시내서 시민들과 연등축제 봉행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오는 8월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역사암연합회가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충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일섭)는 4월 20일 충주실내체육관 앞 특설무대에서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성공 기원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이날 연등축제에는 충주불교사암연합회장 일심 스님을 비롯해 충주지역 스님들과 이시종 충청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등 기관 · 단체장들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했다. 이와 함께 행사에는 불자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해 '시민소원 등 달기' '합창단 공연' '전통문화행사' 등 체험했다.

충주불교사암연합회는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 대한 염원을 담은 연등을 시민들에게 나눴으며, 시민들은 저마다 손에 연등을 들고 충주시내 주요 도심을 행진하는 등 장관을 연출했다.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연등축제.

충주불교사암연합회장 일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자비 정신으로 극복하자. 우리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나 평화와 행복의 향기가 온누리에 가득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은 무예를 소재로 한 세계 유일의 국제종합 무예경기대회다. 올해에는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며 100개국 약 4000여 명이 참가해 20개 종목에 나선다. 우리나라 고유 무예인 택견 · 태권도를 비롯해 주짓수, 삼보, 무에타이 등 다양한 경기가 펼쳐진다.

노덕현 기자

童心의 세계 연 사생대회

경주 불국사, 제34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



천년고찰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4월 28일 경내에서 제34회 어린이 글짓기 · 그림 그리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주제 발표 후 창작활동을 펼쳤으며, 행사장에는 신라금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아울러 선재소년 · 소년합창단 공연도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역대조사 가르침 되새기며"

정읍 내장사, 학명 · 박한영 스님 등 조사 다례



정읍 내장사(주지 도완)는 4월 30일 학명 · 박한영 · 매곡 · 희묵 스님 등 조사스님들의 부도가 봉안된 부도전에서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재곤 · 범여 · 법현 · 대우 스님 등 조계종 24교구 원로스님들과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운주사 주지 성락 스님, 구암사 주지 지공 스님, 학명문도 스님 등 본말사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장병도 함께 기린 봉축

35사단 이순신연대 호국사 첫 봉축법회



부대 이전 후 지난해 법당 문을 연 육군 35사단 이순신연대 호국사(지도법사 권태정)가 첫 번째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4월 28일 호국사 법당에서 열린 봉축법회에는 정읍불교사암연합회장 도완 스님(내장사 주지), 내장사 한주 대우 스님, 운주암 주지 성락 스님 지역 스님과 105연대 노명종 대령, 정종명 중령 등 군간부 및 병사, 서래합창단과 불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방 장 지유 큰스님
주 지 경선
범어사 사부대중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종무소 (051)508-3122

38년 전통의 전국 최초 최고 명품교육
부산불교교육대학
불자 양성 교육 포교 의
새 지평을 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유식30송 / 이만 교수 / 9/30(월)~10/4(금) / 13:30~16:30
정 규 과 정 기초교리학과 불교학과 대학원 수화과 다도과
자격증 취득과정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등록 제2018-000374호)
불교문화전문지도사 (민간자격등록 제2019-000629호)
장례지도사 (국가공인 자격)
힐 링 과 정 대금반 민요반 사물놀이단 합창단
웰빙힐링장생아카데미 – 120세 건강 장생법 한의사, 전문의 초빙 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서면 롯데백화점 건너편) Tel. 051-711-0700



대행 스님

온 곳이 없기에 갈 곳도 없어서 영원한 부처님 오신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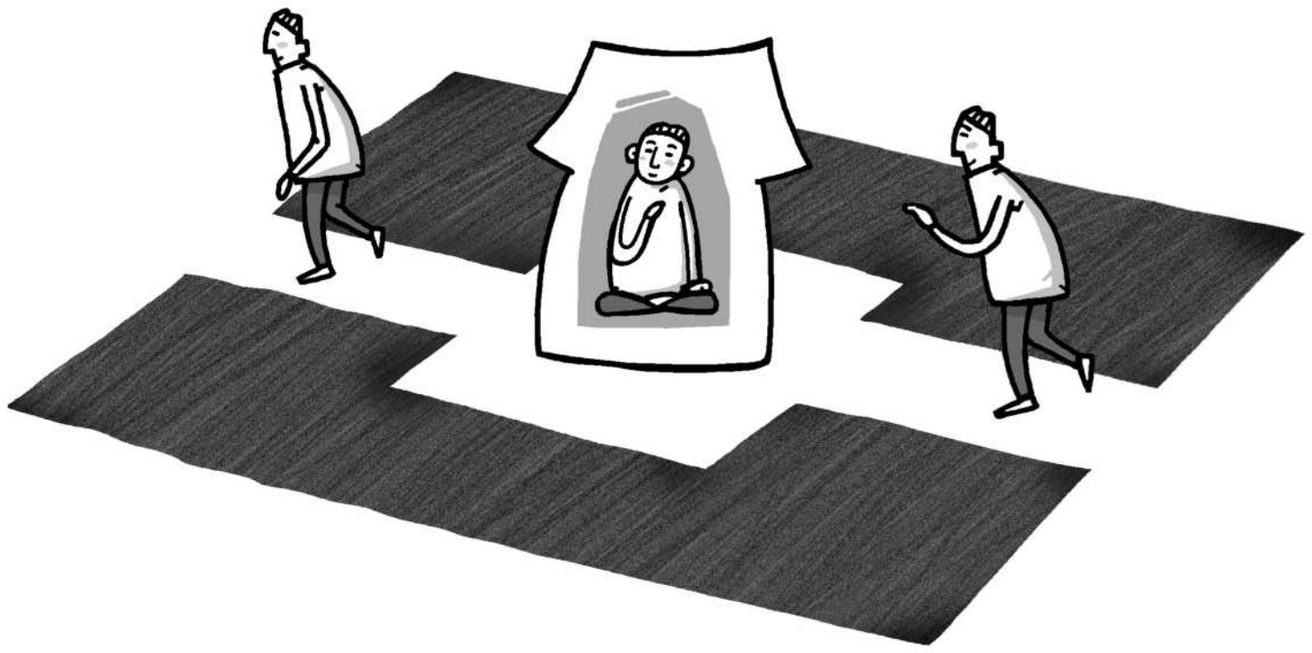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의 그 마음은 체가 없고 무량해. 그래서 무량심이에요. 일심(一心)이자 무량심이고, 무량심이자 그 묘법이라. 무심도법(無心道法)은 그렇게 무량해서, 지금 수만 마리가 죽으러 간다 하는데 불쌍해서 염불을 해 주고 그런다면 그건 벌써 공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수십, 수백 마리가 죽으러 가는데 무슨 염불이 필요합니까? 염불하다 보면 벌써 다 늦는데, 하하하….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모조리 이 한 그릇 자기 마음에다 탁, 거기다가 만 마리고 천 마리고 넣으면 그냥 자기 한 그릇이 돼 버리고 말아요, 네? 그러니 그대로 그냥 인간으로 환토가 되는 거죠. 자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기만 만들어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그냥 나가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돼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을 거쳐서 나가는 인간은 나와서도 정말 사람 노릇을 하고 이 세상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지략과 아량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뭐가 답답해?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아들을 두면 그 아들이 장관도 못 하겠다! 장관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질문자1(남) 그런데 큰스님 앞에서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는 금방 제가 부처가 될 것만 같고 하늘을 날 것 같고….

큰스님 이것 봐! 부처가 되려고 하지도 말어. 이 세상에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답답한 마음이 또 생길 테니까, 응? 그러니까 그대로, 못났든 잘났든 그대로 그냥 수순히 걸어가. 그냥 딱 세우곤 입 딱 다물고 그냥 걸어가다가 딱 닥칠 때 '네가 하는 거지.' '너!' 하고선 말 안 해도 '너!' 할 때 그건 그냥 그대로 깜짝할 사이야. 그러니 재생이 돼서 체가 나올 때는 거쳐서 나오는 그 시간이 있겠지만 자동적으로 불이 확 붙어서 끓는 쇠가 돼 가지고 직접 바로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마음으로 이 도리를 어떻게 공부하겠나?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살기 위한 욕심으로, 가난 때문에, 병고 때문에, '잘살아야지, 위대하게 돼야지'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부 하지 말어, 진짜! 진짜! '안 돼! 이거는 어떠한 억겁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하란 말이야. '안 돼!'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지. 이게 이렇기 때문에 왁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 그러곤 그냥, 손을 번쩍 쳐들어서 그냥 쳤단 말이야! 이게 진짜 깊은 물이 되기 때문에 큰 배가 뜰 수 있고, 큰 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중생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일요일은 항상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쓰리고 아픈 상처를 아물리고, 내 몸에 들어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천백억화신으로 들락거리면서 나와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전 세계를 융화시킬 수 있어야겠지. 전 세계를 융화시키고 건지려면 또 우리가 집을 잘 지켜야 하지. 지구 집을 잘 지켜야 하는 것도 우리의 소임이다 이거야. 우리의 집이니까. 내 몸도 그래. 여러분이 부모에게 뼈를 받고 살을 받았는데 인간이 돼 가지고 진짜 사람이 못 된다면 어떻게 효가 될 수가 있겠나. 부모에게 잘해 드리고 잘 입혀 드리고 그래서가 아니다 이거야. 내 몸을 잘 간직해서 건강하고 진짜 인간이 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거다 이거야.

부모는 자식한테 효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아니, 오늘 그런 말도 나오게 생겼지. 봐요, 오늘 뭐, 어린이 날이라면서? 난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애들 오면은 뭘 좀 줘야지." 그랬더니 "오늘 어린이날이 돼서 다 싸 놨는데요." 그래서 "아이휴, 너희들이 나보다 천 배 만 배 낫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얘기만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어디가 병들었다 그런다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거는 자식들 입장에선 생각조차도 못할 겁니다. 나가서 다녀도 좋은 게 없고 아무리 우스운 일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모가 돼 버리고 맙니다. 이게 효도입니까, 어디? 그러니까 막 굴리지 말라 이거죠, 젊은이들도. 자기 몸 막 굴리면, 자기 생각대로 막 굴리면 그건 효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충성도 못하죠. 또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고 그랬잖아! 자기 몸에 들어 있는 자기 중생을 제도 못할 땐 자기 집이 있으나 마나지, 그거. 제도 못하면 자기 집도 망가지지, 자기 집 속에서 사는 자기의 의식들도 다, 인연들도 다 그냥 끊어지는 거야.

미래의 정신세계가…, 미래라고 그러니까 미래지 여러분이 정신세계를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있고, 과거 자리도 이 자리에 가지고 있어요. 현재의 자리가 미래, 과거 자리가 현재로 돼 가지곤 돌아가니까, 불바퀴처럼 돌아가니까, 바로 법바퀴가 여러분이 공(空)해서 자꾸 돌아가니까, 끊임없이 돌아가니까,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에 끄달리지 않고 그런다면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요, 오늘이 바로 영원한 그날이죠.

이번에 "사월초파일 메시지를 쓰세요." 그래서 "그걸 왜 벌써 쓰냐? 4월 8일은 아직도 멀었는데." 그러니까 "먼저 모두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에." 그러니까 먼저 써야 된대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럼 받아 써."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또 자기가 해 놓은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장님더러 읽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그거 누가 했는지 3단계로 곧잘 했구나."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4월 8일은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에서 그대로 4월 8일입니다. 왜냐? 4월은 바로 동서남북 전체를 말하고 8일은 유(有)무(無), 즉 말하자면 사무사유(四無四有)가 한데 합쳐져서 돌아간다는 거를 뜻해서 4월 8일입니다. 그 '오신 날'이 얼마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뜻을 깊게 깊게 새겨야 합니다. 바로 영원한 오늘이죠. "온 곳이 없기에 갈 곳도 없어서 영원한 부처님 오신 날일세." 했단 말입니다. 이 못난이가 잘했죠? 어때요? 허허허…. 그러니 여러분도 못난이죠? 나도 못났고요. 부처님도 전부 못났어요, 아주.

못났으면서도 가섭(迦葉)에게 다보탑(다자탑, 多子塔)의 반을 탁 내주면서 앉았단 말입니다. 야, 참! 그것은 이 세상에 조금도 버림이 없는 한자리였습니다, 한자리.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반 자리를 내주신 그 뜻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항상 읽고 돌아가기만 하지 그 뜻을 한 번도 새겨 본 예가 없어요. 알기야 뭐, 불자라면 아마 열 살만 넘었다 하면 다 알 겁니다, 그 소릴 들어서. 그런데 행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 깊은 속을 모른다 이겁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오늘은 시간 제한하지 말고 우리 그냥 푹 빠져 보죠, 그냥. 하하하….

질문자2(남) 스님! 스님도 못났고 저희들도 못났다고 그래서, 못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하하. 큰스님께서는 저희들을 공부시키면서 몰락 놓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때로는 무조건 맡기라고도 하시고, 그런데 그 몰락 놓으라, 무조건 맡기라는데 생각이 미치는 그놈하고, 맡기는 놈은 누구이며 맡는 놈은 또 누구냐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결국은 맡기는 자와 맡는 자가 모두 나 자신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놓고 맡기는 거기에 아무런 경계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놓는 것도 맡기는 것도 없는 셈이 되는데, 큰스님께서는 "놓아라, 놓아라" 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궁금합니다.

큰스님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죠. 큰 솥에다 팥죽을 쑤는데 말입니다, 팥죽 방울이 너무 많거든. 수도 없이 그냥 막 끓어오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뱃속에서도 수없는 생명의 의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놓는 데도 한군데, 나오는 데도 한군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 방울 조 방울, 요 방울 조 방울이 연방 나오는데 한군데서 나와서 한 가지로 고정되게만 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마는 천차만별로 다른 방울이 그냥 솟아 나와요, 그 죽솥에서 죽방울이 말입니다. "방울은 작고 크고 달라도 죽솥에서 나오는 거니까 죽솥에다가 놔라." 이런 건데, 즉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 하고 죽방울이

☞ A34면으로 계속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총무원장 : 혜 인 사서실장 : 천 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태산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법광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영암
국제포교원장: 천산인월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차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총무원장실 :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jogyebuddhism@naver.com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

부처가 되려 하지도 말고 못났든 잘났든 그대로 그냥 수순히 걸어가라

☞ A33면에서 계속

나오는 대로 주걱으로 쳤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것이 다 용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살림하면서 별게 다 나오는데, 병고로 인해서 걱정, 가난해서 걱정, 회사에 가서 상사들한테 꾸중을 들어서 걱정, 또 애들이 속을 썩여서 걱정, 또 부부지간에 싸워서 걱정, 돈이 없어서 걱정, 뭐, 걱정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죽방울은 죽방울인데 그렇게 다른 죽방울이니 그것들이 다 한 솥에서 나온다 하는 것만 믿고 알아라. 그러면 거기에 다 놓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솥의 죽방울이니 걱정을 하지 말고, 당장 애가 나가서 죽는다 이러더라도 걱정을 안 하고 '거기에서 나온다' 하는 거를 안다면 그 애는 나가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이 벌써 전체 통신이 되기 때문이죠. 가설이라고 그러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내 형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가설이고, 아들이라는 거 마누라라는 거 알지, 어머니라는 거 알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그러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절친하면 절친한 대로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가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한생각을 그렇게 하는 동시에 바로 식구들까지도 다 통화가 돼요. 거짓말 아니에요.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벌써 '난 집으로 들어가고 싶구나.' 이러곤 저절로 들어오죠. 자동적이에요, 그거.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람을 다뤄야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애들이 잘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다면 어른이 생각할 때 천부당만부당할지라도 "그래,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해 봐라." 그러고선 아주 좋게 그냥 받아주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만 경험하고 딱 돌아서게끔 마음에다 관해 놓으면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나가서 다 해 보고는 "아이, 아버지. 나 그거 고만두겠어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고만두니?" 외려 그러거든. 그러면은 "아, 이만저만해서 그러니까 저 다른 걸로 하겠어요." 한단 말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런 사랑과 자비, 의리, 이심전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관심,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그냥, 나가서 조금만 잘못됐다 하면 그쪽 이유는 듣지도 않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왔어? 공부하라니까! 이 아비는 땀 흘리고 벌어다가 너희들 공부시키는데!" 이럽니다. 누가 아니라나요? 하하하…. "그렇게 공부시키는데 요놈 새끼, 어디 가서 자고 들어와?" 그쪽 사정은 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먼저 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상대방 얘기부터 듣고, 잘못됐으면 "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하고 주인공에 맡기는 거, 또 그렇지 않으면 "얘, 그렇게 해서 못 들어왔구나. 그건 참 잘했구나. 네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참 잘했다. 사나이가 그런 의리도 없이 어떻게 살아나가겠느냐." 아, 이렇게 좀 북돋아 주면 나가서 잘못하래도 안 해요.

이것이 부모가 삼분의 일 가르치는 일이고, 삼분의 일은 자기가 자작하며 이끌고 다니는, 바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잡아서 나가는 거, 삼분의 일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이렇게 3단계가 한데 합쳐지게 되면요, '이랬어, 저랬어' 도 안 합니다. "아버지." 그러곤 좋아서, 말할 땐 무릎 꿇고 앉아서 정중하게 말하고, 또 재밌게 얘기하고 그럴 때도 이랬어, 저랬어 하고 마구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존경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스무 살, 스물하나, 둘 요 정도가 예전 서른 살하고 맞먹는단 얘기죠. 지금 시대가 그만큼 됐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고도 또 나는 항상 그렵니다. 사소한 일 같더라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자녀들을 못 보고 그냥 나갈 때는 반드시 몇 자 써서 "애, 아무개야!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 놨으니 그걸 데워서 먹어라. 그리고 언제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좀 일찍 들어와서 배고프지 않도록 해라. 너무 피곤하면 안 되지 않니?"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써서 상에 놓아두고 나가면 자식들이 그걸 볼 때 차마 그 자비를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자기 부모를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이건. 그게 뭐 어렵습니까? 오늘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지금 외국이나 한국이나 너무들 삭막하게 사는 것 같아서입니다. 외국 가면 자녀들이 그냥 그 마약 중독 뭐, 이런 것이 돼 가지고요, 부모네들이 상당히 고생합니다, 지금.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자3(여) 20년 전에 간호원으로 서독에 가서 10년 정도 간호원 하면서 살아서 여러분처럼 기회가 없어요. 여기 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떠나기 전에 스님께 여쭙고 싶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공부 해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신데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랍니다. 딸자식 된 도리로서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아마도 미운 정이 너무나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20살 되기까지의 그 수많은 괴로움, 피눈물 나는 고생, 남들처럼 제대로 과정을 밟지 못한 처지에 대한 한과 미움이 있어서 엄마를 사랑하기 이전에 서독에 갔다는 그 자체가 꽤나 슬펐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서 서독에 갔어요. 무슨 일이 잘못되면 '한국에 있었으면 시집도 갔을 텐데 서독에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었는데, 여쭙고 싶은 것은 어머니를 마주치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남들은 괴로우면 울고 기쁘면 웃고 그러는데 저는 무감각한 상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저쪽에서 한국 사람은 저 혼자밖에 일을 안 해요. 그래서 20년간 한국 사람을 상대 안 하니까 대화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저의 마음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혼자 속으로 '이건 너무나 잔인한 내 마음병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음병을 좀 고칠 수 있을지 스님한테 좋은….

큰스님 말씀을 들을까 이거죠?

질문자3(여) 예, 예.

큰스님 예, 좋아요. 그렇다면 댁이 아무리 고생을 하다 못해 천하없어도 나만은 못했을 거야. 그러나 난 부모에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지금 미워하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또 이뻐하는 마음도 없다는데 댁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뭐가 있었어? 미움도 고움도 없었지? 그리고 서독에도 갈 수가 없었을 거야. 당신이 그래도 어머니를 빌려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었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인생 공부를 배웠지, 고생을 안 했더라면 인생 공부를 못 배워. 남이 쓰린지 고운지 또는 아픈지, 그거를 느끼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거를 느끼게 됐거든. 곱게 자란 사람보다 더한층 공부를 더 시켰으니 사자가 사자 새끼를 저 내리막에다가 내팽개친 거와 다름없잖아?

그러니 고맙게 생각하고 어머니날 꽃을 사서 드리면서 무조건, 밉고 이쁘고 떠나서 무조건 부모야, 부모란 말이야. 어머니가 살을 주고, 아버지는 안 계신다 해도 뼈를 줬어. 당신의 영혼은 거기에 부합이 돼서 삼합이 합쳐서 당신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래도 감사히 생각하고 이제는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해야지. 무조건 잘못한 거 잘한 거를 떠나, 이제! 모든 거를 맡겨 놔. 모든 거를 그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재산이 돼서 이 세상에 밝게 빛이 날 거야. 그 얼굴도 이제는 환하게 필 거고 그럴 테니까.

"어머니! 이 꽃을 받으세요. 이 꽃이 내 마음의 꽃입니다. 어머니 꼭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딸 노릇을 꼭 할 겁니다." 그래야지, 밉도 곱도 않다는 게 어딨어? 그러지 말어.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더라도 그때 당시는 아마 자식이 아팠던 것보다 몇십 곱절 아팠을 거야. 그거를 알아야지! 부모는 자식을 배신하는 법도 없고 또 죽이는 법도 없어.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그 환경을 누가 가져왔어?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실에 닥쳐온 거야. 바로 과거에 자기 산 대로 닥쳐온 거지 누구의 탓도 없어. 알았어?

질문자3(여)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질문자4(여) 저도 사실 마음 밝히는 공부를 참 하고 싶은데 스님처럼 꼭 출가수행을 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음, 그거는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 그건 자유로 하는 건데, 하하하…. 내가 느낀 거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머리 깎고 입산을 한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저이는 스님이야, 그러니까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지만, 출가하지 않고 공부하는 이는 그냥 스님하고 똑같이 다 실천할 수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넓게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깎는 거지,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야. 안 보이는 데서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자유야. 스님이 되고 안 되는 건 자유고, 공부하는 거는 스님이 됐든 안 됐든 똑같아.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니, 그 도리도 모르고 스님이 된다면 스님은 돼서 뭘 해? 껍데기 스님이 돼야 소용없어, 아무리 천만 명이 된대도. 그러니까 결심하고 스님이 되는 거, 이거 보통 사람들 아니야. 허허허…. 보통 사람들이라면 우리 이렇게 스님 안 돼. 스님 되는 것도 보통이 아니야.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속단해 버리고 이 무명초, 천차만별로 어지러운 모든 걸 깎아 버리고, '나는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도리를 알겠다!' 하고 다짐하고 들어오는 거, 이거 보통 아니야.

그런데 공부를 한다니까 말인데, 어떤 분야든지, 만약에 의학을 해서 아픈 사람을 건진다 하더라도 이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물질 또는 학술로 배워도 마음으로 50%의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걸 체험해서 터득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그걸 커버하고 나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의당히 이거는 배우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질문자4(여) 더 솔직하게 스님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시집을 안 가고 그냥 스님이 되어서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은 끝까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 보는 중이거든요.

큰스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중이라면 진짜 생각을 해서 단호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나는 시간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시집을 간다, 장가를 든다고 하는데 그런 일에 정신을 빼앗기는 사람이라면 공부도 못할 거 괜히 스님이 돼서 뭘 하느냐. 가정이라도 잘 지켜야지. 이 공부는 모든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앉아서도 이 세상을 다 주름잡을 수 있는 거야. 승려가 안 돼도 말이지.

그러나 이 스님네들은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마음이 돼 줘. 한마음이 돼 준단 말이야. 단호히 결정을 내렸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전체를 그냥 다 끌어들여서 한마음이 돼. 한 기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되려면 스님이 돼서 이 세계를 누비면서 이 마음 법을 전파해도 좋지. 우리 생명의 근본과, 말하고 체험하고 이러는 게 불교니까. 그러니까 풀 한 포기라도 제도하려면 스님이 되고. 그런데 살림하는 사람들은 풀 한 포기까진 생각을 안 해. 또 죽은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 살기 바쁘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야.

※위 법문은 1991년 5월 5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무조건 잘못한 거 잘한 거를 떠나, 이제.
> 모든 거를 맡겨 놔!
> 모든 거를 그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 그러면 재산이 돼서 이 세상에 밝게 빛이 날 거야.

부처님오신날
- 2019년 -

(사) 法불교조계종

종 정 철허 만원(봉은정사)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법불교조계종
종정 만원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원

원로원장 성인(대덕사)
종회의장 혜승(선운사)
규정원장 혜윤(금강사)
교육원장 보현(보광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문화원장 일락(중산정사)
(사)법불교조계종종정사서실장
사무총장 본산 대성사 주지 성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TEL 02-762-2459 FAX 02-742-2344

봉축단상

가고 옴 없는 거룩한 님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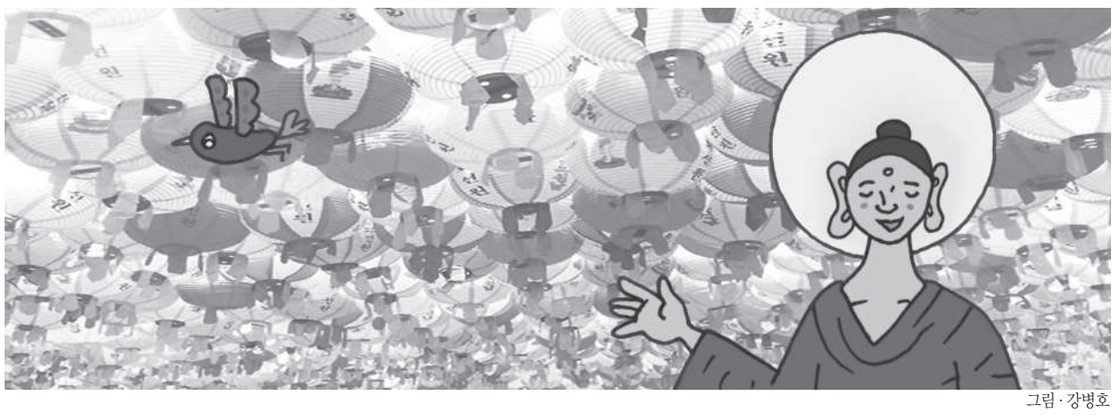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도정 스님
〈해인〉 편집장, 시인

佛紀, 탄신일이 아닌 열반일을 기준해
반니원경 등엔 탄신 · 정각 · 열반일 같아
정녕 슬프고도 아름다운 승화의 완성
가셨어도 보내지 못한 그 자취 기린다

불기2563년,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는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이다. 연등회는 동국대 운동장에서 어울림 마당이 펼쳐지고, 각계각층 유명 인사들의 아기부처 관욕의식을 봉행하면서 시작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연등회 연등행렬은 의장대의 화려한 의장행렬을 필두로 예년과 같이 서울 동국대 운동장에서 출발해 동대문을 거쳐 조계사까지 종로 일대에서 진행됐다. 10만 연등의 물결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30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연등행렬에 함께 동참하는 장관을 연출됐다. 연등행렬은 종파와 사찰을 초월해 하늘에서 하강하는 천녀상, 사천왕상, 보살상, 애기부처님상, 용, 탑, 코끼리, 색색들이 연꽃 등 온갖 종류의 거대한 등을 앞세우고, 손에 손 청사초롱 불 밝히며 부처님오신날을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었다.

연등행렬의 끝 모를 인파에 차량도 멈춰서고 시간도 잊어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 서울의 중심 거리는 갠지스 강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인파가 켠 연등의 거대한 물결이 출렁출렁 도로를 따라 넘쳐흘렀다. 너와 내가 모두 법계의 꽃송이 되어 화엄의 바다를 장엄하였으니 세계일화(世界一花)의 부처님 마음이었다.

내가 사는 시골에서도 사찰로 들어가는 마을 어귀마다 가로수에서 전봇대로 이어진 색색의 연등이 걸려 부처님오신날이 불교 최대의 명절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시골 장터 방앗간도 쑥인절미를 뽑느라 불자들이 북새통이었다. 초파일이면 들에 쑥이 제법 커서는 낫으로 베어다 연한 잎만 훑고 억센 줄기는 골라낸 뒤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서 따로 담고, 떡쌀은 찹쌀에 멥쌀을 조금 섞어 방앗간에 가져가면 쑥인절미를 뽑아준다.

시골에서는 큰 대야에 통째로 떡을 가져와 절에서 콩고물을 묻혀 손으로 일일이 비벼 조막만하게 인절미를 빚는다. 불자들의 정성도 정성이지만 수십 년 절에 오간 시골 할매들 손맛이야 방앗간이 흉내 낼 수 없으니, 말캉한 인절미를 하나만 입에 넣어도 마음은 푸근해지고 속은 금방 든든해진다. 하여 할매들은 스스로 만든 고 인절미 맛에 반해서 아들네, 딸네 거기다 손주들 몫까지 등을 다니 비좁은 법당은 훈기로 가득할밖에. 주지 스님은 오랜만에 복작거리는 법당 안에서 어깨가 으쓱할밖에.

나는 인가도 없고 차량 통행도 없는 시골 산속 움막에 앉아 생각하였다. 이제 갓 새잎을 달고 마음껏 푸르를 준비 중인 5월의 나무와 나무 사이에 등줄을 걸고 비닐 연등이라도 내걸어야 하나? 어둠에 덮인 먼 산 너머 고라니가 한 번씩 안부나 묻거늘 뉘가 오실까 하여 밖에 등을 다나 자문해 보는 것이다.

마을은 멀고, 버스도 없어 유모차나 끌고 다니는 허리 굽은 할매들이 움막 법당에 찾아올 리도 없었다. 멀리 도시에서 인연되는 몇몇 불자님들이 안부 차 법당에 등을 달아 줄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오신날인데 별고 없으시냐"고 묻는다.

나는 부처님오신날에 사람은 아니와도 밭두렁에 제멋대로 자라는 머윗대를 꺾어서는 삶아 냉동실에 넣어둬야 한다. 장화 신고 산으로 올라가서는 취나물도 뜯어야 하고, 오가피순도 따야하고, 고사리도 꺾어 솥뚜껑에서 눈물 나도록 끓여 찬물에 헹궈 초파일 나물로 쓸 준비도 마쳐야 한다.

그래, 부처님오신날이구나. 오래도록 기다린 님, 오매불망 그리던 그 님이 오셨구나. 오셨다는 그분은 그토록 눈물겹게 기다리던 님, 당신 아니면 정녕 의미 없다던 그이셨구나. 그런데, 오셨다던 그님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 지역과 지역의 분쟁, 반목과 질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줄 그분이셨던가.

착취의 기아와 기근으로 인한 아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줄 그분이셨던가. 눈 멀어 처량한 신세 캄캄한 세상에 빛을 주실 그분이셨던가. 앉은뱅이 걷고, 뛰지 못하는 설움 가시게 할 그분이셨던가. 의지 없는 외로운 고아 신세 따뜻이 보듬어 주실 부모 같은 그분이셨던가. 폐병을 낫게 하고 암세포 말끔히 씻어 줄 의술의 대가 그분이셨던가. 집 없는 설움, 번듯한 직업 없는 나그네 설움 가시게 할 억만장자 그분이셨던가. 가난해서 학대받고 못 배워서 천대받던 평생 한을 단박에 씻어 줄 절대 권력의 그분이셨던가. 홀아비, 과부, 독거인의 외롭고 서러운 사정 다 해결해 줄 인연성취 그분이셨던가. 멀리 떠난 자식 다시 보고 효도 못한 부모님 극락으로 인도하실 전지전능 그분이셨던가.

부처님오신날 연등 소원지마다 소원성취, 취업성취, 건강발원, 사업번창….

부처님 모셔 놓은 불단 앞에 등줄을 치고, 색색으로 한지 연등을 달아 알전구 넣고는 전깃불을 밝힌 뒤 그 아래 앉아 곰곰이 생각하였다. 내게도 그리움은 있었고, 보고픈 이도 있었고, 사모하던 이도 있었구나. 내게도 어릴 때부터 나이 따라 변해가던 소원들이 있었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그 바닥없는 욕심도 있었구나. 만나고 싶은 이도 있었고 놓치고 싶지 않은 이도 있었구나. 오르고 싶은 곳도 있었고 떨쳐버리고 싶은 것도 있었구나.

그렇다면, 오셨다던 그님은 존안을 먼발치에서 뵙기만 해도, 손만 한번 잡아줘도 내 허허로움 가득 채워지는 불세출의 그이였더란 말인가?

아니다. 아니다. 오셨다던 우리 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풀 먹인 장삼자락 휘날리던 그이 아니었으며, 겹겹이 솜털 누빈 옷, 조각천으로 멋 부린 승복 입은 그이 아니었어라. 임금처럼 화려하게 군대를 사열하고 어가 타고 오신 그분이 아니었어라. 구름을 불러서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사람 마음 유혹해 이익 취하는 그이가 아니었어라. 시체 싼 고름 묻은 천 냇가에 빨아 입고, 쪽박 같은 그릇하나 달랑 들고, 거름뱅이 마냥 맨발로 탁발하러 다니시던 그이 아니셨던가. 누군가에게 미움 사 코끼리에게 짓밟혀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이였고, 음탕한 지도자라 모함당한 이였고, 늙은 몸 누일 곳 없어 사라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이였어라. 몸 아프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 이였어라.

불기(佛紀)는 기실 부처님 탄신일이 아니라 부처님이 열반한 날을 기준으로 하였다. 고해의 바다라고 명명하셨던 이 사바세계에서 80평생 사셨던 한 늙은 성자, 혈변을 흘리며 "아난아, 목마르다"고 힘없이 말씀하시며 휘청걸음으로 도달한 사라수 아래의 그 영면의 날이다. 그래서 가신 날을 기준으로 오늘날 '부처님오신날'이다.

〈반니원경(般泥洹經)〉〈수업본기경(修業本起經)〉에는 "부처님은 사월 초파일에 탄생하여, 사월 초파일에 출가했으며, 사월 초파일에 정각을 얻어 성도하고, 사월 초파일에 입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신 날을 오신 날의 기준을 삼다니! 정녕, 슬프고도 아름다운 승화의 완성이다.

가셨어도 보내지 못한 그 거룩한 분의 자취를 우리는 기어코 오신 해로 여기며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외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짐 하나 새로 하였다. 가신 날이면 어떻고 오신 날인들 어떠리. 우리 마음에 그분을 영접한 날이 곧 오신 날이거니와 나도 흥겨운 마음으로 연등을 걸어야 마땅하지 않으랴.

社 說

어린이가 불교의 미래다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5월 4일과 5일 펼쳐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어린이'를 주제로 서울 종로 일대에서 불기2563년 연등회와 전통문화마당을 진행했다. 올해 연등회에는 약 40만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봉축했다.

올해는 특히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이 열린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아이들 중심의 다양한 행사가 눈길을 끌었다. 가족이 함께하는 명상,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포토존 등 아이들 위주의 행사가 이어졌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전통문화를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불교에 있어서 어린이 불자들을 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어린이 포교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매년 줄어드는 어린이법회부터 불자지도자 수까지 10년 전 수치와 비교해도 포교가 축소되고 있음이 확연하다.

이제는 고령의 여성불자 중심의 기도문화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체험문화로 사찰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여러 세대가 함께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력하면 이뤄진다. 양산 통도사의 경우 지난해 6월만 해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빼면 어린이법회 참석 아동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사찰 측의 계층법회 및 가족법회 활성화를 통해 이제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법회에 나오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에게 스스로 마음 닦는 법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 이타행을 통한 정토 구현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런 전법의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어린이불자는 불교의 미래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나씩 사찰의 문화, 풍토를 바꿔가는 일을 시작하자.

천은사 입장료 폐지에 부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례 천은사 문화재입장료가 32년만에 폐지됐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와 천은사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29일 환경부 · 문화재청 등 8개 기관과 함께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입장료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그간 천은사 문화재입장료 문제는 사찰 문화재입장료 갈등의 대표 사례로 여겨져 왔다. 특히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더욱 세간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의 국립공원 정책은 애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천은사의 경우 1960년대 후반 당시 군사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을 지정하며 사찰 소유 토지를 포함시켰고, 1987년 전두환 정권은 88올림픽 관광특수를 위해 지리산 관광도로(861번 지방도)를 개통했다. 이후 정부는 매표소를 설치해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함께 징수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원 정책으로 시민들의 비판은 모두 사찰에게 돌아갔다.

지난한 갈등과 논의 끝에 결국 천은사는 산문을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줬다. 물론 해결할 부분도 남았다. 사찰의 운영기반 조성과 탐방로 개발 등 천은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들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금도 갈등 중인 국립공원 사찰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애초 입장료 갈등은 마음대로 사찰 토지들을 공원에 편입시킨 정부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책임있는 해결을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수행자와 유기견의 염화미소 경남 사천에서 수년째 유기동물 구조 · 입양 활동을 펼치는 청솔 스님과 유기견 무림이. 견공선원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80여 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들이 생활하고 있다. 전부 한 차례 이상 아픔을 겪었지만, 유기동물을 사랑하는 스님의 마음이 견공들의 미소로 표현된다. 유기동물의 이고득락이 실현되는 서방정토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글 · 사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모든 생명은 나고 죽는다. 산 생명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평등한 진리다. 그렇기에 나고 죽는 것은 순리일 뿐 장애가 아니다. 다만 나고 죽는 것 사이에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의 문제다. 부처님이 인간을 포함한 뭇 생명의 이고득락(離苦得樂)을 중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길거리에 버려진다. 매우 소중한 짝을 뜻하는 반려(伴侶)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용어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애완(愛玩)’의 개념이다. 가까이 두고 즐기다가 싫증나면 버리는 장난감 같은. 명절 연휴만 되면 ‘명절 증후군’과 ‘고속도로 정체’에 이어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유기동물’이다.

〈범망경〉에는 “생명이 있는 것을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이거나 부추기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 죽여서도 안 된다”고 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율 불살생(不殺生)이다.

반려동물 유기도 하나의 살생이다. 내 손으로 직접 죽이거나 죽길 바라지는 않더라도 독립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곳에 산 생명을 내던지는 것 자체가 살생이다. 불자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어쩌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국불교는 지금까지 유기동물 문제에 관심 갖지 않았다. 이유는 중요치 않다. 이제는 불자들이 먼저 참회하고 나설 때다.



그림 · 박구원

유기동물 & 불교

동물과 함께하는 마음, 당신은 있나요?

불교도가 유기동물 구제에 나서야 하는 이유

흔히 우리나라를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라고 표현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의 28%를 넘고, 아이는 없어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은 아니다.

유기동물은 주인의 실수 혹은 의도적인 목적으로 인해 버려진 동물을 말하며 연간 10만 마리 정도가 발생한다. 통계에서 누락되는 수치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주인을 찾거나 새로운 입양자를 만나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고, 나머지는 보호소에서 병사하거나 안락사 당한다.

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경제적 부담이나 이사, 유학, 결혼, 임신 등으로 인한 상황변화, 더 이상 예쁘지 않다는 단순 변심 등이 주요인이다. 한국적 특성으로는 집안어른의 반대나 자녀가 고3이라는 이유도 있다. 휴가철이나 명절 때 유기되는 현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책임감 부재가 낳은 결과

유기이유는 매우 다양해 보이지만 공통적 이유는 책임감 부재다. 꼭 길에다 버리는 것만이 유기가 아니다. 별로 반기지도 않는 시골 친척집이나 주변 지인에게 억지로 떠넘기는 것 역시 유기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긴 어렵다.

동물유기는 정부정책의 부재와 관리 허술에도 큰 책임이 있다. 동물관련 정책과 예산배정은 늘 사람에 밀려 후순위가 되기 일쑤다. 흔히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강아지 번식장에 대한 관련법령이 미비하고, 펫숍에 대한 관리나 규제 역시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양산되는 구조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또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으론 여전히 개식용 문화가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개식용을 법으로 금하지 않는 나라는 드물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중국 정도가 개식용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표적 국가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은 개고기 유통에 대한 법적금지가 시행된 지 오래다.

유기동물 이야기를 하면서 개식용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유기동물 양산의 1차적 이유가 강아지 번식장의 난립이기 때문이다. 강아지 번식장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개고기 시장의 존재다. 펫숍 등에서 미분양된 동물들이 개소주 · 개고기 시장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번식장이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다.

공장식 축산과 개식용을 반대하는 동물단체 활동에 딴죽을 거는 분들이 있다. 부처님도 육식을 반대하지 않았고, 우리 조상들도 개를 먹었는데 왜 유난을 떠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나는 현대 공장식 축산의 처참한 환경을 부처님이 목도하셨거나 개농장의 참상을 우리 조상들이 보았다면 과도한 육식과 개식용을 용납하지 않았을 거라고 답한다.

14대 달라이 라마께서 1959년 인도로 망명하셨을 때 수많은 티베트들이 함께했다. 습기가 적은 티베트의 기후와 달리 고온다습한 인도의 기후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티베트인들이 힘들어했다. 망명정부 관리들이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티베트 난민들을 위해 양돈이나 양계장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고 달라이 라마께 제안했다.

유기동물 양산 1차 원인 개식용
한국만의 문화에 동물 멍든다
법 · 제도 구조적 문제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개개인 잘못 커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같아
사회문제로 커진 유기동물에
한국불교도 관심 쏟아야 한다

달라이 라마는 동물을 좁은 곳에 모아 기른다면 그들이 고통 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답을 했고, 관료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결국 집단사육 농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티베트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동물을 가둬 기르는 대규모 축산시설을 찾기 어렵다.

티베트 고원에서는 채소를 키우기 힘들어 스님들에게도 육식이 허용됐지만 인도로 망명한 이후에는 야채와 과일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원에서도 채식위주의 식생활을 권장한다. 달라이 라마께서 어느 자리에서나 강조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행복을 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것과 같이 모든 동물들도 그러하다"는 말씀을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있다.

요즘 들어 국내에서도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채식을 고민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채식을 하는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크게 나누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첫째 건강, 둘째 환경보호, 셋째 종교적 이유다. 하지만 국내에서 종교적 이유 때문에 채식을 실천한다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종교적 이유 때문에 채식을 하는 인구가 40%에 육박하는 인도, 그 뒤를 이어 채식비율 세계 2위인 불교국가 대만과 비교된다. 채식인구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에서 과연 불교적 가치관으로 인한 채식인구는 얼마나 될지 심히 궁금하다.

'방생' 현대적 재해석 필요

국내에서 이런저런 법회를 들어봤지만 스님들이 '채식'을 강조하는 내용을 들어본 기억은 별로 없다. 불교도라서 개를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많지만, 결혼이나 임신 등 큰일을 앞두고 무언가를 조심하는 민속신앙적 삼감과 잘 구별되지 않는다.

종교 차원에서 스님들께서 불살생의 계율을 설파하고 채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적극적 노력이 아쉬운 대목이다. 반면 티베트 법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채식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고기를 먹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 "한 달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물으며 대중 앞에 손을 들어 자신의 근기에 맞는 약속을 하도록 배려하는 스님들의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불교도라면 방생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물고기나 자라 등을 구입해서 다시 살려주는 근래의 방생행사는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단 방생용으로 포획되거나 길러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생산과 고통이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방생처가 면밀히 고려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방생 후에 제대로 생명을 이어갈 수 없거나 생태계를 교란하는 예도 많이 발생한다.

죽어가는 동물의 목숨을 놓아주어 살린다는 의미의 방생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돼야 마땅하다. 내가 가족으로 들인 반려동물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책임지는 것,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사기보다는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적 의미의 방생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유기동물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은 비단 불살생의 계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연(因緣)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이기도 하다. 비록 이생에서 동물의 모습으로 내 곁에 왔지만 수많은 생을 거듭하는 동안 얼마나 가까운 인연이었기에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지…. 그 소중한 인연을 법연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랄 뿐이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신성한 불탑 등을 오른쪽 방향으로 돌면 전생의 업을 소멸해준다고 강력하게 믿는 이들이 많다. 자기가 기르는 양의 업을 소멸해주기 위해 양이 좋아하는 채소를 손에 쥐고 탑돌이를 하는 한 티베트 여인 사진을 본적이 있다. 비록 가축으로 기르는 동물이지만 빨리 업장을 소멸하고 내생에서는 인간의 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배려가 느껴져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교도로서 우리가 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본다.



임순례/(사)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조계종 원로의원·회주 **성타**

관 장	**종상**	주 지	**종우**
원 장	**덕민**	부주지	**정문**
총 무	**종천**	교 무	**현학**
재 무	**성심**	포 교	**성요**
호 법	**성담**	사 서	**정빈**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불국사 템플스테이 ☎054)746-0983
- 분당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진현동)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부처님오신날



‘사회 화두’ 유기동물, 종교계 관심 全無

유기동물 얼마나 문제인가

1천만 반려인, 대한민국의 민낯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주인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올해 초 개봉한 국산 애니메이션 〈언더독(Underdog)〉에서 주인공이자 유기견인 ‘뭉치’가 반려인에게 버려진 뒤 만난 개들에게 뱉은 말이다. 유기견들의 모험을 주제로 한 이 애니메이션에서 반려인이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 뭉치는 이미 버림받은 개들이 다가와 함께 떠나자고 제안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반려인을 향한 견공(犬公)의 무한한 애정이 묻어난다. 하지만 정작 〈언더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반려인들이 뭉치를 산속에 유기하러 가는 과정에 주고받는 대사다.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게 얘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어. 맘껏 달릴 수도 있고.”

이 대사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자기합리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 같은 자기합리화로 인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려–유기동물 수는 비례

현재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 정확히 몇 마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구통계 같은 국가 차원의 통계조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에서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23.7%(약 511만 가구)로 나타났다. 4가구 중 1가구에는 반려동물이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개는 507만 마리, 고양이는 12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라는 표현을 쓴다.

반려동물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조어도 생겨났다. ‘펫팸족’은 동물 펫(pet)과 가족 패밀리(famil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군이 발달하면서 반려동물과 경제의 합성어인 ‘펫코노미’도 신조어로 만들어졌다. 2010년 1조8000억 원대의 규모를 형성한 반려동물 산업은 2020년 6조원대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유기동물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개한 ‘2017년 유기동물관리 등 동물보호 ·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간 구조된 유실 · 유기동물은 10만2593마리였다. 2015년 8만2100마리, 2016년 8만9700마리에 이어 처음으로 10만 마리를 돌파했다. 이 수치는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조 노력이 뒷받침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유기되는 동물이 점차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 통계는 사설 시설을 제외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 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규모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게 학계 중론이다.

왜 이렇게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걸까? 전문가들은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외로움 해소와 호기심, 외적 호감 등을 이유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인간위주 사회에서 동물과 함께한다는 의식보다는 개인이 감정적으로 좋아 반려동물을 들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일반인보다 반려인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서울연구원이 2017년 2월 발표한 ‘서울시 동물복지원시설 도입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반려인의 약 24%는 사전지식이 부족한 채 반려동물을 기르기 시작했다. 사전지식 취득 수준을 ‘보통’이라고 답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43%로 늘어난다. 무엇보다 전체 42.6%에 달하는 반려인들은 장기간 부재(25.9%) · 경제적 문제(11.6%) · 이웃 피해(8.2%) 등의 이유로 사육 포기나 유기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만 한 해 9000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대비 유기동물의 수는 0.8%, 1000마리 중 80마리가 길가에 버려지는 셈이다.

이렇게 유기된 반려동물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정기간 보호받다 대부분 안락사 처리된다. 보호센터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기간은 길어야 20일 안팎. 보호기간이 짧은 곳은 2주도 채 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 운 좋게 반려인을 다시 만나거나 새 반려인에게 입양되지 못하면 유기동물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국 기준 구조된 유기동물 중 20.2%는 안락사, 27.1%는 보호기간 중 자연사했다.

인식 · 제도 개선 병행돼야

사회문제로 대두된 유기동물, 줄일 수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개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법적 ·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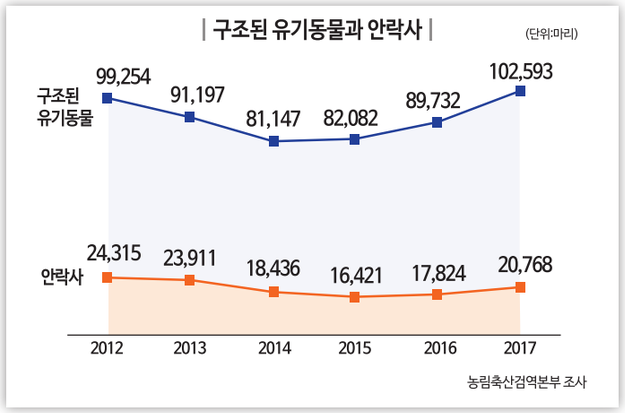
김태림 동물법학회장은 “사실상 케어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동물권리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한정된 사람들만의 주제였다. 이제는 공론의 장에서 서로의 견해를 주고받으며 공의를 모아야 한다”면서 “동물보호에 대한 법적 지위, 사설보호시설에 대한 규제 등 미흡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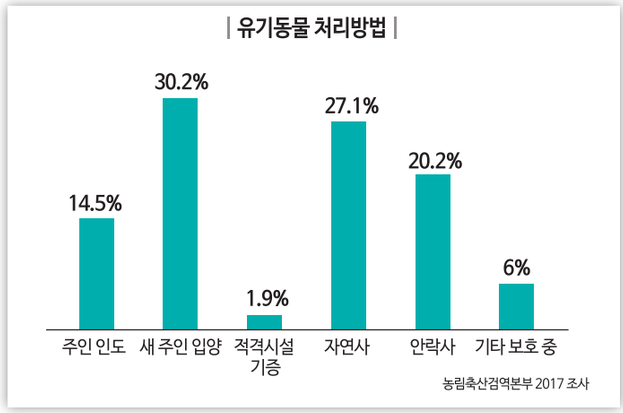
다행히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유기동물 문제 해소를 위해 입양비와 동물등록비 등을 지원하며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고 있다. 질병진단비와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곳이 많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사설보호소 운영자격과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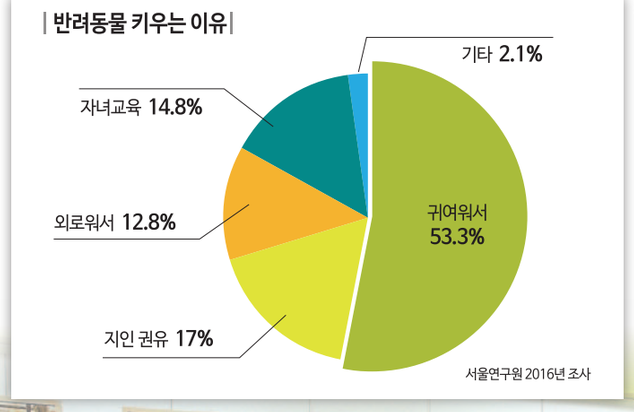
하지만 2017년 기준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전국 293곳의 동물보호센터 중 지자체가 직영하는 곳은 33곳(1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53곳은 위탁보호형(지자체 지정)으로 전체 86.3%를 차지했다. 시설위탁형(지자체 시설 임대)은 7곳(2.4%)이었다. 이외에도 사설동물보호시설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전국에 약 150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동물 유실 ·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동물등록제가 효과를 내고 있지만, 대상을 개로 한정해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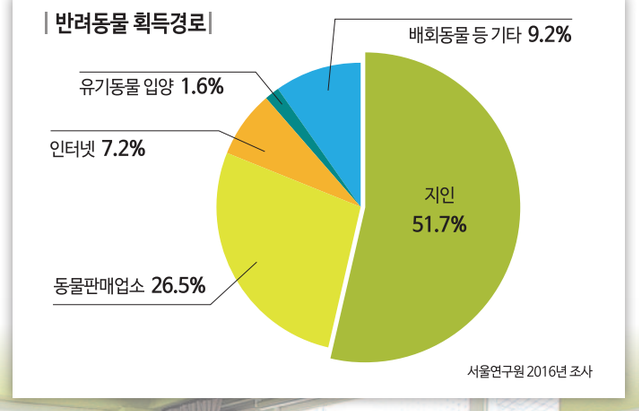
결국엔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종교단체 차원의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전무하다. 특히 불교계에는 이 같은 사회문제를 논의할 조직이나 구조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몇몇 스님 개인 원력으로 운영되는 유기동물 보호소 · 쉼터만 존재할 뿐이다.

경북 영덕에서 유기견 3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는 한 비구니스님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른 옷을 입었을 뿐이지 똑같은 생명체다. 게다가 반려동물은 그 어느 동물보다도 인간과 가까운 존재”라며 “국가와 시민사회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불교계가 힘을 보탰으면 한다. 불교계가 동물을 위해 작은 일부터 하나씩 뜻을 모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사 동자승 단기출가에 참여한 동자스님들이 최근 (사)동물권행동 카라를 견학, 반려동물 구입 대신 유기동물을 돌보자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 1천만 명
유기동물 숫자 매년 늘어나 明暗

애완동물→ 반려동물 표현 변해도
동물 바라보는 대중 시선은 그대로

유기동물 보호시설 턱없이 부족
사각지대 해소, 종교계 나서주길



“80마리 환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계 유기동물쉼터를 찾아서

경남 사천 견공선원(청솔아토유기견묘쉼터)

경남 사천=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견공선원(犬公禪院). 평소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동물을 좋아하는 기자에게 매우 독특한 절 이름이 뇌리에 ‘콕’ 박혔다. 우연히 TV프로그램을 보다 알게 된 그곳, 80여 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들이 비구니스님과 살아가는 견공선원(청솔아토유기견묘쉼터)이다.

‘세상에, 스님과 유기견이 무슨 인연이기에 절 이름까지 견공선원이란 말인가?’

지금껏 능력이 부족해 소위 ‘랜선집사’로 온라인에서 남의 집 반려동물만 구경해온 기자에게 견공선원은 마치 영화 쥬만지(Jumanji) 속 매력적인 정글처럼 느껴졌다. ‘한번 가보고 싶다.’ 작은 소망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됐다.

수소문 끝에 견공선원을 운영하는 청솔 스님과 연락이 닿았다. 휴대전화 너머 스님 목소리는 시원시원했다. “서울에서 오시나요? 주말도 괜찮으면 토요일에 오세요!” 4월 27일, 차로 무려 4시간 반을 달려 경남 사천에 도착했다.

부처님 대신한 犬公 무리

사천의 어느 시골 논밭 오솔길을 따라 가다보니 ‘견공들의 합창’이 우렁차게 들리기 시작했다. 사실 말이 좋아 합창이지 견공선원 앞에 서면 수십 마리의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에 조금 기가 눌린다. ‘난 개를 좋아한다, 개를 좋아한다….’ 분명 개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도 견공선원에 발을 들이기 전, 이유 모를 중압감에 이렇게 되뇌었다. 살면서 수십 마리의 개를 한꺼번에 만날 일이 없었기에 한편으론 겁도 났다.

견공선원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첫발, 오른쪽 눈 주위에 손바닥만한 검은 무늬를 가진 대형견 점순이가 달려든다. 낯선 이에게 앞발을 번쩍 들며 다가와 연신 침을 묻히는 점순이. ‘우리가 구면인가’ 싶던 그 순간 청솔 스님의 호통이 날아든다. “점순아아아!”

격한 환영인사에 점순이가 대표로 혼쭐났지만 이미 기자의 옷은 여러 견공들의 신고식으로 엉망진창이 됐다. ‘이곳은 쉼터인가 전쟁터인가.’ 견공선원 구역을 나누는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자 또 다른 무리가 쏟아져 나왔다. ‘아뿔싸!’

견공들의 신고식을 대략 3차전까지 치른 뒤 청솔 스님과 원활한 대화가 가능해졌다. “개들이 좀 많죠? 얘들 밥 주고 똥 치우고 청소하면 하루가 다 가요. 그만 데려오려고 마음먹었다가도 눈앞에 보이면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청솔 스님이 앞치마를 두른 채 빗자루질 하며 먼저 말을 건넸다.

견공선원에는 유기견 70마리와 유기묘 10마리 정도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인연이 닿아 입양자를 만나 떠나는 동물이 있어 견공선원에 거주하는 동물 숫자는 자주 변한다. 도대체 비구니스님이 무슨 연유로 이렇게 많은 유기동물과 생활하게 된 걸까?

“원래 여기에 부처님 모시려고 했어요. 그러다 꿈을 꿨는데 개장수가 오더니 도량에 개들을 싹 풀어놓더라고요. 그때는 목탁이 · 법고 · 죽비 · 천진이 · 새봄이까지 5마리만 있을 때였거든요? 여기가 부처님 모실 곳이 아니라 개들 살 곳인가 싶었죠.”

청솔 스님은 약 6년 전, 이곳에 터를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작은 유기견 한 마리를 만났다. 털이 엉키고 씻지 못해 꾀죄죄한 강아지에게 “이리 와”라고 스님이 말을 걸자 녀석은 쪼르르 다가왔다. ‘간봉이’와의 첫 만남이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했던 간봉이는 오래 살지 못했다. 간봉이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낀 청솔 스님은 본격적으로 유기동물을 돕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비영리민간단체 ‘청솔아토유기견묘쉼터’도 설립했다.

“유기견보호단체에 찾아가서 강아지 몇 마리를 임시보호하려고 데려왔어요. 보호기간이 끝나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절대 안 가려고 하더군요. 차에 실었는데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차마 못 보내겠더라고. 그때부터 유기견들이 눌러앉기 시작했어요.(웃음) 여기 살면서 애들 얼굴이 피는 걸 보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싶었죠.”

청솔 스님도 처음엔 지금처럼 많은 유기동물과 함께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개시장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유기동물이 너무 많았다. 그 모습을 보고 냉정히 돌아서자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조금은 비좁더라도 끼니 걱정, 죽을 걱정 없는 곳에서 함께 살아보자는 마음이 지금의 견공선원을 만들었다. 그렇게 청솔 스님은 모든 공간을 유기동물에게 내주고 방구석 작은 침대에서 매일 견공들과 잠에 든다.

> 비구니스님 혼자 쉼터 세워
> 수년간 유기동물 구조 펼쳐
> 입양 보낸 견공만 300마리
>
> ‘케어 사태’에 대중 멀어져
> 재정적 어려움 부딪혔지만
> 유기동물 관심 끊이지 않길

우리나라, 품종 편견 사라지길

청솔 스님이 지금까지 구조하고 해외입양 보낸 유기견은 무려 300마리에 달한다. 이달 중으로만 7마리가 캐나다와 뉴욕으로 입양 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 필요한 병원비부터 중성화비, 접종비, 항공료까지 전부 스님이 부담했다. 한 마리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한 일이다. 청솔 스님은 사천 내 다른 사찰의 기도와 불공을 도우면서 월 100만원이 조금 넘는 보시를 받아 충당하고 있다.

다행히 사료나 물품후원이 이따금 들어오고, 지난해 방송출연 이후에는 한동안 재정적 후원도 이어졌다. 물론 후원금은 유기견들의 병원비로만 사용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 초 ‘케어 사태’ 발생 이후 뚝 끊어졌다. 유기견을 인편(人便)으로 해외에 입양 보내면서 항공료를 절약하던 것도 사람들 관심이 줄어들어 화물로 대체해야 했다. 스님은 “사람에게 부탁해 보내면 20만원에 해결되지만 화물로 보내면 50~60만원이 들어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심지어 방송 보고 견공선원을 찾아와 반려견을 유기하고 가는 사람들까지 생겼다. 그렇게 청솔 스님에게 남은 건 카드빚이었다.

“아휴, 돈 생각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게 다 인연이잖아요. 청소 · 목욕 도와주는 봉사자분들도 오시고, 무엇보다 애들 밥은 안 굶게 사료 후원도 들어오니까요. 다만 국내입양이 너무 안 돼서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기견도 품종견 아니면 안 데려가거든요. 다행히 해외는 품종에 대한 편견이 없어서 입양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청솔 스님은 많은 걸 바라지 않았다. 그저 불자들이 인과법을 잘 새겨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다. 또 되도록이면 펫숍에서 동물을 구매하기보다는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타 스님 법문집에 나오는 ‘제선 스님과 강아지 이야기’를 전했다.

제선 스님은 일타 스님이 손꼽는 고승이었다.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며 독립운동을 펼쳤다. 제선 스님이 일본 친척아저씨 집에 머물던 어느 날, 오랫동안 함께한 개가 아프기 시작했다. 제선 스님은 교외에 개를 버려달라는 친척아저씨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줬다. 그리고 세 달이 지나 제선 스님은 집 앞에서 그 개를 다시 만났다. 버려진 개는 제선 스님을 섬뜩한 눈빛으로 쏘아보고 사라졌다. 국내로 돌아온 제선 스님은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아들은 국민학교 입학 후 갑자기 죽었다. 슬픈 마음을 안고 전국을 떠돌던 제선 스님은 묘향산에서 한 스님을 만나 아들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스님은 “기도를 해보라”고 권했고, 제선 스님은 7일간 잠도 자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그러자 죽은 아들이 눈앞에 나타났다가 일본에서 버린 개로 변했다. 인과의 법칙을 깨달은 제선 스님은 그길로 출가해 높은 경지를 이뤘다고 한다.

“누군가는 왜 사람 구조 안 하고 동물 구조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람은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동물은 아무 말도 못해요. 분별심으로 동물을 대하면 안 됩니다. 불자들은 인과를 알고 복을 지어야 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에게 밥 한술 주는 것, 비를 피할 장소를 제공하는 것. 부처님에게 복 달라고 암만 빌어도 지은 게 있어야 받지 않겠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단순히 TV프로그램 이름만이 아니다. 동물의 행동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고, 이를 나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견공선원은 유기견들에게 극락정토와 같다. 이곳에서 청솔 스님은 유기견들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다. 이런 스님을 향한 유기견들의 애정공세는 멈출 줄 모른다.


견공들에게 밥 주고, 청소하고, 빨래하다보면 청솔 스님의 하루가 저문다. 견공들도 그 정성을 알기에 스님을 핥으며 감사를 표한다.


칠판에 빼곡히 적힌 견공의 이름. 무림이 · 무군이 · 무령이…. 청솔 스님은 80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 이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외운다.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전화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www.한마음유치원.kr

마음愛 자비를! 2019년 부처님 오신 날 세상愛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 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9599-2095



유기동물과 불교 3人3色 전문가 제언

올해 초 '케어 사태' 발생 이후 사회화두로 떠오른 유기동물 문제. 사회 각 분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교계는 어떤 자세를 갖추고 역할을 모색해야 할까? 불교계 전반의 역할과 윤리적인 시각, 법 · 제도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윤호섭 기자

'自他不二'를 인간 아닌 동물에게도

"불자부터 유기동물 입양운동 실천을"

불교역할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우리나라에서 유기동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앞장서서 우리사회 생명의식을 높여야 하는 불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유기동물을 살리는 데 불교가 힘을 쏟는다면 보다 젊은 불교, 살아있는 불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물관련 생명과학과 윤리에 대해 일평생을 연구해온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유기동물에 관심이 적은 종교계에서 불교가 가장 먼저 나설 것을 주문하며 이 같이 말했다. 우 교수는 현재 동물을 바라보는 종교계 시선이 생명존중을 표방하고 있지만 일반사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근대를 넘어 생태를 지향하는 시대가 됐다. 부처님도 삶의 현장에서 중생의 고통을 살피고, 이고득락을 향한 방편을 수없이 말씀하셨다"며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 생명과 함께하는 불교가 유기동물을 위한 활동을 펼치지 못해 안타깝다. 불교계 장기기증 홍보단체가 있듯이 뭇 중생에 대한 불교 가치를 실현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 교수는 '케어 사태' 촉발 이후 대두된 유기동물 문제가 한국불교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시대 그리고 다음 시대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종교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의 지위를 사람과는 다른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라는 점에서 물건으로만 보는 인식은 한계가 있다"면서 "물론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둘 사이 어느 경계에 점을 찍어야 한다. 이것이 불교계 논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이어 반려동물에 대한 국내 인식이 소득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반려인들의 의식을 성숙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교계 내부에서 먼저 반려 ·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교육이 이뤄지고, 불자들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운동이 전개되길 희망했다.

우 교수는 "유기동물 문제는 단순히 윤리 ·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인 보건 개념도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제시하고 있다"며 "같은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했던 노예제도, 남성과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여성의 권리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한 것처럼 동물에 대한 개념도 바뀌게 된다. 불교도 이제는 국민의 의식 변화를 이끄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물 유기는 또 다른 살생"



불교윤리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가 살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분명 살생입니다. 자유를 준다는 자기합리화일 뿐이죠. 놓아주는 행위도 조건과 맞아야 방생입니다."

불교생명윤리학자인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의 흔한 자기합리화가 살생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용어만 바뀌었을 뿐 인간과 동물의 전형적인 주종관계를 벗어나진 못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반려동물을 들이는 이유 대부분이 개인적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동물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 즐겁기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다. 결국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 접근으로 인해 유기가 발생한다"며 "유행처럼 번진 반려동물 문화가 과연 긍정적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 체계적인 교육을 거쳐 개개인의 소양을 점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허 교수는 이어 믹스견보다 품종견에 집착하는 국내 반려동물 인식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명품을 좋아하고 비싼 차를 자랑하는 것과 품종견에 집착하는 행태는 천박한 도덕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동물관련 산업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질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문화가 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이런 편견은 인종차별과 다를 바가 없다. 나이 들거나 병든 동물을 버린 뒤 죄책감을 덜어내고자 새 반려동물을 들이는 행위도 빗나간 사랑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반려동물이 생명체 중 인간과 가장 가깝게 사는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배려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동물을 돕고 싶지만 직접 기를 능력이 되지 않는 이들도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반드시 동물을 기를 능력이 있어야만 유기동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유기동물 구조 · 보호활동을 펼치는 단체에 경제적 여유가 되는대로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면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다. 나와 다른 존재를 단순히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면 유기동물 문제 해소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시설 확충, 종교 도움 필요"

법 · 제도 김태림 동물법학회 회장

"불교는 여러 종교 중에서도 생명존중사상이 두드러집니다. 불교계가 유기동물에 관심 갖는다면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동물보호시설을 세우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효과는 배가 되겠죠."

동물관련 법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단체인 동물법학회 김태림 회장은 국가와 민간단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불교계가 시설운영 등으로 힘을 보태줄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먼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동물권리보다는 동물관련 산업에 치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데 집중돼 있다. 무엇보다 개인 간의 동물분양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유기하거나 파양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며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도 의무만 있을 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동물보호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케어 사태'가 한편으로는 동물 구조 · 보호활동이 저변화되지 못해 특정 단체에 몰리면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사설보호소를 비롯해 개인 분양도 법적 규제 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법을 어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입는 피해가 미약해 법 준수 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미흡한 것들을 탓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된 만큼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동물에 대한 모범적인 서구권 제도에 주목할 것을 당부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은 펫숍이 존재하지 않고, 반려동물 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반려동물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만 들일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강아지공장과 같은 곳에서 길러진 반려동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반려동물도 유기동물이나 국가자격증을 갖춘 사육사가 기른 동물만 입양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외국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참고할 만하다. 다만 반려동물관련 산업군 종사자들의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사회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불교계가 중도적인 관점에서 사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 법과 제도, 산업, 종교 등 각 분야에서 논의를 이어가다보면 결국 하나의 틀 안에서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처님오신날 - 2019년 -

"세계명상대전 개최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참불선원

WORLD MEDITATION CENTER CHAMBULSEONWON



조 실 보광
선원장 각산
신도회장 원담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994-5 수안빌딩 2층~4층
☎ 1577-3696

‘화쟁형 인재’ 양성해 글로벌 대학 발돋움

동국대, 개교 113주년 기념식서
비전 ‘Energize Dongguk’ 선포

5개 영역, 28개 과제, 64개 사업
불교산업진흥원 등 건학이념 구현
대학 기관 연구 경쟁력 강화 집중
창업원 개설… 학생 창업 독려도



윤성이 동국대 총장이 5월 2일 중강당에서 새로운 비전이자 프로젝트 ‘에너자이즈 동국’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새 비전이자 글로벌 프로젝트인 ‘에너자이즈 동국(Energize Dongguk)’을 선포합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새로운 비전이자 프로젝트 ‘에너자이즈 동국’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동국대는 2030년까지 국내 5위권 대학 진입,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국대는 5월 2일 교내 중강당에서 개교113주년 기념식과 ‘에너자이즈 동국’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동국대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에너자이즈 동국’은 2030년까지 진행되는 비전2030 ‘미래 사회를 선도해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의 1단계 사업으로 2022년까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동국대는 국내 5위권, 세계 100대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동국대는 ‘소통과 화합’, ‘존중과 포용’, ‘기여와 참여’를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가치로 삼았다. 이는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불교계 등 구성원들 모두가 합심하여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다. 윤성이 총장은 총장 후보 시절부터 ‘소통과 화합’을 동국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프로젝트의 구체화를 위해 동국대는 지난해 8월부터 학생, 교직원 등의 의견 수렴하고 올해 2월부터는 역량강화평가단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4월에 비전과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이날 선포된 동국대의 발전 계획 ‘에너자이즈 동국 프로젝트’는 ‘공헌으로 존경받는 글로벌 동국’을 비전으로 해, ‘전후방 견인’, ‘다원화’, ‘통합·연계’ 등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건학이념 △교육공헌 △연구공헌 △산학협력 △지속경영의 5개 영역에서 총 28개 과제, 64개 사업이 제시됐다.

융복합 등 불교교육 내실화 추진

‘지혜·자비·정진’이 교훈인 동국대는 조계종립대학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사학이다. 프로젝트 영역 중 하나인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동국대는 불교교육의 내실화 강화를 추진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 전반적인 수요자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불교 교과목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불교와 IT의 결합 등 융복합 불교 교과목 개발도 눈에 띄는 사업이다.

동국대는 불교산업진흥원을 설립해 불교 기반 사업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동국대가 가지고 있는 불교문화와 관련된 역량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불교 학술사업 추진위원회’를 신설해 국고지원사업 유지 및 신규 진입 전략도 수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불교학 발전을 위해 국제불교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된 불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불교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동국대 양성 인재는 ‘화쟁형 인재’

동국대가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은 ‘화쟁형 인재’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융복합형 인재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까지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과 또는 대학별 교육과정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실천적 융합교육으로 개편한다. 4차 산업혁명 교육과정 시범적용 학과를 계열별로 선정하고, 선정된 학과별로 SW학문을 적용한 교과목도 개발한다.

대학 교육 패러다임 변화요구에 따라 교육혁신 전담조직도 설치된다. 화쟁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선도적 학제모델을 개발하고 학사제도를 유연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과 및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과별로 자율적 교육과정기반을 마련, 학사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적용학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목표제시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품질과 학생역량 보장체계도 운영한다.

세계 100대 학과 육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동국대는 대학의 전체학문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문단위를 발굴,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갖춘 학과를 배출한다는 목표다.

글로벌 수준 연구경쟁력 확보

‘연구공헌’ 영역을 통해 동국대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집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연구 분야를 전담하는 연구부총장을 신설했으며, 학술연구 및 산학협력 기능을 체계화 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교원 상시 추천과 관리를 위한 ‘Core faculty’ 인력 풀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구실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조기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학생 창업보육 원스톱 지원

산학협력 영역을 통해서는 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내 스타트업 육성이 활발한 동국대는 창업 교육·진흥·보육 등 대학 내 창업 관련 기능을 통합해 학생들의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구부총장 산하 ‘창업원’ 신설하고 산하에 청년기업가센터, 창업진흥센터, 창업보육센터, BMC 창업보육센터를 둔다.

특히 연구부총장 산하 연구처, 산학협력단 등과 연계해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점도 주목된다.

기금 모금, 소통 기능 강화

동국대는 자율책임 경영을 위해 기민한 행정조직을 구축했다. 연구부총장제도 신설, 교육혁신처 신설 이외에도, 대학 전체의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해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IR(Institutional Research)팀’을 신설했다.

또한 구성원과의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유대감 및 공감대 형성에 집중해 대학 발전에 모든 구성원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학의 재정 확충과 로터스관 등 교육연구시설 건립을 위해 30만 동문과 불교계, 일반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도 기부금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모금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에너자이즈 동국’을 통해 동국대가 삼은 구체적 목표는 △제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 지정 △국내 대학 10위 진입 △10개 학과 세계 100위권 진입 등이다. 또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현 92개서 120개로,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78%에서 85%로, 외국인 학생 유치를 55개국 1600여 명에서 65개국 1800명 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공헌으로 존경받는 글로벌 동국’을 비전으로 60여 개의 중점 사업들을 통해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며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형 학사제도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혁신처’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중점학과들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해 세계 100대 학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산업진흥원’을 설치해 종단과 협력해 불교관련 학술과 연구를 다각도로 사업화하고 불교종립대학으로서 건학이념을 구현함과 동시에 학교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면서 “학문으로만 머물던 교내 연구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기술사업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개교기념식 행사는 △근속상 수여 △동국학술상·우수연구자상·우수논문상·대학원학술상 수여 △공로상 수여 △동국사랑 어워드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 수여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윤성이 총장, 이사 법산 스님, 박대신 총동창회장, 박종수 현대불교신문 사장, 불교신문 사장 진우 스님,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김형중 동대부여고 교장 등 내외빈 400여명이 참석했다.

Energize Dongguk 프로젝트 체계도

비전 공헌으로 존경받는 글로벌 동국

건학이념	교육공헌	연구공헌	산학협력	지속경영
불교 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국제화	핵심역량을 갖춘 화쟁형 인재 양성	글로벌 수준 연구 경쟁력 제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가적 대학	자율책임경영 체계 구축 및 인프라 혁신
• 불교산업진흥원 설치 • 융복합 불교 교과 개발 • 불교 학술사업 추진위 신설	• 교육혁신처 신설 • 융복합 교과목 개발 및 운영 • 학과 자율역량 강화	• ‘Core faculty’ 인력풀 • 융복합 연구 인프라 구축 • 교원 연구년 제도 개선	• BMC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 • 현장 기반 교육 활성화 • 산업체 수요 발굴	• 기부금 모금 대상 확대 • 자율책임기반 행정조직 개편 • 성과평가 제도 개선

28개 핵심과제 · 64개 중점사업

부처님오신날 - 2019년 -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안정사)

주 지 해경
총무/교무 상진
재 무 심곡
서무/원주 벽산
사무처장 효능
복지문화팀장 철오
대 중 도암,지홍,일구
보휴,지봉,일효
일명,지휴,혜명
업무국장 한은옥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경리계장 공성희(여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Tel 031)836-2439, 1080 / Fax 031)836-1081
www.bluelotus-temple.co.kr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상진
이 사 해경
지홍
심곡
벽산
거진
효능
최종남
이종수

태극권 · 불교명상… 몸 · 마음 건강해져요

승가결사체가 뜬다 청암바라밀 태극권 강좌 현장

청암사 1997년부터 태극권 수련
2012년부터 학회 · 협회까지 운영
김천 內 학교 · 교육원서 수업 진행
대기자 100명… 종교 떠나 '인기'

태극권 · 명상 병행으로 집중력 강화
"태극권, 움직이는 禪… 명상 같아"

김천=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천히 팔을 올리고 몸에 힘을 뺍니다. 눈은 앞을 보고 어깨는 내립니다."

기세(起勢)부터 야마분종(野馬分鬃), 단편(單鞭)까지. 비구니 스님의 태극권 투로가 이어지자 학생들은 일제히 다리를 벌리고 섰다. 마치 춤을 추듯 스님은 부드럽게 동작을 이어갔고 학생들은 일제히 몸을 움직였다. 천천히 움직이지만 기마 자세로 몸을 낮춰 다리 근육은 금방 떨렸고 학생들의 얼굴엔 어색한 듯 부끄러움도 묻어나지만 눈빛만은 진지했다.

청암사(주지 상덕) 청암바라밀전법회(이하 청암바라밀)는 4월 22일 김천 지품천 중학교에서 태극권 수업을 진행했다. 청암바라밀은 청암사 비구니 스님들이 태극권으로 포교활동을 펼치는 전법단이다. 스님들은 현재 매주 월요일마다 지품천 중학교를 방문, 전교생을 대상으로 태극권 수업을 진행 중이다.

청암바라밀은 조계종 교육원이 인증한 승가결사체다. 지난 2018년 6월 1기로 인정된 이래 올해도 2기 인증을 받았다. 태극권을 통한 생활불교지도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태극권 수업에 앞서 학생들은 반가부좌로 앉아 눈을 감았다. 명상을 위해서다. 스님들은 학생들을 바른 자세로 교정해주며 호흡을 바라보도록 유도했다. 명상 시간은 10분. 아이들은 큰 무리 없이 고요하게 호흡을 바라본다.

"기세." 명상을 마친 후 스님이 외치자 아이들은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기마자세를 갖춘 후 팔을 들어 올렸다. 스님의 투로에 맞춰 아이들은 몸을 천천히 움직였고 적당한 긴장감은 묵직한 힘마저 느끼게 했다.

수업 후 학생들은 느린 동작 속에 오히려 건강과 평안함을 얻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남승윤 학생(3학년)은 "느리게 움직이면 운동이 될까 싶었는데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 운동도 많이 된다. 스님께 태극권을 배우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라며 "특히 명상 시간은 마음이 고요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조민아 학생(3학년)은 "1학년 때부터 태극권 수업을 받고 있다. 다른 운동들은 대부분 민첩함을 요구하는데 느긋해서 스스로가 안정되고 명상시간을 통해 하루를 돌아 볼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암바라밀 대표 도국 스님은 청소년기 바른 성장을 위해 태극권은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라 강조했다.

스님은 "태극권은 혈기가 왕성한 아이들에겐 심심한 운동일 수 있다"며 "하지만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에 명상과 태극권은 뇌 발달에 도움을 줘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돕고 창의성이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청암바라밀은 현재 대덕초등학교에서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 중이다. 도국 스님은 태극권 수업에 앞서 진행하는 명상은 아이들의 집중력 강화 효과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산만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는 명상은 힘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7주차를 맞아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놀랍다"라며 "아이들 가운데 명상 중에 정말 집중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호흡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다.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외에도 청암바라밀은 성인을 대상으로 거창군 삶의 쉼터와 김천시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서 태극권을 가르치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특히 인기가 높아 인터넷 접수는 2분 만에 마감되며 방문 접수도 새벽 3시부터 줄을 설 정도다. 현재 대기자도 100명이 넘는다.

강의 추가 개설 요구가 빗발치지만 스님들은 자신의 본분인 수행 시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스님들이 태극권을 가르치지만 불자들만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일반인 수업 참가자의 종교는 대부분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가 주를 이룬다.

도국 스님은 "종교를 언급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히려 삶의 애환을 털어놓고 마음을 나누는 경우가 있다. 거부감 없이 불교 행사에도 참여하며 태극권 수업을 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포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극권은 특히나 어르신들에겐 탁월한 운동이다. 코어 강화와 다리 근육을 높여 건강한 활동을 가능하도록 돕는다"고 덧붙였다.

태극권으로 대중 포교에 나선 청암바라밀회는 청암사만의 승가교육에서 비롯됐다. 청암사는 1997년부터 승가대학 학인들에게 태극권을 수련토록 했다.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이 학인 스님들의 건강한 수행생활을 위한 방편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국불교 승가대학에서 태극권을 수련하는 곳은 청암사 승가대학이 유일하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시작된 청암사 대중 스님들의 태극권 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취월장했다. 청암사 스님들은 지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생활체육전국우슈대회에서 태극권 부문 전국 종합 우승을 거뒀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높은 성적을 얻고 있다.

(사)대한태극권학회와 (사)대한태극권협회가 지난 2012년 전라북도에서 경상북도로 이전한 후에는 학회와 협회를 청암사에서 주관하게 됐다. 현재 대한태극권학회장은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이며, 주지 상덕 스님이 대한태극권협회장을 맡아 태극권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2013년부터는 심판을 배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유단자 450여 명과 8명의 스님이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 이사인 도국 스님은 태극권은 불교 명상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포교 방편으로 탁월하다는 설명을 첨언했다.

"태극권은 포교 방편으로 무엇보다 뛰어납니다. 대체의학으로도 좋은 결과가 많지만 태극권 자체가 움직이는 선(禪)과 같습니다. 불교 수행하고 빗대어 말하자면 위빠사나와 사마타의 조화 속에 사념처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태극권을 하고 있으면 몸은 움직이지만 입정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국 스님은 태극권 포교 과정에서 종단 승가결사체로 인정받고 지원까지 이뤄져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종단의 도움으로 지품천 중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강의에서 만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간식과 소정의 선물로 문화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능력 여하에 따라 도복이나 병장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태극권을 더욱 널리 알려 스님들의 건강과 포교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www.smilebangsu.co.kr NAVER 스마일방수 검색

원각사 정대스님이 적극 추천

지긋지긋한 방수공사
완·벽·시·공





주택/아파트/빌라/공장 등 건물바닥/벽체 방수 전문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자부심

스마일방수
부산시 수영구 구락로 43번길 25

- 비 새는 곳 100% 방수 시공 전문
- APT, 주택, 거실, 방, 베란다, 천정, 크랙, 누수 전문 방수 공사
-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및 실내 에폭시 방수 전문
- 폴리 그라우팅(인잭션 방수)

시공 문의 051)754-0469 · 010-8534-9197

부산일보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제 22403호 19

현장서 쌓은
방수 시공 기술력
'국내1인자' 자부



스마일방수의 오상순 사장은 "하자보수의 핵심은 신용과 성실"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수영구 스마일방수는 20년간 방수 분야에 주력해 온 기업이다. 한 분야에서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술력이다. 현장에서 쌓아 올린 시공 노하우가 경쟁력인 셈이다.

스마일방수 오상순(60) 사장은 "20년 현장을 누볐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웬만하면 누수 지점이 어딘지 감이 온다. 건축물의 기본구조를 파악하면 누수 시나리오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는 경험이 쌓인 결과다"라고 말했다.

2000년 2월 스마일방수를 창업한 오사장은 창업 전에 대우건설 A/S팀 등에서 일하며, 현장의 기술력을 쌓았다. 그중에서 가장 자신 있었던 분야가 아파트 누수를 잡는 방수 기술이었다고 한다.

직접 사업에 뛰어든 이유를 오 사장은 "수요는 무한한데, 이때만 해도 방수분야에 정통한 기술자가 없었다. 나만의 기술을 시장에 보여주고 평가받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창업으로 바빠졌지만,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오 사장은 자평하고 있다. 실수 없는 방수작업 뒤 의뢰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보람이 크다고 한다. 큰 기업은 아니지만, 방수 분야 기술 하나만은 '국내 제1인자'라는 자부심도 생겼다.

스마일방수 고객 대부분은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오 사장은 금전적인 문제보다 완벽한 시공을 중요시하는 경영철학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방수전문 시공만을 고집하며, 한 분야를 파고들어 노하우를 쌓은 것도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첨가약제와 자재는 특별한 것을 사용하고,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 방수시공이 실패할 때는 비용을 안 받거나 전액 환불해준다.

스마일방수는 주택, 아파트, 빌라, 공장 등 모든 건축물을 시공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공 때에는 폴리그라우팅인젝션 기법과 'WS4000 1액형' 지수발포약제를 사용한다. 벽체와 천장 균열보수 및 외벽 방수는 그라우팅기법, 옥상 방수는 우레탄시공(도포), 실내주차장과 공장 바닥은 에폭시 기법으로 시공한다.

또 통상 평당 10만 원짜리 옥상 우레탄 시공엔 하도·중도·상도의 도포를 하지만, 스마일방수는 반드시 4차례의 도포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특히 마지막 도포 작업엔 햇빛 방지용 탑코팅제를 반드시 발라줘 완전한 방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오 사장은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꼼수는 부리지 않는다"며 "신용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백상 기자

승가결사체가 뜬다

왜 승가결사체인가



4월 29일 열린 조계종 교육원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결사체 스님들이 활발한 전법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박재완 기자

‘전법=수행’ 패러다임 상기시키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가(僧伽)’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부처의 가르침을 믿고 불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나 세 사람 이상의 화합된 무리’다. ‘결사(結社)’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체’를 말한다. ‘승가결사(僧伽結社)’는 ‘불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공동 목적을 위해 결성한 단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최근 불교계 안팎으로 꾸준히 회자되는 ‘승가결사’가 있다. 바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추진하는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 인증 및 지원 사업’의 인증을 받은 결사체다.

지난 2017년 12월 제정된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은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을 종단 승려 연수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처음 시행돼 현재는 2년 차를 맞고 있다.

교육원이 규정한 ‘승가결사체’는 구족계를 수지한 조계종 스님 4인 이상이 전법교화활동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말하며, 법인 및 영리단체를 제외한 비영리 임의단체로 한정한다.

‘전법교화활동’은 △어린이·청소년·교도소·다문화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호스피스,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인권·노동·환경·통일·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참선·선무도·지화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등을 말한다. 전법교화활동에는 재가불자가 참여해도 무방하다.

교육원은 승가결사체 소속된 스님들에게는 연수점수 50점을 부여한다. 1, 2,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연평균 30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법교화활동이 연수이수로 인정되는 것은 스님들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승가결사체의 활동에 따라 교육원은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필요시에는 자료제공과 행정협조도 이뤄진다.

강의를 넘어 현장 속으로

조계종 교육원이 승가결사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교육원은 연수 교육을 개편해 △자원봉사활동 △강좌형 △체험형 △순례형 △인증교육 등으로 분류·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장 실천이 강조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일선 스님들의 전법교화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교육원은 수차례의 논의 끝에 적극적인 대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형 연수 제도인 ‘승가결사체’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

교육원 관계자는 “연수교육을 강의 듣는 것으로만 한정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연수의 목적이 전법교화역량 향상에 있다면, 실제 현장에서 전법교화활동을 펼치는 것도 연수로 이해하고, 오히려 더욱 장려해야 한다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평소 지론이 투영됐다”고 설명했다.

종단 인정·지원 ‘환영’ 목소리

‘승가결사체’ 사업은 스님은 물론 불교계 안팎으로 많은 호응이 있었다. 1기에는 19개 단체가 인증을 받았지만, 올해 2기에는 24개 단체로 확대·인증됐다. 지원 예산 규모도 지난해 8000만원에서 올해는 1억4000만원으로 늘렸다.

1,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총 3곳으로 △영국 현지 교민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비스트 페스티벌(Harvest Festival)등에 참여해 전법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터스 마인드(Lotusmind)’ △여성 청소년 교정교화에 앞장서고 있는 ‘안양계’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다함께 나누는 세상(다나)’이 선정됐다.

2018년부터 시작된 승가결사체
4인 이상 스님들의 전법 모임들
조계종 교육원 연수 인증·지원
1기 19개서 2기 24개로 확대돼
종단 차원 결사체 지원은 최로
‘종단 인증’에 재정 지원 큰 도움
지속 운영·포교원과 연계 ‘숙제’

이밖에도 700만원 8곳, 500만원 9곳, 300만원 3곳 등 총 23곳의 승가결사체에 전법교화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승가결사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 각계 분야에 걸쳐 전법교화활동을 하는 스님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선정된 결사체들은 호스피스, 국제구호, 심리치료, 청소년 교정교화, 걷기명상, EM 환경활동 등 그 영역이 다양하다.

‘다함께 나누는 세상(다나)’, ‘마하보현승가회’, ‘영차영차’ 들은 구호활동 분야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며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우들을 살피는 ‘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 ‘생사일여회’도 있다.

어린이·청소년·대학생 포교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와 ‘순천불교사암연합회 인연’, ‘세간해연구소’도 승가결사체에서 활동 중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을 전파하는 ‘찾아가는 법당 붓다와 달마’와 걷기명상 등으로 일반인에게 불교적 심신수련을 도모하는 ‘제주섬 꼬라 순례단’도 눈길을 끄는 승가결사체다.

환경보호를 위한 EM쌀뜨물 발효기 보급으로 친환경적 사찰 운영에 앞장서는 한마음선원의 ‘EM 지구사랑 작은 실천’은 승가결사체 중 유일하게 환경운동 활동을 하고 있다.

수륙재 활동을 통해 불교문화를 알리는 ‘부여수륙재보존회’, ‘경산수륙회’도 승가결사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무일 스님은 “전법교화에 원력을 세운 스님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종단 차원에서 전법교화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예산까지 지원해 더욱 큰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됐다는 반응이다. 종단에 대한 애종심과 신뢰와 믿음이 더 커졌다”고 자평했다.

승가결사체 앞으로 과제는

승가결사체에 참여하고 있는 스님들도 승가결사체가 전법교화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순천대 불교동아리 ‘연’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순천사암련 ‘인연’의 도운 스님은 “승가결사체의 지원금이 마중물이 돼 점심법회, 해외문화탐방 등 새로운 포교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함께 나누는 세상’ 대표 탄경 스님은 “‘종단 인증’이라는 표식이 많은 도움이 된다. 대중들의 관심이 많아지니 후원도 이전보다는 늘어났다”고 말했다.

시행 2년 차인 신생 사업이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숙제도 있다. 바로 사업의 지속성과 유관 기관과의 연계다. 특히 포교원과의 연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장 성원 스님은 “결사체와 포교원 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분야별 전법 포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결사체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자율성을 담보한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적 틀에만 맞추려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에 무일 스님은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이 질적 성장을 이루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포교원과 함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교육원에서 배출한 전법사 스님들을 포교원과 연계해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독려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처럼 결사체 전법교화활동도 서로 연계·운영할 부분은 연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의 목표는 승가결사체가 지원을 마중물 삼아 더 확대된 전법 조직으로 성장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스님들이 자비보살행을 펼치는 승가결사체를 조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전법교화활동을 펼치는 결사체가 많이 설립되고 종단의 역할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기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일체제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대행선사법어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승가결사체가 뜬다

작지만 강한 원력 공동체들 (上)

승가결사체 활동 하나에 호남 대학 포교 '대변화'

대학생 포교 활동하는 순천사암연 '인연'

2017년 부원 6명이었지만
올해에는 37명으로 늘어나
점심법회 · 해외탐방 '인기'
결사 지원금 마중물 역할

순천불교사암연합회 '인연'의 활동 분야는 대학생 포교다. 지역사암연합회 산하의 승가결사체인 만큼 선택과 집중도 명확하다. 오로지 순천대 불교학생회 '연'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지원 결사다.

시작은 이렇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포교국장 도운 스님이 지난해 4월 교육원이 주최한 출가지도법사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승가결사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됐다. 도운 스님은 평소 대학생 포교에 관심이 많았던 스님들과 의기투합해 순천지역사암연합회 산하에 '인연'이라는 결사체를 만들고 1기 승가결사체로 선정됐다.

순천사암연 '인연' 활동은 복잡하지 않고 명확하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순천대 불교학생회 '연'의 점심법회를 결사체 스님들이 번갈아 주관한다. 법문과 덕담, 그리고 불교상식 퀴즈 대회 등 놀이가 이어진다. 맛있는 점심 한 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2014년 부임한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가 불교학생회의 지도교수를 맡으며 '같이 식사 한 번하자'는 것이 발전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여기에 승가결사체 지원금인 500만원은 불교학생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됐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지난해 연말 결사체 스님들과 학생들은 일본으로 불교문화탐방까지 다녀왔다. 모자란 비용은 결사체 스님들과 지역 사찰들이 십시일반으로 보조했다.

원력을 가진 스님들과 사찰, 그리고 교수의 관심과 지원은 순천대 불교학생회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신입생 0명에 회원 6명이 안 됐던 2017년에 비해 지금은 37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운 스님은 "순천사암연 '인연'과 순천대 불교학생회 '연'의 활성화에 종단 승가결사체 지원금은 말 그대로 '마중물'이 됐다"면서 "송광사 사중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남대 불교학생회 후원에 나섰다. 호남 불교계 대학 포교환경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사암연 '인연'과 순천대 불교학생회 '연'은 중국 서안으로 불교문화탐방을 떠난다. 학생과 지도교수, 스님 등 총 28명이 탐방에 동참할 예정이다.

도운 스님은 "종단의 승가결사체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연결성 있게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많은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의 본분인 전법을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들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순천대 불교학생회 '연' 회원과 순천사암연 '인연' 스님이 함께 있는 모습.

'1寺-1어린이합창단' 꿈꾼다

어린이 음성 포교 나서는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부산 · 제주 8개 합창단 참여
매년 합창제… 新포교 방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연합합창제 모습.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는 지난 2017년 1월 창립을 기념하는 연합합창제를 열고 시작을 알렸다. 당시에는 4개 사찰이 참여했지만, 2년 사이 참여 사찰이 8곳으로 늘었다. 현재는 △안국어린이합창단(안국선원) △대원선재합창단(영도 대원사) △선혜단이슬합창단(관음사) △리틀붓다어린이합창단(제주 약천사) △나모라어린이합창단(황룡사) △보리수어린이합창단(신제주불교대학보리왓) △동림소년소녀합창단(홍법사) △상림어린이합창단(함양 서암정사)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장 성원 스님은 어린이합창단의 활동은 아이와 부모, 사찰에 모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종교보다 상대적으로 노령화가 심한 불교와 사찰에 '젊은 불교'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합창단은 문화 예술을 통해 협력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방편이며, 사찰 운영 단체와 기관들에서 음성공양 봉사를 하면서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다. 어려운 부처님 가르침을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불교 교육 효과도 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결성의 취지이자 목표는 전국 사찰에 합창단 결성을 독려하는 데 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사찰 어린이합창단 창단'에 대한 노하우 전수와 컨설팅을 담당하는 것이다.

성원 스님은 '1사찰-1어린이합창단'을 주장한다. 어린이포교뿐만 아니라 가족 포교도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포교 방편이어서다.

성원 스님은 "사찰에 어린이합창단 창단을 이야기하면 비용 문제로 고민한다. 하지만 사찰에서 부담할 비용은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것뿐이다"며 "합창단은 자체 회비를 통한 자모 모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찰은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창단 자모회와 그 가족은 사찰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어 사찰에게도 좋은 포교의 장"이라며 "사찰 어린이 합창단이 활성화되면 신도 구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원 스님은 승가결사체 사업이 연합회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연합회 활동에 좋은 긴장이 된다는 것이다.

스님은 "연합회는 조금은 느슨한 관계를 가진 조직이라서 활동이 나태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결사체 인증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활동하는 계기가 됐다"며 "전법이 수행이라는 취지도 매우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대행 선사 가르침 따라 환경보존 노력"

결사체 유일 환경운동 모임
'EM 지구사랑 작은실천'

2004년부터 선사 가르침 근거
'EM' 통한 환경운동 적극 전개
자체 개발 발효기 학교 등 보급



'EM 지구사랑'이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서 홍보교육을 하고 교육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야흐로 '필(必)환경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환경이 필수인 시대가 된 것이다. 이는 현재 환경오염으로 인한 폐해가 전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하천과 바다오염의 주원인으로는 생활하수가 꼽힌다. 현재 하천과 바다오염 원인의 60%가량이 생활하수에 의한 것이고, 이중 상당한 비율이 쌀뜨물로 인해 이뤄진다. 생활하수 주요인인 쌀뜨물을 EM으로 바꿔 생활 전반에 활용하는 운동을 펼치는 승가결사체가 한마음선원의 'EM 지구사랑 작은실천'이다. 현재 활동하는 승가결사체 중 유일한 환경운동 모임이기도 하다.

EM(유용 미생물군)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 세균 등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일본 류큐대학 히가 테루오 교수가 개발했다.

한마음선원 'EM 지구사랑 작은실천'은 지난 2004년부터 대행 선사가 설파한 지구 보존의 가르침에 의거한 지구 환경 보존에 대한 실천으로 시작됐다. EM활용은 제주지원에서 활동했던 혜눌 스님이 알렸다. 당시 제주지원은 음식쓰레기 수거가 안돼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인근 마을서 EM운동이 일어났고, 혜눌 스님이 이를 접하고 활용해보니 환경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됐다. 이후 안양본원에도 EM을 알렸고 효과를 인정한 모든 선원의 대중이 빨래와 청소, 설거지 등에 EM을 사용하게 됐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조계종 승가결사체로 선정된 'EM 지구사랑 작은실천'은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14명의 스님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지원과 포항지원이 중심이 돼 대구와 포항지역 학교 및 복지관, 요양원 등에 자체 개발한 EM쌀뜨물 발효기를 보급하기도 했다.

혜눌 스님은 "종단 인증만으로도 내외적으로 EM을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외부활동을 위한 사회환경지도사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불교계가 환경운동에 나서야 한다. 불교 내부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불기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신도회장 이금석
신도회대중일동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TEL 02)2011-1934 FAX 02)732-4550

승가결사체가 뜬다

작지만 강한 원력 공동체들 (下)

“종로 저잣거리서 자비를 배웁니다”

노숙인 구호 나서는 ‘다함께 나누는 세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다함께 나누는 세상’, 줄여서 ‘다나.’ 근래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는 단체다. 단체의 대표인 탄경 스님은 “사람 마음이 재미있다”고 웃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노숙자 구호를 했던 4년여 전만해도 주위에서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선방 가라”는 핀잔이 돌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조계종 교육원 승가결사체 인증 사업에 선정되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좋은 일을 하는 스님으로.

탄경 스님은 “수행의 이유는 자비롭기 위함이다. 그런데 앉아만 있는데 자비로울 수 있는가”라며 “노숙자, 국내 결손가정 돕기, 해외구호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이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할 것도 칭찬받을 것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탄경 스님이 구호를 평생의 수행으로 삼은 것은 2005년 파키스탄 지진 구호 활동을 하면서부터다. 보름 남짓 활동했던 시간은 자비행이라는 서원의 불을 당겼다.

다나의 시작은 2015년 ‘젊은부처들’ 설립준비위가 발족하면서부터다. 그해 네팔 지진피해 구호활동을 진행했고 이후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후속 사업이 이뤄져 왔다. 2017년에는 ‘다나’로 공식적인 단체명을 변경하고 자비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노숙인 구호는 매주 토요일 새벽 3시 30분에 이뤄진다. 컵라면과 주스, 초코파이 등을 담은 음식꾸러미 150여 개를 수레에 담아 서울 종로, 명동, 을지로 일대의 노숙인들에게 전달한다. 전달은 탄경 스님과 네팔 스님 · 노동자, 일반인 봉사자들이 참여한다.


다나 대표 탄경 스님은 매주 토요일 새벽 종로일대 노숙인들에게 음식나눔을 한다.

탄경 스님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노숙자들이 주취폭력자가 많다는 것인데 실제 그런 사람은 10%도 안 된다”며 “종로 거리를 다니며 노숙자들에게 자비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 날이 추워지면 따뜻한 국물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나는 △웅동지역아동센터 지원 △쪽방촌 나눔 활동 △이주민 행복 쉼터 △네팔 교육 지원 △라오스 태양광 발전소 지원 사업 △국내외 이주민 문제 해결 및 지원 △국제연대, 이주현상, 사회적 소수자 연구 △지구촌 평화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탄경 스님은 “종단 승가결사체 사업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비행과 전법교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충분히 긍정적”이라며 “이 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교적 삶과 죽음은 무엇일까

불교 생사관 교육 · 병원 전법 ‘생사일여회’

생사일여(生死一如), 삶과 죽음이 같다는 의미다. 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가결사체인 생사일여회(대표 성범)는 말 그대로 불교적 생사관을 알리고 이를 통해 병원 전법을 전개하고 있다.

생사일여회는 국립경찰병원 법당 등에서 34년 간 병상 전법에 전념한 성범 스님(국립경찰병원 경승실장, 참나선원 주지)의 발원으로 서울시북부병원법당의 해성 스님, ‘정토불교 죽음교육’을 연구하는 성산 스님, 국립경찰병원지도법사 무관 스님 외 3명의 스님이 결성했다.

생사일여회의 주요 활동은 불교의 생사관인 ‘생사불이 · 생사일여’ 의의와 가치에 대한 교육이다. 주요 대상은 병상 전법 현장의 스님들과 전문 봉사자로, 이들에게 ‘웰빙 · 웰다잉 · 웰리버스’를 골자로 한 실천방안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름다운 내생을 향한 여행 프로젝트’ 생사일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올해에는 불교적 완화의료 등 실천 모형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불교적 임종문화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생사일여회를 이끌고 있는 성범 스님은 “병원 전법 활동에서 어려운 점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며 “삶이 배움이라면 죽음 역시 하나의 배움이며 과정이라서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다. 병원 전법 현장에서는 이같은 불교적 임종케어 마인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서 생사일여회가 홍보하고 있다.


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 법사 스님들이 환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임종 앞둔 환자들 마음을 보듬다

호스피스 · 병원포교 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

대구 지역에서 병원포교와 호스피스 포교 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센터장 만경)는 1, 2기 승가결사체 인증을 받은 단체다.

2010년 대구불교사원연합회 부설로 출발해 지금은 센터장 만경 스님을 비롯해 7명의 지도법사단(조계종)과 자원봉사자 80여 명이 활동 중이다. 경북대 병원과 대현 첨단병원, 대구의료원, 대구 한의대 병원 등에서 매주 법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종 환자들에 대한 호스피스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센터장 만경 스님은 “임종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게 하거나 그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라면서 “병원포교를 목적으로 불교 자원봉사자 육성하며 기존 봉사자 보수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 설립 이유에 대해 만경 스님은 특별한 이유보다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고통과 함께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스님은 “센터 지도법사 스님들의 모습만 봐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힘들 때 중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면서 “요즘 스님들은 불자들이 보시할 때만 좋아하고 보시 능력이 상실되면 외면하다가 사후 49재만 챙긴다. 그게 너무 싫었다. 수행자는 빛을 갚아야 한다. 죽음 또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진정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승가결사체 인증 단체 현황

| 강의 · 설법 |

- **찾아가는 법당 ‘붓다와 달마’**
  대표 능학 스님 활동분야 일반인 법회
- **온새미로 붓다**
  대표 담소 스님 활동분야 어린이 · 청소년
- **순천불교사암연합회 ‘인연’**
  대표 보리 스님 활동분야 대학생 포교
- **안양계**
  대표 재마 스님 활동분야 교정교화
- **양천불교연합회**
  대표 탄웅 스님 활동분야 군, 교정교화 등
- **언더스랜**
  대표 미수 스님 활동분야 어린이 · 청소년
- **세간해연구소**
  대표 혜장 스님 활동분야 어린이 · 청소년
- **석림전법단**
  대표 일윤 스님 활동분야 대학생 포교

| 사회활동 |

- **영차영차**
  대표 미가 스님 활동분야 국제구호
- **마하보현승가회**
  대표 덕신 스님 활동분야 국제구호
- **다함께 나누는 세상**
  대표 탄경 스님 활동분야 노숙자 · 국제구호

| 생활불교 지도활동 |

- **자비의 연꽃**
  대표 혜량 스님 활동분야 요가, 명상, 군포교
- **경산수륙회**
  대표 법안 스님 활동분야 수륙재 시연 및 연구
-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대표 성원 스님 활동분야 어린이 · 청소년
- **청암바라밀전법회**
  대표 도국 스님 활동분야 태극권 지도
- **선불교명상아카데미**
  대표 각산 스님 활동분야 참선 지도
- **부여수륙재보존회**
  대표 임하 스님 활동분야 지화
- **EM지구사랑 작은실천**
  대표 혜솔 스님 활동분야 환경운동
- **Lotusmind**
  대표 법전 스님 활동분야 해외포교
- **제주섬 꼬라 순례단**
  대표 제량 스님 활동분야 순례

| 자비보살행 |

- **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
  대표 만경 스님 활동분야 호스피스
-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대표 보림 스님 활동분야 노인복지
- **생사일여회**
  대표 성범 스님 활동분야 병원복지
-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
  대표 법상 스님 활동분야 차상위계층 등

불기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문의 : 민성기업 (구,대진기업)
010-2628-9944

“평화통일 염원 담은 대탑 불사 시동”

‘육지장사 평화대탑’ 건립 4월 26일 고불법회 열어

佛과 1천여 대중 앞서 불사 천명
무영탑 형식의 유리탑으로 설계
10여 사찰 연합 합창단 음성공양
‘관음에 소리-돈오무심곡’ 공연도

양주=김주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10여개 사찰 합창단이 모여서 구성한 1백여 연합합창단원들이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4월 26일 평화대탑 고불식을 기념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고 있다.


김개천 교수가 평화통일 대탑 설계 취지를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개념적 패션 무용 퍼포먼스인 ‘관음에 소리-돈오무심곡’ 공연 모습.


통일대탑 고불문을 낭독하고 있는 육지장사 회주 지원 스님(사진 왼쪽).

“우리는 민족적 숙원인 통일을 이룩하고자 전 국민적 평화의 상징물인 평화 대탑을 육지장사에 건립하고자 발원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과 뜻을 함께하여 휴전선 인근 지역인 양주 백석읍 도리산 육지장사에 1만평의 부지를 마련해 오늘 불사 착공을 알립니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평화대탑 착공식이 4월 26일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에서 열렸다. 25년간 준비해 온 평화대탑 대작 불사가 고불식과 함께 서막을 열었다.

이날 고불식에는 동국대 前 총장 보광 스님,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과 파주 약천사 허정 스님, 스리랑카 와치사라 스님을 비롯해 대탑 설계를 맡은 김개천 국민대 교수, 이희창 양주시의회 의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육지장사 회주 지원 스님은 발기문 낭독을 통해 “우리 민족은 불교가 전래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700년 역사 속에서 불교문화를 계승 발전 시켜왔으며 민족의 고난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민족이 민족의 긍지를 갖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 인류가 추구하려는 보편적 가치이다. 평화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은 통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전 세계인 모두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데 있다”고 많은 불자들이 평화대탑 불사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어 평화대탑 건립추진위 추진위원에 김애주, 황수경 동국대 교수, 이기향 한성대 교수, 안무가 홍선미 삼육대 교수 등 위촉됐으며, 기획위원에는 김개천 국민대 교수, 불사총도감에는 윤선웅 거사 등이 임명됐다.

김개천 국민대 교수는 이번 평화대탑 설계 취지에 대해 “탑은 간절한 염원을 담은 상징물이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전체의 시간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또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시간이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대탑이 존재했다. 미륵사지, 황룡사, 법주사 팔상전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탑의 공통점들을 하나로 모아 이번 평화대탑을 설계했으며, 스스로 빛나 그림자가 없는 무영탑 형식인 유리탑이야말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 같다고 본다”고 탑의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평화 대탑의 기능적인 부분도 설명을 이었다. “모든 사람의 발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지하에는 8만 4천개의 작은 유리탑이 어우러진 탑전, 1층에서 7층까지는 많은 이들의 평화 기원 메시지를 담을 것이며, 마지막 8~9층에는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명상원과 묵상원, 전망대 등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평화대탑 완공 예상 모습이 영상물에 담겨 대웅전에 마련된 빅스크린에 선보이자 참석대중 사이에서는 감탄사가 연발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유리대탑의 장엄한 위용은 말그대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넘어 장관이었다. 높이 77m에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구성된 평화대탑의 모습이 드러나자 일제히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특히 유리기와 등을 통해 흘러나온 빛이 휴전선 인근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영상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김 교수는 부연 설명을 통해 “밤에는 스스로 내부에서 켜진 빛이 유리를 통해 외부로 흘러나갈 뿐만 아니라, 외부서 밝혀지는 불빛들에 의해 탑 스스로도 빛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라며 “이는 평화를 기원하는 간절한 염원이 우리 땅에 널리 퍼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불식에서는 봉원사, 영화사, 법룡사, 수국사, 총지종, 불교방송 등에서 자원 봉사로 모인 연합합창단이 음성 공양을 올려 현장 분위기를 더욱 더 환희심 나게 만들었다. 이들은 ‘우리도 부처님같이’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을 한마음으로 노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희창 양주시의회 의장도 “접경지역인 양주는 남북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평화대탑 불사를 통해 평화통일이 이뤄지고, 대탑이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해 양주의 관광 발전에도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1부 대웅전 고불식에 이어 2부에서는 야외로 무대를 옮겨 한성대 이기향 교수의 지휘로 평화통일 기원 특별 공연인 ‘관음에 소리-돈오무심곡’도 육지장사 앞마당에서 펼쳐져 대중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었다.

이기향 교수는 이번 특별공연에 대해 “오늘 공연은 한마디로 개념적 패션 무용 퍼포먼스라 할 수 있다. 경주 석굴암 11면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불성이 환희함을 상징한 것이다. 신라 김대성이 토함산에 관세음보살상을 만들 때 발원한 통일 염원을 이 자리서 몸짓 언어로 펼쳐 보이고 싶었다”며 “자비를 통한 불성의 에너지가 우주를 메우고, 한없는 보주 모양으로 승화한 이번 환희의 율동을 통해 잠시나마 통일 시대를 느껴봤으면 한다”고 공연 의도를 피력했다.

한편, 육지장사는 이날 고불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평화대탑 불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평화대탑 건립추진위를 구성한데 이어 한국관광공사 및 문화관광체육부 협찬으로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인 공연 및 문화행사를 통해 대탑 건립 취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완공 후 대탑 내부에 기업 전시 공간 제공을 통해 기업 협찬도 이끌어내겠다는 야심찬 구상도 하고 있다. 이번 고불식을 계기로 평화대탑을 건립하자는 열기가 후끈 달아올라 불사건립 과정이 벌써부터 큰 기대를 갖게 만든다. (031)871-6574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200만 부산 불자들이 부처님오신날을 한마음으로 봉축합니다.

회 장 박 수 관
수석부회장 양재생 정창교

2019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임원단

■ 고 문
김재운 박원양 장복만 김재진
박정오 조효식 이윤희 설동근
전광수 박정삼 이시영 이영숙
김동렬 김수현 박대성 왕선자
하정선 정분옥

■ 부회장
국제교류부회장 최금식 사회공헌부회장 박형연
섭외부회장 최영호 총무부회장 박종문
재무부회장 김원용 홍보부회장 이경신
기획부회장 이희태 친목부회장 배상진
문화부회장 이영희 교육부회장 최대경
의전부회장 이보애 경조부회장 신기열
법률부회장 권기우 사찰협력부회장 이동현

■ 자문위원
강경희 공정근 김상훈 김영도 김정화 김종한 노종헌
이장호 안병길 이희길 박무성
마선수 박수곤 박영근 박찬일 박효섭 손정원 손창옥
김영섭 박태학 박한일 전호환
신상해 안병호 여예진 유영남 윤종경 이종우 장인화
정홍섭 박홍대 박순곤 고영립
장호익 정종원 최삼섭 최상곤 최순환 황윤희

■ 집행부
사무총장 장병주
기획이사 김기호 김민성 노현주 국제교류이사 이윤희
총무이사 이현수 배도정 사회공헌이사 정진우 강미영
재무이사 이근욱 법률이사 성원석 홍재석
경조이사 오세룡 교육이사 이륭우 김윤희
의전이사 박태원 정연식 친목이사 안경수 문종헌
홍보이사 손정현 정지원 사찰협력이사 강갑균 박근배
섭외이사 이만수 정임숙
문화이사 이영숙 김민성 집전 류상영

■ 이 사
강근순 강길주 공영석 권혁란
금인순 김광호 김말순 김선일
김성익 김순례 김영자 김진영
김희윤 류강렬 박차수 백정진선
변영호 성재곤 손여래심 안천일
양응모 오미희 유진상 이갑준
이동진 이득재 이명학 이승래
임성구 정관희 정분남 정순천
정태권 지명환 허 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1 정산빌딩 9층 Tel 051)808-8600



독일한마음풍물패와 한마음풍물패 단원들이 풍물놀이 연습 후 활짝 웃고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한독 청년들의 모습이 불교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듯하다.

韓·獨청년의 한마음 풍물 '얼쑤~ 좋다'

독일한마음풍물패 내한공연 현장



풍물 연습하는 독일한마음풍물패와 한마음풍물패.



독일한마음풍물패 최연소단원 '아리'가 장구를 치고 있다.



4월 28일 진행된 한마음선원 장엄등점등식 공연.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얼쑤~ 한바탕 놀아보세!"

4월 28일 안양에 위치한 한마음선원 불교문화회관 특설무대가 신명나는 우리 가락으로 가득 채워졌다. 장단에 맞춰 들썩들썩 하다보면 어느새 흥겨운 봉축 분위기에 푹 빠져든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풍물을 치는 이들이 한국 청년들이 아니다. 눈 푸른 서양의 청년들이 구성진 추임새를 넣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바로 독일한마음풍물패였다.

이날 한마음선원 점등식에서는 독일한마음풍물패와 한마음풍물패가 함께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독일청년들의 풍물솜씨에 대중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독일한마음풍물패는 대행 스님이 1996년 독일에 설립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대행 스님 가르침인 생활참선을 배우고 익힌 학생 9명으로 구성됐다. 한마음선원 신도 자녀들로 구성된 이들은 어려서인 2004년부터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풍물을 익혀왔으며 2017년 본격적으로 풍물패를 창단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개월 전부터 입국해 한국청년들로 구성된 한마음풍물패와 손발을 맞춰왔다.

이들은 3~4살때부터 사찰에서 커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친구들이었다.

재독교포 2세인 이승일(뢸른 국제경영대학) 씨는 "오래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마음합창제에서 처음으로 풍물을 하게 됐는데, 그 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여름방학마다 모여 2주씩 풍물을 쳐왔다. 2017년 김주완 선생님을 지도자로 하여 제대로 배우고 풍물을 배우게 됐다. 처음 시작할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자녀 모임
어려서 한국 알기위해 풍물 배워
2017년 본격적으로 풍물패 창단

때 김주완 선생님이 한마음선원 안양본원팀도 풍물을 가르치니 언젠가 부처님오신날이 오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친구들과 이번 점등식과 제등행렬 등에 같이 설 기회가 있어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이들은 한 목소리로 매우 즐거운 일이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모리츠 에플레(Moritz Epple, 하이델베르크대 석사과정) 씨는 "한국문화, 특히 불교문화는 굉장히 역동적이어서 매력이 있다"며 "연등회 기간 수많은 불자들이 전국에서 모이듯 독일에서 이번 연등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 다니며 모태신앙으로 불교를 믿고 있었다. 9명 모두가 나이 대 또한 동년배거나 한두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15년 음악 공부를 위해 독일로 유학길에 오른 최웅식 씨(뒤셀도르프음대)는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이들 모임에 함께 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최 씨는 "처음 독일 유학생활 동안 생활에 적응을 도와 줄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했다. 비슷한 나이대에 한국문화를 잘 알고 있는 독일 친구들이 있어 큰 힘이 됐다. 대학 진학으로 모두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수시로 연락하며 힘이 되고 있다"며 독일 생활 초기를 회상했다. 또 음대에 진학한 친구들에게는 풍물을 하는 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털어놨다.

어려서부터 불교를 믿었지만 기독교 국가에서 소수종교인으로 사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을까. 이들은 종교적 믿음과 함께 최근 마음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답했다.

한나 에플레(베를린대 교육대학) 씨는 "독일에서는 마음공부, 수행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 불교 가르침 속에는 이러한 마음수행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야콥 슈타찡어(뮌스터대) 씨도 "마음을 어떻게 편하게 하고 다스리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가 일맥상통한다. 부모님의 권유로 선원에 나오게 됐지만 지금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독일지역에서 한국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으면 초청받곤 한다"고 미소를 지었다.

이들의 풍물과 한국사랑에 대해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장 혜진 스님은 "음악과 문화는 동과 서를 뛰어넘는다. 특히 풍물은 한국의 전통음악이기에 동과서와 남과 북을 화합하고 통합하는 좋은 지혜로운 길이다. 명상을 10시간 하라고 하면 못 견디지만 다양한 음악을 통한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린다. 한국에 아이들이 이번에 온 것도 스스로 좋아서 온 것"이라며 "독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자발적으로 모여서 연습하고, 즐기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한국불교계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한마음풍물패는 4월 2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봉축점등식에서 풍물 공연을 펼친데 이어 4월 29일 아내안문화원(옛 황실차문화원)이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인근서 개최한 '동 · 서양 대지에 절하다' 음악회에 초청받아 우중에도 흥겨운 무대를 만들었다.

마음愛 자비를! 2019년 부처님 오신 날 세상愛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 실 현봉 근일
주 지 법산 자현
대학원장 등현

총무국장 성오 기획국장 등목
교무국장 운담 재무국장 구견
사회국장 도선 포교국장 등안

사부대중일동

의성군노인복지관 관 장 휴 담
영주장애인복지관 관 장 도 선
연 화 마 을 시설장 구 견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 장 김성동
안동장애인복지관 관 장 변만호
고운노인요양원 원 장 정명관
의성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옥희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구계리 116) | www.gounsa.net
전화 054)833-2324 | 팩스 054)834-6935 | 사찰음식체험관 054)834-2324



불기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마음 속 나는 누구일까?



우승미 작가의 **봉축 동화**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림 · 김홍인

내 이름은 김선. 10살이야. 사람들은 나를 '써니'라고 불러. 써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야. 태양을 떠올리게 하니까. 태양은 밝고, 환하고, 따뜻하지. 그리고 아주 높이 떠 있어. 모든 것을 내려다본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내게는 모든 것이 다 높이 있어. 엄마 아빠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칠판도, 텔레비전도. 나는 항상 고개를 한껏 젖히고 올려다봐야 해. 내 눈높이에서 보이는 건 아빠의 다리, 엄마의 엉덩이, 친구들의 어깨, 그런 것들뿐이니까.

아저씨의 이름은? ……노을 씨. 와, 이름이 엄청 예쁘네. 노을 씨라고 부르려니까 좀 어색해. 아이들은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노을 씨는 화가구나. 그런데 어째서 그림을 그리지 않아? 노을 씨 스케치북은 언제나 텅 비어 있잖아.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지? 하긴, 화가에게 미술치료라니 좀 웃긴 것 같아.

난 이 교실이 싫어. 그림으로 마음을 읽는다니 정말 웃겨. 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만 여기만 오면 그림 그리기가 싫어져. 내 그림을 보고 이 아이의 마음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판단하는 게 기분 나빠. 그래서 장난을 좀 치지. 태양을 까맣게 칠하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거든.

"요즘 아빠가 써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바보 같지 않아? 난 일식을 그린 건데 말이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봤다면 일식이라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었을 거야. 사람들이 모두 선글라스를 쓰고 태양을 보고 있었으니까.

지금 나를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장난을 치는 거야. 일부러 거인처럼 커다랗게 그렸어. 집도 사람들도 조그맣게 그렸지. 모두 밟아버릴 것처럼 한 쪽 다리를 들고. 눈은 이글이글 불타오르게.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선이는 작은 키 콤플렉스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어." 후후, 웃기지?

나도 알아. 난 심술궂어. 까칠하지. 난 '모난 아이'야. 엄마가 그랬어. 엄마는 이삼일에 한 번씩 학교에 불려왔어. 내가 수업시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친구들을 때리거나 교실 바닥에서 뒹굴며 울 때마다. 한번은 엄마가 학교에 다녀와서 말했어.

"써니야, 좀 둥글둥글하게 살 수 없을까?"

둥글둥글하게 사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난 아이라는 말이 나를 찔렀어. 난 그냥 화가 나서 화를 냈을 뿐인데.

사실 나를 써니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 엄마, 아빠, 담임선생님, 유치원 때부터 내 친구였던 율이. 내 별명은 꼬마, 꼬꼬마, 꼬마 요정. 키가 작아서 붙은 별명이야. 3학년이 되면서 내 키는 100cm가 되었어. 1학년 때는 99cm였고, 2학년 때는 99.5cm였지. 1년에 딱 0.5cm씩 자란 거야. 1학년 때에는 그래도 괜찮았어. 반에서 제일 작긴 했지만 작은 아이들은 나랑 비슷비슷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내 키는 아이들 어깨 아래에 있어. 내년에는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될까.

꼬마라는 말을 들으면 몸속에서 불이 화라락 타오르는 것 같아. 어른들은 말하지. 꼬마라는 별명은 나쁘지 않다고. 그 안에 귀엽다는 뜻이 숨어 있다고. 난쟁이나 고블린 같은 별명보다는 훨씬 다정한 말이라고. 하지만 내 별명은 접힌 말이야. 꼬마라고 적힌 종이를 펼치면 '꼬마 악마'라는 말이 나온다고.

처음에는 내 키를 가지고 놀릴 때만 화가 났어. 화가 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할퀴고, 달려들었어. 그런데 참 이상하지. 화를 내면 낼수록 점점 더 화가 많이 나는 거야. 내가 소리 지를 때 움츠러드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또 화가 나고, 복도에서 어깨가 부딪쳐도 화가 나고,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화가 났어. 아이들은 점점 나를 피하게 됐고, 더는 누구도 나를 꼬마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지. 적어도 내 앞에서는. 그래서 난 또 화가 났어.

3학년이 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담임선생님은 처음으로 담임 반을 맡은 여자 선생님이었어. 정말 예쁘고 상냥했지. 우리는 모두 선생님을 좋아했어. 선생님은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 어떤 경우에도 큰소리를 치거나 무서운 얼굴을 하지 않았어. 내가 말썽을 피울 때도 다정하게 대해주었지.

"우리 써니가 화가 많이 났구나."

"정말 서운했겠다."

"써니도 미안한 마음이 들 거야. 괜찮아. 친구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면 돼."

처음에는 어라, 하는 마음이었지. 그래서 더 심하게 굴곤 했어. 아이들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피를 내고, 팔뚝에 할퀸 자국을 냈지. 의자를 발로 차고, 책상을 집어던졌어. 이래도? 이래도? 나는 자꾸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선생님이 언제까지 나를 참아줄 수 있는지.

> **마음 속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을 거야**
> **화내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겠지**
>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한다면**
>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닐까**

내가 사물함 위에 앉아서 다리를 흔들고 있으면 선생님은 다가와서 나를 꼭 안아 내렸어. '김선, 당장 내려와!' 같은 말은 선생님의 말의 세계에는 없는 말 같았지. 선생님은 대신 이렇게 말했어.

"높은 곳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그렇지? 평상시와 다른 각도로 보게 되니까. 하지만 사물함이 망가질 수도 있어. 또 써니가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선생님은 그게 걱정이 되는 구나."

내가 말썽을 부려도 선생님은 엄마를 학교로 부르지 않았어. 대신 아이들의 엄마들이 학교를 찾아오는 일이 늘었지. 방과후 교실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보았어. 선생님이 준영이 엄마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었어. 이상했어. 선생님이 내 엄마도 아닌데, 어째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선생님은 변함이 없었어. 따뜻한 말과 손길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 나는 화가 나도 참게 되었어.

"화가 많이 났을 텐데 잘 참아 주었구나. 써니는 정말 착하다."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었거든.

그러다가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체육 시간이었어. 우리는 꼬리잡기 놀이를 했어. 한참 동안 웃고 뛰면서 놀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나에게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생각. 선생님이 내 뒤에 붙어 있던 '모난 아이' 꼬리표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착한 아이' 꼬리표를 붙였다는 생각이 들었어. 착해서 착한 아이라고 칭찬한 게 아니라 착한 아이라고 부르니까 착한 아이가 된 게 아닐까. 선생님이 붙인 꼬리표에 나를 맞춰나간 게 아닐까.

그때 준영이가 내 꼬리를 채갔어. 내 꼬리를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어.

"꼬마 꼬마 꼬꼬마, 꼬꼬마 꼬리는 길기도 하지~"

꼬리와 함께 내 뒤에 붙어 있던 착한 아이 꼬리표도 팔랑팔랑 떨어져 나갔어. 나는 달려가서 준영이 가슴팍에 머리를 박았어. 준영이는 꽈당하고 엉덩방아를 찧었지. 그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선생님이 달려와서 내 팔목을 잡았어. 뿌리치려고 했지만 뿌리칠 수 없었어. 선생님이 아주 꽉 잡고 있었거든. 내 몸은 선생님의 다리 사이에 끼어 있었지. 난 그게 무슨 자세인지 잘 알고 있어. 텔레비전에서 봤거든. 엄마가 열심히 봤던, 못된 아이를 착한 아이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지. 엄마가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훈육의 자세.

"놔! 놔! 놓으라고!"

나는 몸부림치며 소리쳤어. 아이들이 뒤에서 수근거렸어.

"아, 무서워. 진짜 악마 같아."

그렇게 말한 건 내 유일한 단짝 친구 율이였어.

나는 선생님에게 욕을 했어. 침을 뱉었어. 선생님은 눈을 꽉 감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

"선생님은 써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진정해, 써니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해, 써니야."

그 말은 나에게 이렇게 들렸어.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이 아이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었어. 손목이 가시가 박히는 것처럼 아팠어. 선생님의 팔을 있는 힘껏 깨물었어. 선생님은 비명을 지르며 내 손목을 놓았고. 선생님의 팔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책에서 배운 것처럼은 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말하고 체육관을 뛰쳐나왔어.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 치료를 받기 전에는 등교할 수 없다고 학교에서 알려왔거든. 이게 내가 여기에 앉아서 바보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유야. 내 마음속에는 정말 악마가 살고 있는 걸까.

"마음속에 악마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악마가 살고, 천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천사가 살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악마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야."

노을 씨는 연필로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작은 물방울 하나를 그렸다.

"나는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작은 물방울이 되었단다. 작고 무겁고 축축해졌어. 내 마음속의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지. 그래서 내 스케치북은 이렇게 텅 비어 있단다."

화가이기 때문일까. 노을 씨가 그린 물방울은 정말 노을 씨를 닮았다. 웅크린 채 비를 맞고 있는 작은 아이 같다. 선이는 가여운 생각이 들어 노을 씨의 연필을 쥐고 물방울 위에 나뭇잎 하나를 그려놓았다. 노을 씨는 사각사각 그림을 그린다. 나뭇잎을 쥐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

"마음속의 내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을 거야. 화를 내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겠지. 어떤 말로 꼭 집어 표현해야 한다면 그건 아름다움이 아닐까."

선이와 노을 씨는 하나씩 그림을 채워 나갔다. 구름과 태양, 새들, 나무, 집과 사람들. 스케치북의 빈 공간에 그림이 채워질수록 연필로 그린 흑백의 그림 속에서 저마다 아름다운 색채가 배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선이도 노을 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텅 빈 교실에는 사각사각 연필 소리만이 정적 속을 흐르고 있었다.

우승미 작가는

1974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200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빛이 스며든 자리'가 당선됐고, 장편소설 〈날아라, 잡상인〉으로 제33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 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 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입종을 환영합니다 전남 장흥 계 암 스님 | 전남 순천 연 오 스님

본 종단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011-870-0021

응답하라 1958, 서울대 불교학생회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는… 1958년 법대 불교학생회로 시작됐으며 1969년 총불교학생회로 다시 태어났다. 1963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을 주도했으며 대학생수도원 개설을 주도했다. 부처님오신날 행사 참여, 구국발원대회 개최(1974), 10.27법난 항거 시위 동참(1980), 야학개설(1980년대), 〈자자〉 발간, 연합수련대회 SANKITI 결성(2002~), '반야프로젝트(2017~)' 등을 이어가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8년 창립 60주년 기념축제를 개최했으며, 동문들의 에세이를 모은 서울대학교 불교학생회 창립 60주년 기념 에세이집 '가던 길 멈추고 돌아보니' 를 출간했다. 사진은 4월 28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 '서울대 동문법회 제1차 붓다포럼' 에 모인 동문들의 기념촬영 모습.

道伴의 향기 서울대 불교동문회(회장 류인철-치대77)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지 2600년이 되어가고,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온 지도 1700년이 되어간다. 또 다시 부처님오신날을 맞는 이 시절에 이 땅의 불교는 지금 이 순간순간의 시대적 요구와 얼마나 가까울까.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의 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그 순간순간에 존재할 것인가. 부처님오신날을 또 한 번 맞으며 대중이 서로 주고받아야 할 가장 큰 법문이 아닐까. 그 법문의 장을 마련한 불제자들이 있다. 1700년의 역사 속에 60년의 역사를 새기고 있는 그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서로에게 화두를 던졌다.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서울대학교 불교동문회(이하 동문회) 동문들이다.

걸어온 길 60년

- 1958년 법대 불교학생회로 시작
- 1963년 대불련 출범 주도
- 1969년 총불교학생회로 재출범
- 대학생수도원 개설 주도
- 구국발원대회 · 10.27 법난 시위
- 야학 개설 · 〈자자〉 발간
- 연합수련회 결성 · 반야프로젝트

동문들 모이다

4월 28일 오후 4시 서울 사간동 법련사. 우리 불교사 어딘가에 반드시 적어야 할 법회가 열렸다. '서울대 동문법회 제1차 붓다포럼' 이다. 동문회가 60주년을 기해 새롭게 모색한 것으로, 새로운 서울대 불교동문회 월례법회의 첫 법회다. 지나간 60년 위에 다시 60년을 세우는 첫 걸음이다. 법회의 의미가 가볍지 않은 것은 한국의 대학교 불교학생회의 효시인 서울대 불교학생회의 동문들이 다시 '효시' 를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동문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동문회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시작했다. 어느 한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동문 모두의 이심전심이다. 동문회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 불교의 미래' 와 글자만 다른 것이어서 그 모색의 시작은 '한국불교' 이고 그 안에서 동문회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일은 다름 아닌 대학생불교와 청년불교의 미래다. 결론은 다시 '동문회' 였다. 바로 자신들이었다. 자신들의 향상이 한국불교를 향상시키는 일 중의 하나이고, 한국불교의 향상이 우리 사회의 향상과 역시 글자만 다른 일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그리고 그 모색의 시작은 '만남' 이라는 것에 모두 깊이 공감했다. 월례법회가 그 시작이다.

법회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 둘 동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앞자리부터가 다른 학번의 동문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반갑게 나눈 눈인사와 악수로 먼 학번의 거리를 지우고, 같은 공간에서 보낸 다른 시절의 기억들이 서로를 끌어안는다.

"지난 60주년 기념축제 때 선배님들 대부분 처음 뵈었어요. 그런데 처음 뵈었는데도 오랫 동안 만나왔던 것처럼 따뜻한 마음을 받았어요.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한결 같이 드는 생각은 '따뜻함' 인 것 같아요. 점점 빨라지는 삶의 속도로 인해 자신 몸 하나 챙기는 일조차 쉽지 않는 삶 속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서로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우리만의 속도가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우리만의 속도에서 따뜻함이 나오고 그 따뜻함으로 인해 숨가쁜 삶 속에서도 숨을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77학번 류인철(회장), 79학번 송혜진(문화예술분과장), 92학번 손인애(합창단) 법우가 법회 전 작은 자리를 같이 했다. 자리에서 가장 후배인 손인애 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손인애 법우는 동문회 합창단의 단원이다. 동문회 합창단(도로도로 합창단)은 동문회의 새로운 시그니처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합창단은 6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창단됐으나 국회 법회 초청 공연 등을 시작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내외를 허물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합창 연습을 하면서 동문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하게 됐어요. 일단 얼굴을 본다는 게 즐거움의 첫 번째였어요. 합창 연습을 위해 매주 모이면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가져온 수다와 서로 나누는 공양들이 즐거움이었어요. 우리는 즐겁기 위해 산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동문들 만나고 나면 마음이 한 뼘이라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화낼 일도 줄고 다툴 일도 줄었어요. 각기 다른 목소리가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내고, 음성과 음성이 하모니를 만들어낼 때 '조화' 라는 것에 대해 또 한 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 좋은 부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좀 더 가깝게 두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손인애 법우를 이어 역시 합창단원인 송혜진 법우가 말을 이었다. 합창단은 격주로 법련사에서 합창연습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원생에서 최고 선배 학번까지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동문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에 대한 답 중의 하나다. 60주년을 계기로 동문회는 "세상과 공유할 가치를 찾자"는 화두를 세웠다. 6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동문회 위원들과 많은 동문들은 문화의 중요성이 절대적인 시대적 상황을 볼 때, 합창단의 음성포교는 중단할 수 없는 불사임을 공감했다. 더구나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합창단이 공연한 '천수경 대합창(서울대 천수경)' 은 새로운 찬불가의 전범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게 동문회 법우들의 생각이다. 〈천수경〉 원문을 거의 그대로 살리면서도 우리말로 옮긴 25분짜리 '천수경 대합창' 은 시대적 흐름에 발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생각 중의 하나다. 71학번 성태용 교수가 〈천수경〉을 우리말로 옮겼고, 전문 작곡가가 곡을 붙였다. 완성된 25분짜리 '노래' 〈천수경〉을 부르고 나면 〈천수경〉 1독이다. 그런데 그 '1독' 이 전혀 다른 1독이다. 멜로디 위에 뜻을 풀어놓은 경구는 그저 입을 거쳐 가는 '소리' 가 아니라 뜻을 새기는 살아있는 부처님 말씀이다. 동문들을 하나로 묶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합창단은 4개월 동안의 연습을 마치고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천수경 대합창' 을 초연했다. 그리고 지금은 하반기 창단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통도사에서 했던 첫 수련회의 일주일이 삶의 뿌리가 되었어요. 그때의 체험과 기억으로 지금까지 사는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삼천배, 새벽예불, 새벽 어둠속에서 들었던 범종소리와 북소리는 말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종범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는 저에게 있어 평생 가르침으로 남았죠."

신임 회장(제7대) 류인철 동문은 그 옛날 첫 수련회 후 삶의 많은 변화를 겪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는 의외로 간단했다. 부처님 말씀에 답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문회를 새롭게 이끌게 된 류 회장이 제일 깊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내실이다. 그리고 그 방편은 앞서도 말했던 '만남' 이다. 그 만남의 이유는 '소통' 이다.

C2면에 계속

INSIDE

C5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37번 사찰 가는 길

C9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5월에 새기는 가족이란 이름

C15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석주 스님

60주년 맞아 다시 세상속으로…



서울대 불교동문회는 4월 28일 법련사에서 새로운 형식의 월례법회 '서울대 동문법회 제1차 붓다포럼'을 개최했다.



1972년 동화사 수련대회 모습.

준비하는 60년

'서울대 동문법회 붓다포럼' 시작
'한국불교 청년 전법~' 학술대회
동문 에세이집 '가던 길~' 발간
동문 합창단 도로도로 창단
우리말 '천수경 대합창' 발표 공연
기숙사 건립 등 지원 사업 계획

'서울대 불교동문회' C1면에서 계속

"10년 전, 5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재학생의 참여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아니 거의 재학생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60주년 행사는 동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재 우리 '대학생불교'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축소되는 대학생불교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그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 옛날로 돌아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76학번 이희세 동문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첫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과 동문회가 모색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문회는 지난 창립 60주년 기념 축제를 통해 여러 가지를 서원했다. 지난해 11월 4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행복동행-동문과 함께, 세상과 함께'를 주제로 창립 60주년 기념축제를 개최했다. 동문과 재학생 250여 명이 참석해 불교학생회 발전을 모색하고 정진해 나갈 것을 서원했다. 앞서 말했듯 60주년 기념행사가 여법하게 회향될 수 있었던 것은 6대 회장 조화제(71학번) 동문의 원력이 컸다.

60주년을 기해 동문회는 동문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 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모색을 시작했다. 기념축제가 있기 전 10월에는 '한국불교 청년 전법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념 학술대회를 열어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청년불자들과 청년층 전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 바 있고, 동문들이 부처님과 함께 했던 청춘시절을 뒤돌아보며 쓴 에세이를 모아 서울대학교 불교학생회 창립 60주년 기념 에세이집 '가던 길 멈추고 돌아보니'를 출간했다.

후배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학업과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숙사 건립 발원 등을 담은 비전 2030도 발표했다. 동문회와 총불교학생회는 모연을 통해 2030년까지 불교학생회 법우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그 밖에도 문화콘텐츠위원회의 공연 · 전시, 신행위원회의 명상모임계획, 청년위원회의 동아리방 지원, 화합위원회의 동문탐방, 재정위원회의 동문회 사단법인 추진 등 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시작 '서울대 동문법회 제1차 붓다포럼'

삼삼오오 반가운 인사를 나눈 동문들이 법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을 모시고 법회가 시작됐다. 법회의 큰 제목은 "세대를 넘어 세상 속으로"이다. 현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지도법사 운성 스님을 비롯해 2017학번의 재학생에서 1961학번의 선배까지 50여 명의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참석한 61학번의 전창렬 · 명호근 두 동문은 동문으로서, 법우로서 60년 가까운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법회는 처음부터 '변화'다. 동문들은 동그랗게 원을 그려 앉았다. 오늘의 법회는 부처님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닌 것이다. 동문들을 바라보기 위해 모인 것이다. 오늘은 서로가 부처다. 식순 역시 지금까지의 법회와 달랐다. 〈천수경〉 서장으로 시작했다. 말씀나누기, 입정, 법문, 발제와 토론, 공감과 · 경배, 서원과 귀의, 정근 순으로 진행됐다. 서원과 귀의 부분이 〈천수경〉을 염두에 두었음을 말한다.

법회의 가장 큰 변화는 '포럼'이다. 동문회는 포럼을 통해 앞서 말했던 동문회의 미래를 모색할 생각이다. 법회는 서로의 법문을 듣기 위한 자리다. 동문회 법우들의 신행과 친교의 장이 되고 서울대 불자 동문들의 지적 포럼이 되기 위한 이날 법회의 주제는 '동문 법회, 무엇을 어떻게 할까?'이다. 동문들 서로서로가 배우고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을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이다.

"이제 우리 동문회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그동안 개개인의 훌륭한 활동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문회가 단체로서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77학번 김유진 동문이 발제에 나섰다. 발제 후 가장 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역시 앞으로 돌아가 '만남'이었다. 많은 만남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좋은 모색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을 확인했다. 정례화된 이 날의 법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함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 명상, 선수련, 사찰순례, 의료봉사 등 작은 모임의 활성화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현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재(15학번) 동문은 "신입생 때 불교학생회를 소개하는 선배들의 따뜻한 모습에 이끌려 불교학생회 활동을 시작했다"며 "불교학생회 활동을 통해 막연했던 불교에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긍정적인 마음을 닦고 학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까마득한 선배님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앞으로 불교학생회 활동과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동문회의 새로운 60년을 위한 첫 걸음은 이렇게 시작됐다.

'대학생불교'의 효시 '서울대 법대 불교학생회'

서울대 불교학생회는 1958년 11월 서울대 법대 서돈각, 황산덕 교수의 지도 아래 송종의, 김진무 등 법대 법우들이 결성한 '법대 불교학생회(법불회, 초대회장 김진무)'로 시작됐다. 한국불교사에 '대학생불교'가 등장한다.

법불회의 활동은 여러 면에서 활발했다. 매월 '불교사상' 강좌를 개최했는데 매번 300여 명이 모일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다. 탁월한 법문과 강의가 이유였다. 지도 교수의 지속적이고 관심어린 지도와 법불회 법우들의 열정적인 공부와 봉사도 기여했다. 이러한 법불회의 활발한 활동은 '대학생불교'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 법불회를 시작으로 서울대에는 단과대학별로 불교학생회가 창립되기 시작했고, 1969년 단과대학의 불교학생회를 통합해 총불교학생회가 출범한다.

서울대 불교학생회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아마도 1960년대 본격적인 대학생불교의 시대를 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초대 회장 신호철, 이하 대불련) 탄생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1963년 탄생한 대불련은 신호철(61학번), 전창렬(60학번) 김윤권(60학번) 등 서울대 법불회 출신 법우들 주도로 탄생했다.

서울대 불교학생회는 사찰수련대회, 창립제, 체육대회 등을 통해 활동의 저변을 넓혀갔고, 대학생수도원 개설 주도(1965), 부처님오신날 행사 참여, 구국발원대회 개최(1974), 10.27법난 항거 시위 동참(1980), 야학개설(1980년대), 〈자자〉 발간, 연합수련대회 SANKITI 결성(2002~), '반야 프로젝트(2017~)'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지금에 이르고 있고 지금까지 수 천 명의 학생들이 불교학생회를 거쳐 갔다.

현재 서울대 총불교학생회는 60여 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다. 옛날을 생각하면 저조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저조한 숫자는 이미 오래 되었으며, 불교학생회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에 60여 곳에 불과하다.

"대학생 · 청년포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지원은 보기 어렵습니다."

법회를 마친 총불교학생회 지도법사 운성 스님은 점점 저변을 잃어가는 대학생 · 청년 포교의 현실에 대해 걱정했다. 그리고 스님은 개선 방안으로 "지도법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위한 지원,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회가 끝나고 동문들이 아쉬운 인사를 나눈다. 다양한 시대의 학번들이 다시 자신의 학번을 찾아간다.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로를 바라보던 동문들은 모두 '대학생'이었다. 대학생과 청년은 한 사회의 흐름이며, 시대의 단면이다. 한 사회와 한 시대의 중요한 세대인 것이다. 동문회의 동문 각자는 60주년이라는 역사 앞에서 자신들이 한 사회와 한 시대에서 중요했던 시절을 돌아봤다. 그리고 새로운 60년의 모색이 시작됐다. 다시 '1958'이다. 응답하라 1958.





걸으며 진언 염송하니 고된 길도 '가뿐'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⑱ 37번 사찰 가는 길



37번 이와모토지 전경. 원래는 신사였다가 사찰이 된 곳으로 다섯 신을 모셨던 전통에 따라 본존불도 다섯이다.



이와모토지 본당 천정에 그려진 다양한 천정화들.

변기가 고장이거나 사용금지 표시가 붙은 공중화장실의 장애인 칸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원래 공중화장실에서 자는 것은 노숙 순례자들 사이에선 예의가 아니라고 회자되지만, 모두가 그 어떤 시설보다 좋다는 데엔 두말없이 동의한다. 식수, 화장실, 전기, 보온 등 어느 하나 빼놓을 것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어제 자기 전에 지도를 보고 계산한 거리로는 오늘 45km정도를 걸어야한다. 평소 걷는 거리보다는 조금 더 걸어야하기에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출발한다. 일찍 알람을 맞춰뒀지만 내 알람에 스님이 깨실까 걱정해서인지 훨씬 이르게 일어났다.

내 걱정도 무심하게 스님은 벌써 일어나셨는지 빈 침낭과 짐만 있을 뿐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조용히 짐을 싸고 길을 나선다. 아직 아침 해도 뜨지 않았고 하늘만 어슴푸레 밝아 있었다.

이른 새벽인데도 휴게소 옆의 채소직판장엔 벌써 신선한 채소며 과일이 들어와 있었다. 근처 농지에서 직접 가져오는 것이다. 화장실에서 어정쩡하게 나오는 나를 보곤 토마토를 나르던 할머니가 오셋타이라며 주먹만한 토마토 두 개를 손에 쥐어 줬다. 답례로 오사메후다를 드리니 직판장 문 위를 가리키며 "순례자님! 우린 이미 잔뜩 붙여 뒀으니, 다른 좋은 곳에 줘요"라고 웃어보인다.

문 위를 보니 순례를 100회 이상해야 쓸 수 있는 비단 오사메후다부터, 금색, 은색까지 다양한 오사메후다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할머니께 다시 내 것을 돌려받곤 토마토를 한입 베어 물고 길을 나선다. 아직은 어두운 새벽 5시다.

이곳 휴게소는 순례할 때마다 노숙 장소로 사용한다. 늘 좋은 인연을 만나는 곳이 되다 보니 이쯤 되면 무슨 명당자리가 아닌가? 궁금할 정도다. 첫 번째 순례 때는 도시락을 오셋타이 받았고, 두 번째 순례 때도 먹을 것을 오셋타이 받았다. 세 번째엔 나가사키에서 왔다는 부부에게 아예 제대로 한 끼를 얻어먹었고, 네 번째엔 정진하는 스님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다.

멀리 동이 터오기 시작하고, 차도 옆을 끼고 걷는 순례길은 한적했다. 어제 스님께서 다라니를 지송하시면서 걷는 것이 생각나서 나도 진언을 외우면서 걸어 보자하곤 염주를 꺼내 쥐었다. 어떤 진언을 염송해야하나 하고 잠시 생각했다. 오래전부터 참회의 본존인 금강살타(金剛薩□)보살의 백자진언(百字眞言)을 10만 번 염송하겠노라 마음먹은 바가 있었으니, 순례에 겸해 염송해보자 마음을 먹었다.

금강살타보살을 정수리 위에 관상으로 모시고 진언을 염송하면서 악업이 정화됨을 명상한다. 원래 백자진언은 길이도 길고, 발음도 어려워 처음엔 여러 번 끊어서 염송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니 한 호흡에 진언을 염송할 수 있었다.

염송하면서 걷는 방식도 조금 바꿨다. 보통 걷다가 힘들면 쉬거나 시간을 대충 정해두고 쉬었다면 진언을 54번 염송하면 가볍게 쉬고, 108번을 염송하면 쉬기로 마음먹었다. 걸음수를 세어보니 진언 한 번에 10발짝 정도 나아갔다. 108주로 염송을 하니 나중에 수를 더해보면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있겠다며 혼자 슬며시 웃었다.

진언 하나로 걸음걸음에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진언이 틀릴까, 호흡이 흐트러질까 마음을 챙겨가며 걷는다. 혹여 관상하는 내용이 틀릴까 정신을 집중한다. 자연히 몸의 자세나 걸음도 반듯해진다. 왜 진작 염송을 하지 않았을까 조금 후회될 정도였다.

정진하며 2시간을 부지런히 걷다보니 어항으로 유명한 토사쿠레(土佐久礼)에 도착했다. 이곳의 어시장은 코치현의 명물인 '카츠오 타다키' 가 맛있기로 이름나 있다. '카츠오 타다키' 는 가다랑어를 두껍게 회를 쳐 겉만 살짝 직화로 익힌 요리인데 코치에 와선 꼭 먹어볼 만한 음식이다. 이전에 어느 순례자에게 이곳에서 제일 맛집이라며 가게 전화번호까지 받아두었지만 이른 아침이라 포기했다. 대신 길가의 순례자 휴게소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다.

배낭을 내리고 발우에 미숫가루를 담았다. 새벽에 받은 토마토까지 곁들이니 평소보단 좀 더 풍성한 아침상이다. 아침운동으로 조깅을 하던 할아버지 한 분이 휴게소로 들어오신다. 순례자 휴게소로 지어진 곳이지만 누구든 쉬어갈 수 있는 장소니 배낭을 얼른 옆으로 치워 자리를 만들었다.

"순례자 씨!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출발하시나요?"

"출발은 새벽에 하고 지금은 아침을 먹으려 합니다."

"역시, 순례자들은 아침이 이르네요!"

하룻밤 함께 묵은 스님처럼
걸으며 백자진언 염송 수행
걸음 자세 · 마음가짐 달라져
예상보다 빠르게 37번 도착
본존 5불, 이색 천장화 유명

할아버지는 내가 먹는 미숫가루를 보곤 신기한지 무엇을 먹느냐고 물어봤다. 그땐 미숫가루라는 말을 일본어로 몰라 열심히 설명했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먹는 것인데 여러 곡식을 볶아서 빻은 것이라고 하니 2차 대전 전후 많이 먹었던 '핫타이코(はったい粉)' 가 아니냐는 물음이 돌아왔다.

할아버진 요즘 일본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환자식으로 쓰여서 큰 마트에 가면 판다고 말해주셨다. 덕분에 미숫가루가 떨어져도 살 구석이 생겼다. 이후로 종종 미숫가루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핫타이코' 라고 설명했다. 할아버지의 설명대로 젊은 사람들은 이름조차 처음 들었다는 사람이 많았다.

아침을 먹고 다시금 길을 나섰다. 차도를 따라 계속해서 걷는 길. 고갯길을 하나 더 넘어야 오늘 참배할 37번 이와모토지(岩本寺)가 있는 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 다시 진언을 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 그렇게 진언을 600번 좀 넘게 했을 때가 되어서야 고갯마루에 올랐다.

차도 옆으로 닦인 순례길이라 길은 편했지만 오르막은 여전히 버거웠다. 배낭을 내려놓고 숨을 고른다. 염주에 달아둔 계수기를 헤아려 보니 아침부터 1,200번 정도 진언을 염송했다. 이렇게만 정진하면 순례가 끝날 쯤엔 10만 번을 다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긴다.

아직 점심도 되지 않은 시간, 다시 지도를 펴서 이와모토지까지의 거리를 재본다. 13~14km 정도인데 이제 오르막도 없고 거의 평탄한 길들이 이어지니 잘하면 3시간 남짓해 도착할 듯했다. 가만 생각해보니 점심을 조금 넘겨서 이와모토지에 도착한다. 만약 상태가 유지된다면 5시쯤 오늘 목표로 하는 사가온천(佐賀溫泉)에 도착한다. 순간 내가 시간을 잘못 계산했나 하고 지도를 다시 살펴본다. 어젯밤 오후 7시를 좀 넘어서야 도착할 거라 생각하고 일찍 길을 나섰는데 예상 도착 시간이 너무 이르다.

잠시 지도를 보던 중 무릎을 탁치곤 이유를 알아챘다. 원래 내가 생각했던 출발보다 좀 더 이르게 출발한 데다가, 진언을 하며 걷다보니 쉬는 시간이나 걷는 것이 일정해져 속도가 더 붙은 것이다. 이 역시 불보살의 가피려니 하며 잠시 손을 모으곤 출발한다. 이왕 이리 된 거 오늘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 볼 심산이다.

예상한대로 1시를 좀 넘겨 37번 이와모토지에 도착했다. 이와모토지는 본존불이 다섯인 재미난 사찰이다. 원래 근처에 있던 니이다 신사(仁井田神社)를 지키던 작은 사찰이었으나 코보대사가 다섯 구의 불상을 조각해 봉안하면서 이와모토지가 됐다고 한다. 불상이 다섯 구인 이유는 니이다 신사에 모시는 신이 5위(位)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찰을 순례하다보면 이렇게 신사와 절이 하나로 연계된 신불습합(神佛習合)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와모토지의 재미난 볼거리는 본장의 천정화이다. 본래 사찰의 천정화로는 절의 연기 설화나 풍경과, 비천상과 같은 모티프로 제작되지만 이곳은 다르다. 지역 화가들에게 그저 사찰의 천정화로 쓰인다고만 알려주고 각각 나무판 1장에 자유롭게 그려달라고 한 것이다.

그 결과 아주 이색적인 천정화가 탄생했다. 전통적인 풍경화나 불보살과 같은 그림은 물론, 유화로 그려진 정물화나 추상화, 인물화 등이 모인 것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마릴린 먼로의 초상화가 그려진 나무판. 엄숙해야할 법당의 천장이 화려하게 수놓였다.

참배를 마치고 납경을 받고선 벤치에 걸터앉아 점심을 먹는다. 잠시 이와모토지의 츠야도로 오늘 일정을 끝낼까도 고민했지만, 시간도 너무 이르고 츠야도가 너무 열악하기에 1시간 정도 여유롭게 쉬고서 산문을 나섰다. 나서는 찰나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든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어제 같이 묵은 스님이시다. 후다닥 뛰어가서 인사를 드리니 당신은 오늘 여기서 일정을 마칠 생각이시란다. 아마 이렇게 엇갈리면 다시 뵙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스님, 스님 덕에 저도 걸으면서 진언을 외우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행자(行者)라는 건 수행하는 이란 뜻도 있지만, 길을 가는 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걸으면서 수행이라니! 아주 문자대로의 순례자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스님. 정진하겠습니다."

"감사는 코보대사께 해야지! 그분 덕에 우리가 이리 걷지 않나?"

역시 시코쿠는 길 자체가 수행도량, 걸음걸음이 정진이란 말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자유기고가〉

순례의 Tip



이와모토지를 향하는 고갯길.

이와모토지를 향하는 루트는 크게 3가지. 차도를 끼고 걷는 길이 제일 편하다.

이와모토지의 츠야도는 사찰의 주차장에 있는 창고를 빌려주는 형식이기에 여성 혼자서는 위험할 수 있다.





왕실 후궁 출가로 맥을 이어가다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⑨ 정업원과 청룡사



서울 낙산성곽길에 위치한 청룡사의 모습. 정업원 터에 지어진 사찰이 청룡사이다.

조선조 후궁과 정업원

왕조시대 임금이 죽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후궁들은 궁궐 밖으로 나갔다. 먹고 지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재가하는 일은 없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왕실에서 마련해준 거처에서 조용히 지내는 일뿐이었다.

그들 가운데 혼자 지내느니 부처님을 섬기며 지내겠다고 출가를 선택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곳이 정업원이었다. 지체 높았던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어서 이곳의 주지 역시 남달랐다. 태종 8년 2월에 공민왕(恭愍王)의 후궁이었던 이제현(李齊賢)의 딸 혜비(惠妃)가 정업원에 머물다 죽었다. 그러자 왕자의 난으로 희생당한 이방석의 부인 심씨(沈氏)를 정업원의 주지로 삼은 기록이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 의종 18년 윤11월 왕이 정업원으로 거처를 옮기고, 고종 38년(1251) 6월 박훤(朴暄)의 집을 정업원으로 만들어 성내 비구니를 모여 살게 한 것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 정업원은 도성 내에 있었다. 태종 11년(1411) 6월 병조에서 승려들이 남산과 안암 등지에 초막을 짓고 재를 베풀자 모두 철거해 버리자고 주장하였다. 이때 도성 안에서 비구니 사찰이 세워지는 것이 금지됨과 동시에 정업원 이외에는 모두 철거되었다.

정업원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여타의 비구니 사찰과 위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 29년(1447) 6월 왕은 정업원 주지가 자신의 친속이며, 그곳에 있는 여승들은 모두가 사족(士族)으로서 논밭과 노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달라도 한참 달랐을 것 같다.

조선시대 정업원은 어디에 있었을까? 세종 15년(1433) 7월 도성의 풍수를 이야기 할 때 정업원의 위치가 나온다. 정업원에서 동으로 동대문에 이르러 왼편을 막는 난간이 되었고, 또 한 줄기는 동남으로 내려가서 종묘와 창덕궁의 맥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동대문 안 창덕궁 위쪽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정업원이 궁장(宮墻) 곁에 있어 범패 소리가 궁중에까지 들렸다는 기록과, 창덕궁 담 밖의 정업원이란 표현으로 볼 때 창덕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임을 알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위치는 연산 9년(1503) 11월 정업원 서쪽 골짜기 북쪽 고개를 따라 소격서(昭格署)로 가는 길에 담을 쌓아 잡인의 통행을 금하고, 정업원 동쪽 언덕에서 성숙청(星宿廳) 북쪽 고개까지 모두 푯말을 세우고 사람을 금하여 올라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다. 소격서는 도교와 관련된 곳으로 지금의 삼청동 쪽이고, 성숙청은 무속과 관련된 곳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창덕궁과 창경궁 위쪽으로 짐작된다.

창덕궁서 멀지 않은 위치
동쪽 바라보며 세워져
억불숭유에도 맥 이어와

정업원의 수난

그런 정업원이었지만 조선의 배불정책은 피해갈 수 없었다. 태종 때부터 없애자는 논의는 세종 때까지 이어졌다. 세종 29년(1447) 6월 의정부는 정업원 여승의 특혜가 다른 곳보다 지나쳐 폐단이 있고, 전답의 세금을 사사로이 쓰므로 없애자고 하였다. 이런 견해에 세종은 갑자기 없애면 과부들이 갈 곳이 없으므로 앞으로 정업원에 있는 사람들이 줄면 보충하지 않고 점점 없어지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정업원의 사세가 기울었고, 세종 30년 11월 정업원 노비를 상림원(上林園)에 주면서 결국 없어지게 되었다. 다만 이곳의 불당에 금으로 만든 인왕불, 미타삼존, 옥불, 불치(佛齒), 불골(佛骨) 등의 법보가 있기 때문에 대궐을 청소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울에 사는 여덟 사람을 선발하여 살피도록 하였다.

없어진 정업원이 다시 복원된 것은 세조 때였다. 불심이 남달라 재위기간 동안 불교를 보호하였던 그는 3년(1457) 9월 정업원을 세우고 노비와 전지 백결을 주어서 여승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복원 이유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대개 과부와 외로운 여자들이 출가하여 여승이 되는데, 여승이란 실로 궁박(窮迫)한 무리들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정업원(淨業院)을 세우고 이곳에 모여 살게 하여 이들을 구제하려고 한다."

세조는 복원 후 이곳을 방문하여 비단을 내릴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성종 때 와서 다시 불거진 불교배척의 분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1년(1470) 9월 예조가 도성 내 사찰을 없애자고 하자 관청에서 창건한 사찰과 사당은 다른 곳으로 옮겨 짓도록 하였다. 6년(1475)에는 비구니들이 도성 안에 여염집과 섞여 살아 품행을 어지럽힌다는 원상들의 의견에 비구니 사찰을 헐게 하였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11년(1480) 정업원의 노비를 각 관사에 나누어 주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9년(1503) 11월 정업원 주변 길에 담을 쌓아 잡인의 통행을 금하였다. 그리고 10년(1504) 7월 이곳의 비구니를 한치형의 집으로 옮겨 살게 하면서 결국 정업원은 없어지게 되었다. 폐사된 정업원은 중종 때 사대부의 독서당으로 이용되었다. 그 후 독서당이 동호(東湖)로 옮겨지면서 빈터로 남게 되었다.

단종비 정순왕후와 정업원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낸 세조는 정순왕후에 대해서는 선처를 베풀어 한양 안에 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왕후는 동대문 밖 동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살기를 원했다. 세조는 재목을 주어 집을 짓도록 하였다. 홀로 남은 왕후는 단종의 누이 경혜 공주의 아들 정미수를 양자로 삼아 단종 없는 66년을 지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집과 마주한 봉우리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다보면서 보냈다.

왕후는 자신을 돌봐준 고마움에 죽기 3년 전인 중종 13년(1518) 7월 노비와 재산을 정미수의 아내에게 줄 수 있도록 상소를 올렸다. 1521년 왕후가 죽자 정미수의 선산에 장사지냈고, 그 후에는 정씨 후손들이 그의 제사를 받들었다고 숙종 24년(1698) 11월 9일 기록은 전하고 있다.

이곳에 정업원을 다시 세운 사람은 문정왕후였다. 명종 1년(1546) 7월 26일 왕후는 선왕의 후궁을 위하여 인수궁(仁壽宮)을 지으면서 별도로 정업원을 세우려 하였다.

"인수궁은 선왕의 후궁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수리하도록 하였는데 엊그제 내관을 보내 살펴보았다. 지금 수리가 끝나지 못하여 후궁들이 이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사제(私第)에 있다. 또 전날의 정업원을 인수궁에 소속시켰다가 사무가 좀 헐후해진 뒤에 아울러 수리하여, 선왕의 후궁 중에 연고가 생기는 이를 거기에 이주시키도록 하라. 또 정업원 수리에 소요되는 목재와 기와는 호조와 내관이 동시에 자세히 조사하게 하라."

이때 관리들은 후궁을 위해 인수궁을 세우는 일은 괜찮으나 비구니를 위해 정업원을 세우는 일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러자 명종 4년(1549) 11월 원래 정업원이 있었던 터에 인수궁을 지었다. 그리고 후궁이 질병을 앓게 될 경우 옮겨 살 수 있도록 정업원을 세웠다. 그곳이 지금의 청룡사이다. 명종 11년(1556) 4월 정업원이 성 동쪽 10리쯤 되는 지역의 땅을 사들였다는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영조의 방문과 친필

명종 20년(1565) 문정왕후가 죽은 뒤 다시 시작된 불교배척으로 불교계는 선교 양종이 폐지되고, 승과도 없어지는 등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분위기는 선조가 즉위하면서 계속되었다. 도성 밖이었지만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업원도 배불의 분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폐쇄를 주장하는 대신들과 유생들의 상소가 빗발쳤다.

선조는 예전부터 선왕의 후궁이 있었던 곳임을 들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생들의 끈질긴 상소와 관리들의 배척으로 정업원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고, 이후 광해군, 인조, 효종, 그리고 현종 등 오랜 기간 실록에도 거론되지 않는다.

이렇게 세간의 뇌리에서 사라진 정업원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숙종 24년(1698) 행해진 단종의 복위와, 무너진 사릉(思陵)을 고치고 글을 내린 영조의 배려 때문이었다.

영조는 정순왕후 일에 관심이 많았다. 47년(1771) 8월 능의 일부가 무너지자 즉시 보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바로 행해지지 않고 지체되자 25일 책임자 예조 판서 이창수를 파직할 정도였다.

8월 28일 영조는 이곳에 오면서 누가 정순왕후 일에 대해 잘 아는지 물었다. 참판을 지낸 정운유가 추천되었다. 정운유는 단종의 누이 경혜 공주의 아들 정미수의 후손이었다. 정순왕후의 사연과 정업원이 지어졌던 사연을 들은 영조는 이곳에 누각과 비석을 세우도록 명하고 친히 글씨를 내렸다. 현재 청룡사에 있는 비석인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가 그것이다. 이곳이 옛 정업원 터임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9월 6일 영조는 왕세손과 창덕궁에 나아가 진전(眞殿)에 비석 세운 일을 직접 아뢰고 이곳에 들렀다. 사찰과 마주한 봉우리에 올라 정순왕후가 이곳에서 영월이 있는 동쪽을 바라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망봉(東望峰)'이란 글을 써서 바위에 새겼다.

청룡사 한쪽에 세워진 비각 속에 비석은 존재하나, 바위에 새긴 글씨는 일제 때 채석 하느라 없어졌다. 봉우리 역시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로 바뀌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재개발로 들어선 아파트 때문에 정순왕후가 바라보던 동쪽 시야가 가려버린 것이다.

그래도 240년의 세월을 지내온 비각 속의 비석을 보면 세상사에 묻힌 정업원의 역사를 복원한 영조의 고마움이 묻어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 조선조 후궁들의 가련한 삶을 보는 것 같아 애절하기만 하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부처님오신날 - 2019년 -
강학과 수선, 문화와 복지 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지 경우
사부대중일동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
• 선운사 성보박물관
• 고창군 노인복지관
•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
• 백파사상연구소
• 고창군 푸드마켓
• 고창군 육아 종합지원센터
• 선운사 초기불교승가대학원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고창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평생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4교구 승려 노후 수행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전화 | 063-561-1422 www.seonunsa.org

부처님오신날 - 2019년 -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실 태공 월주
회주 금산 도영
주지 자산 성우
부주지 월강 일원
총무 원혜 사회 효진
기획 화평 호법 덕림
교무 응묵 포교 석초
재무 여찬
신도회장 이근재 외 사부대중 일동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피붙이 사랑이 모든 생명 향하길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⑨ 5월에 새기는 가족이란 이름



그림 · 박구원

다시 오월이다. 풀 한 포기에도 생명이 충만한 이 계절에 마음을 울리는 두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10대부터 가장 노릇 해온 40대의 비혼 남성

명인 씨가 묻는다.

"도대체 가족이 뭘까요?"

나는 그 질문을 돌려주었다.

"가족은 그대에게는 무엇인가요?"

"가족은 저에게 굴레입니다. 그것도 가시나무 덩굴로 된 굴레. 스물 살 때 결혼 같은 건 안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안 해도 가족 부양으로 힘든 건 마찬가지네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불화가 심했습니다. 어머니는 툭하면 아버지하고 안 산다고 나가시곤 하셨죠. 몇 달간 돌아오시지 않아 동생과 할머니 댁에 가 있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장남이다. 네가 동생을 돌봐야 해."

명인 씨는 늘 자신이 동생의 보호자 노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집을 세 번째 나갔을 때 중학생이었던 동생도 가출했다. pc방에서 일하며 숙식을 하는 동생을 끌다시피 해서 집으로 데려왔다. 명인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일용 노동자이던 아버지는 며칠씩 일감이 없어 공칠 때도 많았다. 말년에는 술에 절어 살다가 돌아가셨다. 몇 년 전 어머니를 찾아내 가끔 용돈도 드리고 집에도 모셔오곤 했는데 지난해부터 치매 증세가 있어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다. 한때는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시장에서 좌판을 하며 꼬부랑 할머니가 된 모습을 보고는 측은한 마음이 앞섰다.

무능하고 무지한 부모 밑에서 자라 가난을 대물림 하는 세대. 이 형제 이야기는 색다를 게 없는 널린 이야기다. 다른 게 있다면 명인 씨는 불우한 환경에 주저앉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지녔고 그에 걸맞는 도덕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무너져 가는 가정에서 잡초처럼 강하게 생을 버티어냈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땄다. 지금은 다문화 이주민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며, 저녁에는 학원 강사 생활을 한다. 동생은 형의 보호 아래 전문대학을 졸업해 전기 기능공으로 일하고 있다. 밤낮으로 일하며 30년을 버티었는데 여전히 그는 가족 부양의 책임을 느낀다.

"동생이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제수씨랑 살고 있어요. 결혼시켜서 제빵사 자격증이 있는 제수씨와 함께 하도록 빵집 차려주고 요양원 어머니가 편안히 가시는 것 보는 게 마지막 할 일입니다."

십대부터 가장 노릇 하느라 자신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코치의 적극 개입이 시작되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왔나요?"

명인 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잠시도 게을리 살지 않았고 해마다 목표를 정해서 달려왔다고 답했다.

"명인 씨가 자신을 위한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그는 가족 부양이 끝나면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돕기를 확장해서 사회기업으로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고 보니 제 인생이 가족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대학 졸업 후 인연을 끊고 스무 해

수영 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고향을 떠나왔다. 그리고 부모님과는 인연을 끊었다.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주눅 들어 자식을 때려도 말리지도 못하는 엄마, 지긋지긋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력이 생기면 집을 나오겠다고 결심하고 취직하자마자 독립했죠. 올해가 20년째네요. 그동안 입사동기였던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이지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고향이 생각나도 애써 도리질을 하죠. 나는 부모에게 빚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고학력의 전문직이었다. 동네에서는 유지 대우를 받았지만 집에 들어오면 폭력과 욕설을 일삼는 폭군이었다.

외면한 가족 애증 마주해
더 나은 부모, 가족 되고
약자 대한 애정으로 확장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떨어지면 매를 맞았어요, 나이 들수록 점점 맞는 이유가 늘어나요.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르고 맞는데, 때리다가 더욱 화가 나는지 어머니도 같이 맞았어요. 집에서 나오는 날, 아버지는 부모 은혜도 모른다고 소리치더군요, 낳아주고 키워주고 공부시키지 않았냐고요. 저는 그동안 맞은 매 값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수영 씨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마구 떨어졌다. 입으로는 울분과 원망을 쏟아내는데 눈에는 회한과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 화사한 봄날에 어쩌자고 젊은 엄마인 그녀는 이리 아플까.

상처가 있는 고객과의 코칭 대화는 무척 조심스럽다. 과거의 치유는 코칭에서 전문으로 다루는 영역이 아니다.

"지금 저와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은가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 자꾸만 엄마 생각에 가슴이 저립니다. 나도 없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견디며 살아왔는지, 다 엄마 인생이라고 지워버리려 해도 잘 안됩니다. 엄마도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를 낳고 키우면서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때를 놓쳤고 그러다보니 참고 견디는 삶에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엄마의 노후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버지와는 화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엄마의 남은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이슈로 우리는 코칭을 이어나갔다.

"이제 와서 엄마를 돕는 일은 수영 씨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과거의 기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이겨내고 싶다고 그녀는 답했다.

"엄마의 노후에 제가 보탬이 되어야 제 상처가 아물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을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저는 다른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는 화해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아버지와 얽힌 과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버지는 천천히 생각하겠습니다. 미움이 있어서 올바른 판단이 어려워요.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과제는 아직은 저에게 힘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듯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붓다는 가족 간의 사랑을 외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붓다의 진설이랄 수 있는 초기 경전에는 가족의 사랑과 도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 특히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에 대한 법문이 다수인 니까야 경에는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생활지침이 자세하게 나온다. 숫타니파타의 행복경에도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라고 설한다.

니까야의 육방예경을 보면 일방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부모 역시 자식을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대해야 함을 다섯 가지 마음가짐으로 얘기하고 있다.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지켜준다' 는 첫 번째 지침은, 자식을 올바른 인간으로 양육해서 사회로 내보내라는 근본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제 노릇을 못하는데도 공경해야 할까.

가족관계에서 부모님에 대한 애증은 코칭의 단골 주제다, 부모에게서 올바른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란 그들은 말한다.

"부모도 나름 아닌가요? 저를 지켜주지 못한 부모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숫타니파타의 자애경에 귀를 기울여 보자.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다.

붓다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려 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보편적으로 펼치라고 이야기한다. 붓다는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본능의 사랑이 모든 생명체로 확장하는 큰 사랑으로 뻗어가기를 가르친다.

자녀의 부모 사랑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가 가난하고 불행한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면 그가 반드시 선량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살아 있는 생명을 향한 연민과 자비의 마음은 상대의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다.

명인 씨는 부족한 부모를 연민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자양분으로 한층 성숙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는 사회 약자에 대한 애정으로 확장하고 있다.

수영 씨는 애정보다 증오가 앞서서 부모와 절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미움은 가슴 한쪽에서 괴로움이 되어 남아 있다.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야 아버지의 폭력에서 자식을 지켜내지 못한 엄마를 이해하고 연민하기 시작했다. 외면하던 가족에 대한 애증을 마주하고 정면으로 이겨내서 자신은 더 나은 부모가 되려고 하고 있다.

피붙이의 사랑이 모든 생명으로 나아가서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는, 대 자비의 마음이 붓다의 가르침이 아닐까.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우린 모두 연결된 존재들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⑨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림 · 강병호

존재하는 것에 대한 속성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깨쳤던 무상이고 무아이다. 오늘 깨쳐도 무상이고 무아이며, 천년 후 깨쳐도 무상이고 무아이다. 기본적 속성이 제행무상, 제법무아가 되면서 불교의 출발점을 만들고 있다.

제법무아(諸法無我)

나라는 실체는 없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나라고 내세울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하는 문제는 2600년 불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주제였다.

상태를 흩어 놓으면 무아이고 모으면 우리의 몸뚱이가 된다. 이것이 무아이다. 원래 무아인데 이 몸뚱이가 생기면서 나라고 착각하며 내가 있다고 고집을 하는 '아집' 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생이다.

부처님 경전에서 무아를 표현한 멋진 말이 있다. "끌어 모아서 얽어매면 한 칸의 초가집. 들판에 헤치면 본래의 들판인 것을."

볏짚을 들판에 풀어 놓으면 들판에는 아무것도 없다. 바로 들판일 뿐인데 볏짚을 끌어다 얽어 놓으니 한 칸의 초가집이 된다는 것이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색 · 수 · 상 · 행 · 식을 끌어다 모으니 몸뚱이가 생긴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같은 무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생각해 보자. 그 당시 존재했던 사상들과의 관계는 부처님이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필자는 무언가 진리를 가르치고 박씨도 가르치고 이 씨도 뭔가를 가르친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것이 진리라고 가르친다고 하자.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바르고 진실하다면 상대의 가르침을 다 타파해야만 한다.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 라는 뛰어난 6명의 사상가가 있었다. '육사외도' 들의 사상은 부처님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존재에 대해서 6근, 6경, 6식을 설명하시면서 육사외도의 주장들을 타파하고, 또 무상이고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한지 설명해야 하였다.

케마 비구의 꽃에 대한 비유

부처님 당시에 케마라는 비구가 있었다. 비구 케마가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었다. 마침 다른 수행자들이 케마를 찾아와 병문안을 한다. 그 자리서 부처님은 "무아라 했는데 왜 아프냐"고 농담을 한다.

그때 케마는 " '아니다' 나는 '나'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분명히 부처님이 무아라고 가르친 상태인데 케마의 '나는 나가 있다' 고 한 말에 대해서 많은 장로 비구들이 모여서 어떤 말이 맞는지 가리기 위해서 케마가 병들어 누워있는 수행공간으로 모여 들었다.

장로들이 모여 열띤 논쟁을 벌였다. 그럴 때 케마가 '내가 있다' 고 한 근거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만약 꽃에서 향기가 난다 하면 우리는 분명히 향기를 맡고 그 향기가 있다고 믿는다. 꽃향기를 맡았는데 그 향기가 꽃술에 있느냐, 꽃대에 있느냐, 꽃밑에 있느냐, 꽃잎에서 나는가? 분명히 꽃향기는 나는데 꽃대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꽃잎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꽃술에서 나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꽃향기는 있다.

이와 같이 케마가 말한 무아는 바로 꽃향기와 같은 것이다. 분명히 꽃이 없는데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니다. 꽃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케마는 장로들을 설득하였다. 무아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예로써 바로 '내가 있다' 고 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났고 그 논쟁으로 인하여 무아를 꽃향기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다.

엄밀하게 꽃향기는 꽃에서 나지만 꽃대도 아니고 꽃술도 아니고 꽃잎도 아니다. 그렇지만 향기는 분명히 있다. 이와 같이 케마의 이야기로 분명히 무아를 설명했다.

꽃에는 꽃대도 있고, 꽃술도 있고, 꽃잎도 있다. 이것이 모여 관계성을 가지면 꽃이 생기게 된다. 관계성이 없어지면 꽃은 없다. 그래서 원래 없는 무아인 것이다.

제행무상(諸行無常)

6근, 6경, 6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의 순환을 한다. 태어나서 젊은 시절이 있고, 결국 늙고 병들어 죽는다.

태양의 수명은 약 150억 년 정도라고 한다. 지금 태양의 나이는 70억 년 정도로 추정된다. 우주 모든 만물은 성 · 주 · 괴 · 공을 한다. 우주에 존재하는 성간물질이 모여서 지구나 혹성, 별들이 만들어진다. 태양은 지금 약 70억 년이 되었으니 한창 활발할 때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태양은 적색거성이 돼 자신을 불태우고 백색왜성으로 생을 마감한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행성은 폭발해 초신성이 되거나 블랙홀이 된다. 우주도 아득한 시간 안에서 성 · 주 · 괴 · 공을 하는 것이다.

> "무아와 무상은 본질적 진리
> 무아 · 무상 인식하면 열반적정
> 진리 알게 되면 고통 소멸하고
> 즐거움 생겨 이고득락하게 된다"

우리는 생로병사를 하고 정신작용은 생주이멸을 한다. 어떤 사물을 보면 의식이 일어나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 우주의 생명체들은 정신작용을 하여 생주이멸을 한다. 그래서 제행무상인 것이다.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부처님이 깃자쿠우타산(영취산)에 있을 때 유명한 수행자들이 샷비아 호숫가 정사에 모여서 '수행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를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때 외출서 돌아온 부처님이 수행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 생명체로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은 무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 내용이다. 여기서 부처님은 "무명으로부터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받아 우주 삼라만상의 생명체로 생겨난다. '오욕(재욕 · 식욕 · 색욕 · 명예욕 · 수면욕)' 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무상한 것이며 괴로운 것이다. 또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도 '나' 와 '나의 것' 은 없다"고 설했다. 바로 무상, 무아, 연기를 설명한 것이다.

재상 불사밀의 지혜

부처님을 신봉하고 불교에 귀의한 파세나디왕의 모후가 죽었을 때 이야기이다. 왕에게는 불사밀이라는 뛰어난 재상이 있었다. 그때 왕은 전국 순행을 나갔다. 왕의 모후는 100살이 되도록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다. 왕은 모후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전국 순행을 나섰다. 파세나디왕은 효심이 지극하여 평생 어머니를 잘 모셨다.

왕이 돌아올 때 쯤 모후가 죽는다. 불사밀 재상은 왕의 효성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소식을 들으면 누구보다 슬퍼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비통에 빠져 견디지 못하는 왕을 생각하고 불사밀이 꾀를 낸다.

왕이 순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목에 불사밀은 어느 장자의 집에 어른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내는 것처럼 장례 행렬을 떠나보낸다. 그때 불사밀이 왕과 마주치게 된다. 오랫동안 못 보았던 왕이 불사밀을 보고 반가워하며 "누구의 장례이기에 이처럼 거창하게 하느냐"고 물었다.

500마리 코끼리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따르고 같이 묻어질 사람들도 따르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순장하는 관습이 있어서 장자를 모시던 노예도 같이 묻을 것이라고 하였다. 왕이 불사밀에게 말한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인데 왜 쓸데없이 거창하게 장례를 치르느냐고 하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자 불사밀이 왕에게 "왕이시여, 다름이 아니라 모후께서 돌아가셨습니다"라며 장례행렬은 바로 모후의 장례라고 밝혔다. 임금은 한참 동안 침묵에 빠졌다. 침묵에 빠져서 깨어난 왕은 불사밀에게 "현명한 신하가 있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장례 행렬을 보고 임금은 죽음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도 본인은 충격에 빠지지 않은 것이다. 그 슬픔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불사밀의 지혜 덕분이다. 왕은 말을 몰아 부처님의 처소로 갔다. "부처님이여 이제 모후가 돌아가셨지만 오늘 불사밀이 저를 위로해주었고 장례도 치러 주었기 때문에 큰 슬픔은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파세나디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 것,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소. 마치 질그릇을 구울 때 유약을 발라 구운 것이든 아니든 간에 부서지고 마는 것과 같소. 우리의 몸에 4가지 두려움이 닥치면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오. 4가지란 늙음과 질병, 죽음, 무상이오. 이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행무상인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은 무상이며 제행무상이다.

열반적정(涅槃寂靜)

제법무아, 제행무상을 인식하는 순간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열반적정' 이다. 그래서 '열반적정' 은 제법무아와 제행무상을 인식하는 순간 인식하는 것이다. 마음의 상태가 바로 적정이므로 무명에서 벗어나면 바로 적정이 된다.

불교의 기본용어를 모를 때에는 선불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특별하지만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선불교의 화두는 쉬워진다. 선불교의 모든 화두도 삼법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법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진리를 깨치고 나면 무아이고 무상일 수 밖에 없다. 무아와 무상은 우주의 본질적인 진리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교리가 체계화 되는 과정에서 부처님은 제일 먼저 삼법인을 설명하였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제행무상이고 제법무아이고 일체개고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삼법인이 된다.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는 순간 그 때의 인식이 열반적정인 것이다. 그래서 삼법인을 바로 알아 고를 벗어나 열반적정, 극락을 이루어 살자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진리를 알게 되면 고통은 소멸하고 즐거움이 생겨 이고득락하게 되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 교수〉





나는 내 감정의 선택자다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⑨ 알아차림과 꼭두각시놀음



우리는 평생 심리적 꼭두각시놀음에 빠져 사는 건 아닐까. 꼭두각시는 조종자의 의도대로 온몸을 촐싹대며 반응하는 인형이다. 끊임없이 촐싹대면서 어리석게 굴며 구경꾼의 실소나 박장대소를 불러일으킨다. 꼭두각시를 둘러싼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구경꾼(관찰자)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꼭두각시와 조종자와 구경꾼. 이 세 요소 중 가장 비극적 존재는 누구일까. 물론, 꼭두각시다. 내가 즉각 '꼭두각시' 라고 하는 이유를 당신도 알 것이다. 꼭두각시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의도나 생각이 없다. 조종자의 의도나 손놀림에 '반응' 할 뿐이다. 조종자가 왼쪽 조종실을 잡아당기면 왼팔을 들어 올리고 오른쪽을 당기면 오른발을 들어 올릴 뿐이다.

꼭두각시를 연상시키는 일이 인간계에도 흔하다. 나라는 존재의 여섯 보초인 '눈, 귀, 코, 혀, 피부, 마음' 이라는 기관은 상황이나 조건이라는 조종자의 의도에 끊임없이 반응한다. 한 아이가 약속 시간에 늦은 엄마 손을 잡고 시장 길을 걷는다. 갑자기 아이가 엄마 손을 끌어당긴다. "엄마, 나 튀김!" "뭐?" "튀김 먹고 싶어!" 아이는 막무가내다. 엄마 입에서 짜증 섞인 일갈이 터져 나온다. 같은 튀김 냄새지만 아이는 좋아함으로 반응하고 엄마는 싫어함으로 반응한다. 두 모자의 공통점은? 즉각 반응했다는 것이다.

외부조건에 반응하는 당신

명상은 외부 조건(조종자)에 반응하는 내 몸과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작업이다. 망상(妄想)은 약속이라는 조건, 아이라는 조건, 그 아이가 하필 내 자식이라는 조건, 냄새라는 조건 따위에 오락가락 집중한 상태이다. 외부조건에 집중하면 산만해지고 자신에게 집중하면 고요하고 평온해진다. 사냥개는 조련사가 던지는 원반을 쫓지만 사자는 조련사를 겨냥한다. 사냥개는 조건을 쫓고 사자는 원인을 겨냥한다. 나는 나로부터 원인이고, 나에게서 원인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원인을 관찰한다는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내면의 숱한 염려나 생각을 주시하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붙들 것은 붙들고, 감당할 것은 감당하는 선택과 책임의 아이콘을 의미한다. 그래서 명상을 '자신의 진정한 주인 되기' 라고도 한다.

두 모자의 사례를 들여다보았다. 미안하지만, 그 반응 속도나 양태가 꼭두각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나 또한 하루에도 수백 번, 보이는 것, 냄새, 소리, 맛, 감촉, 생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지내지 않았을까. 싫어서 밀어내거나 좋아서 당기거나, 싫지도 좋지도 않아서 미적지근하거나. 그러면서 이것이 내 인생이며, 나는 꽤나 주체적 인간이라고 믿기도 한다. 명상의 스승들은, 그러는 자신을 구경꾼(관찰자)의 자리로 빠져나와 '제3자처럼 바라보라' 고 조언한다.

흐르는 강에서는 같은 물을 두 번 만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인연, 물건, 지식, 관념, 생각…. 이들은 강물처럼 흐른다. 그런데 자신만은 변함없다고 믿는다면? 타인의 변화에는 현미경이면서 자신의 변화에는 나무안경이라면? 혹시 나는 나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물어야 한다. 세상의 욕망, 언어, 눈치, 계급, 돈, 명예, 서열이라는 철사에 묶여 그때그때, 즉각즉각, 덜렁덜렁 춤추며 사는 건 아닌지.

누군가 나에게 매서운 눈빛을 보낼 때 나는 멈칫한다. 이때, 그 누군가는 내 의식의 조종자이자 조건이고, 반응하는 나는 꼭두각시? 아니다. 아직은 덜렁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위기다. 저 눈빛이라는 조종자가 나의 내면에 저장돼 있는 기억이나 감정, 생각, 견해, 관념 따위를 어떻게 건드리는지 깨어서 알고 있으면 나의 평온과 존엄도 지속될 것이다. 저 눈빛에 탁구공처럼 반응하여 화를 내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나는 '눈빛이라는 조종자에 반응하는 꼭두각시' 가 된다.

그러므로 평소 훈련이 필요하다.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고여 있는지 들여다보고 아는 것.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끄집어내는 일. 이것은 우리가 틈틈이 집안 살림을 점검하여 쓰레기는 버리고 먼지는 털어내는 이치와 같다. 글쓰기명상은 문자로써 그것을 꺼내보자고 한다. 나의 내면에 처박히고 고여 있는 언어, 지식, 관념, 신념, 가치관, 감각, 기억, 생각, 판단, 견해 따위들. 좋다고 붙들어 놓은 것, 싫다고 처박아 놓은 것. 그런 자동화 작업장 저 안쪽, 컴컴한 창고 속을 플래시로 비춰보고 햇빛 아래 꺼내보는 일이다.

외부조건 집중하면 산만해지고
자신에게 집중하면 고요해진다
명상은 주인 되는 힘을 키워내
내면에 고여 있는 것 들춰보자

언어로 풀어낸 감정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단원은 비교적 가볍다. 〈나를 기쁘게 하는 말, 100선〉 〈나를 부정적 감정에 빠뜨리는 말, 100선〉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었다. 우리는 늘상 '나를 기쁘게 하는 말' 을 듣고 싶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나 느낌' 은 생각만으로도 싫다. 하지만 이 말들은 내 안에 담겨 있어서 직접 꺼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막연하게 '나는 이런 말이 듣고 싶어' 라고 할 수는 있다. '나는 이런 말이 싫어' 라고 할 수도 있다. '듣고 싶어' 나 '듣기 싫어' 는 내 의도지만 막상 '듣게 되는 말' 은 내 의지와 상관없다.

당신을 둘러싼 조건은 그런 점에서 냉정하다. 아무리 듣고 싶은 말이지만 그는 까맣게 모른 듯하다. '옆구리 찔러 절 받기' 전에는 별 대책 없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말' 을 해주지 않는 그에게 불만의 화살을 쏴붙여야 할까.

진실을 털어놓자. 당신에게 그의 언어는 왜 중요한가. 당신을 기쁘게 하는 말이 단지 언어일 뿐인가. 아니면, 언어에 수반한 조건이나 상황들인가. 이를테면, 누군가가 '당신 참 예뻐' 라고 했다치자. 그래서 무조건 기쁠까. 같은 사람이라도 호젓한 산길에서 듣게 됐을 때와 궁지에 빠진 그가 상황 모면용으로 '당신 참 예뻐' 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같은 말이라도 이 사람이 해주면 기분 좋을 텐데, 딴 사람이 함으로써 두렵기까지 하지 않던가.

'호젓한 산길' 과 '당신 참 예뻐' 라는 언어, 그리고 나! 이것들을 좌악 펼쳐놓고 보자. '호젓한 산길' 은 물론 조건이나 상황이다. '당신 참 예뻐' 라는 언어는? 조종자이자 조건이다. 그리고 내가 있다. 나는 이 조건과 조종자를 거리 두고 관찰할 수도 있고, 홀린 듯이 빠져들어 덜렁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선택자다. 오늘 하루 나는 수많은 언어(조종자) 속에서 얼마나 선택하며 지내왔을까. 혹시 지금도 조종자(언어)의 손아귀에서 덜렁대며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 십수년 전 조종자의 손아귀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일단 내 안쪽을 들여다보자. 들여다보는 일은 빠져나옴으로써 가능하다.

나를 기쁘게 하는 말, 100선

- 지금 이 순간 내 몸이나 마음속에 들어 있는 기쁨, 드러내보기
- 나를 기분 좋게 했거나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게 했던 말, 받아적기
-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에게 기쁨 줄만한 말, 떠올려보기
- 살아오면서 부모, 형제에게서 들었던 기분 좋은 말, 기뻤던 표현, 받아적기
- 여러 이유로 그에게 직접 하지 못한 칭찬이나 감사, 기쁨의 표현 적기
- 마음에 스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를 향한 기쁨의 감탄사, 하나씩만 적어가기
- 기쁨이 솟구치는 미래의 내 모습, 묘사 글쓰기

나를 부정적 감정에 빠뜨리는 말, 100선

-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의 부정성, 언어화하기
- 나를 화나게, 슬프게, 우울하게, 불쾌하게, 질투 나게 했던 말, 기억 그대로 받아적기
- 요즘 나를 우울하거나 슬프게 하는 말, 적어보기
- 차마 직접 하지 못한,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 표현, 드러내기
- 오늘 하루 차근차근 떠올리면서 내 안에 갇힌 부정적 감정들, 언어화하기
- 최근 뉴스를 떠올리면서 함께 떠올랐던 부정적 감정, 언어화하기

'나를 기쁘게 하는 말' 과 '나를 부정적 감정에 빠뜨리는 말' 은, 말 하듯이 적어가는 게 좋다. "사랑해, 당신이 좋아." "당신 옆에 앉을 거야." "엄마, 안마해줄까?" 이보다 더 섹시하고 노골적인 대화들이 왜 없을까. 소위, 입말 그대로 표현되는 언어들은 싱싱한 오이를 생으로 씹는 기분이 들게 한다. 지금 이 원고나 교과서에서 애용하는 언어는 규격품 포장용제로 장식돼있기 십상이다. 그런 장식용 표현은 당신의 내면에서 활약하는 언어의 맛과 향기, 신선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소설 쓰기를 열심히 하던 시절, 나는 교과서용 포장 언어들을 시니컬하게 노려보면서 내뱉곤 했다. '밥맛이야!'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도 짝다리를 덜렁대며 침을 찍찍 뱉는 그 친구가 있다. 이성 친구를 만들기 위해 밤새워 편지 쓰던 친구도 있고, 땡땡이치고 영화관으로 직행하던 친구, 학교 뒷담 골목길에서 한판 뜨던 친구, 부모님 지갑을 뒤져서 용돈을 확보한 친구,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조퇴를 획책하던 친구 따위가 즐비하다. 이럴 때 애용했던 언어를 원음 그대로 일으켜보면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도 지켜볼 일이다.

지난날의 사연 안쪽에는 잉꼬 같은 기쁨의 대화가 있는가 하면 박쥐 같은 음울한 대화들도 붙어 있을 터. 그런데 어떤 이는 '부정적 감정에 빠뜨리는 말' 적어보기를 하기 전에 이런 근심을 토로한다. 부정성을 적다보면 부정성을 연습하는 꼴 아닌가요? 아, 그런 걱정은 타당하다. 자칫하면 내 안의 부정성을 베껴 쓰고 학습하는 훈련이 될지도 몰라. 하지만 살펴보라. 드러난 언어와 드러내는 자는 누구인가. 불빛을 받는 자와 불빛을 쏘는 자는 같을까 다를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케슬러 부부는 〈인생수업〉에서 "진정한 자신이 되려면 자신의 어두운 면과 결점에 대해서도 솔직해져야 한다"고 조언하다. 그러므로 드러내는 자여, 당신의 상처에 기생하는 그 아픈 사연들에게 '솔직' 이라는 빛을 쪼여주기를. 당신의 심리적 직사광선에 드러난 언어는 빛에 놀란 박쥐처럼 당신이라는 동굴을 떠날 것이다. 거의 모든 심리상담 또한 본인의 상처를 드러내는 데 초점 맞춘다. 왜 그럴까. 스스로 알지 못한 상처는 외부 조건을 만나는 순간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욕설이 튀어나오거나 힐난이 새어나오는 이유. 웃으면서 화내는 습관. 끝없이 웅얼거리며 화내기. 대답은 빠르고 행동은 느리게 하는 분노 표현. 이것들 또한 내 안의 곰팡이 같은 언어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려 한 때문이 아닐까.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자연을 입을 수 있게 자연섬유
인 견 제 품 생 산 전 문 업 체
풍기인견은나무에서추출한 순수 자연섬유로써 나무와 과학이 만난 환경 친화적인 자연소재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통풍력이 뛰어나며 정전기 또한 없는 자연 그대로를 느껴 입어 보시고 시원함을 피부로 경험해 보세요.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46번길 12-5 (성내3리106) | 전화 : 054-636-2362, 2636

長壽漢醫院印 장수한의원
원장 이영수
▣ 진료과목 : 침구과, 내과·소아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 특수치료 : 약침요법
▣ 점심시간 : 오후1시~오후2시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 30분 ~ 오후6시 30분)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7시)
토요일 (오전10시 ~ 오후2시)
일요일·공휴일 휴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48번지
(본오동 872-19)한양프라자 사거리(GS25시 건물2층)
TEL. 031)409-0541~2

박재완의 PhotoEssay



4월하고 초파일

비 내린 자리엔 올 것들이 다시 오고
바람 분 자리엔 다시 흔들리는 것들
새는 날아서 오늘을 기억하고
나무는 짙어서 내일로 간다
그렇게 숲은 여법하고 여법한데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 하나 만나는 일이 어렵고
부처로 태어나 부처 되는 일이 제일 어려우니
4월하고 초파일
곳곳에 연등이 걸린다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㉜ 석주 스님

5월이면 생각나는 마음속 스승

2004년 11월 원적에 드신 석주 스님은 마음속의 스승이다. 매년 5월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더욱 생각나는 어른이다. 석주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회의 부의장, 불국사와 은혜사 주지를 지낸, 한국 불교사에 공헌한 선지식이다. 평소 재소자들에게 많은 설법을 해주셨던 석주 스님은 아흔이 넘은 시절에 前 법무부 장관이 창설한 교정 대상 수상자로 지명됐다. 하지만 스님은 그 상을 거절했다.

"상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받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뭘 했다고. 그 상은 삼중 스님 같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줘야지."

하지만 그 때 그 상은 제1회 '교정 대상'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유로 결국 석주 스님이 선정됐다. 하지만 석주 스님은 끝내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상좌 스님이 대신하여 수상할 수밖에 없었다.

칠보사에 머무실 때 석주 스님은 항상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셨다. 언젠가 내가 그 까닭을 묻자 석주 스님은 방문을 닫아 걸어놓으면 왠지 마음속에 욕심이 웃자랄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셨다. 오랜 세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온 노승의 혜안을 보았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석주 스님의 모습은 삶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스님은 자신에게 들어온 것들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값이 나가는 것인지 전혀 궁금해 하지 않았다.

구명운동을 벌인 끝에 가석방될 수 있었던 박모 씨가 있었다. 내 인연이라 생각해 내 절에 머무르게 했는데, 하루는 느닷없이 박 씨가 석주 스님을 만나 뵙고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동한 낯빛으로 말했다. "역시 석주 스님은 큰스님이세요. 요즘 제게 말 못할 사정이 생겨 생각 끝에 석주 스님을 찾아뵙고 돈 십만 원만 달라고 했더니 백만 원을 주셨어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구명 운동에 애써 준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어쩌자고 찾아가서 돈까지 달라고 할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혔다. 나는 박 씨를 야단친 후 석주 스님을 뵈러 갔다. 내 절에 거둔 사람이니 내 책임도 많다고 생각했다. 나는 박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스님에게 여쭈었다. 그러자 스님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박 씨에게 돈을 주기는 했지만 백만 원을 주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차 내가 박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스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사건의 내막을 알겠다는 듯 말씀하셨다.

"얼마 전에 내게 신도 한 분이 불사에 써달라고 봉투를 하나 놓고 갔는데, 내가 그 봉투에 얼마가 들었는지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마침 박 씨가 찾아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그 봉투를 그대로 그에게 내주었지.

나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었다.

하루는 석주 스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삼중 스님, 건강 조심해! 나는 다되었지만 삼중 스님은 아직 할 일이 많은 스님이니 각별히 건강에 신경을 써."



서예전시회서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삼중 스님(사진 왼쪽)과 석주 스님(오른쪽서 두번째).

교화활동 도와주신 '큰 어른'
'욕심' 자랄까 방문 열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 뒤 좋은 일에 보태라며 봉투 하나를 주셨다. 나는 건강을 조심하라는 스님의 말씀에 석주 스님과 서옹 스님이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자선 바자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두 노장은 서로의 안부를 물은 뒤 서로의 건강을 염려했다. 평소 내가 존경하던 두 스님의 대화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된 나는 의아했다. 부처님 말씀을 따르자면 인간의 육체라는 것이 지수화풍인데, 생사를 따로 보고 있는 스님들의 대화에서 나는 적잖은 실망과 의심을 품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저 같은 늙은이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큰스님께서는 오래 사셔야 합니다."

석주 스님은 생사를 여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서옹 스님의 건강을 걱정한 것이다. 자신의 안위는 이미 다 놓아버린 지 오랜 '스승'임을 또 한 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내가 '아침 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마쳤을 때, 석주 스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삼중 스님, 참 잘했어. 우리 종단에도 삼중 스님 같이 멋지게 강의하는 스님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뻐. 정말 스님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사실 나는 강연을 많이 다녔다. 그리고 고맙게도 내 강연은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석주 스님과 같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것은 아니다. 도리어 나를 비방하는 스님들도 있었다. 나는 석주 스님의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어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석주 스님은 언제나처럼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그러지 마세요. 나 때문에 일부러 시간 내지 말고 스님 하시는 일이나 열심히 해줘."

석주 스님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다. 지방에 건설 중인 양로원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몹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심한 독촉에 시달리고 계셨다. 그 와중에도 인사차 뵈었을 때 스님은 붓글씨 50점을 주셨다. 돈으로 도울 수가 없으니 글씨라도 챙겨주신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스님의 글씨는 가벼운 글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글의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스님의 마음이었다. 언젠가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 주셨던 법문이 떠올랐다.

"이 세상에는 삼중 스님과 같이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스님들이 많아야 해.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 삼중 스님과 같이 좋은 일 하시는 스님들을 도와야만 하는 거야."

정리=박재완 기자



